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10-08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이 보고서는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8월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주성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연구원: 김지윤(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Contents

요약

ix

I

서론

II

방송사업자별 편성 현황 분석(2009년)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항목별 편성 현황	3
1) 오락 및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3
2)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현황	31
3)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34
4)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38
5)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53
6)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현황	62
2.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항목별 편성 현황	68
1) 오락 및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68
2)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현황	72
3)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74
4)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78
5)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78
6)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현황	81
3. SO, 위성방송 사업자, PP의 항목별 편성 현황	83
1)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83
2)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91
3)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91
4)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94
4. 2009년도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및 제재 현황	101
1) 영화	102
2) 애니메이션	103
3) 주된 방송분야	104

1. 지상파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	105
1)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105
2)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추이	109
2.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편성현황	110
1) JEI 재능TV	114
2) NICK	116
3) 대교 어린이TV	118
4) 애니맥스	120
5) 애니박스	122
6) 애니원	124
7) 챔프	126
8) 카툰 네트워크(CN)	128
9) 투니버스	130
10) 프로그램 중복편성 현황	131
11) 채널간 비교 및 국내 제작물 편성 시간대 분석	133

I. 애니메이션 이용행태 조사	138
II. 편성규제 관련 조항	146
III. 해외 주요국의 편성정책	182

Contents

표 목 차

<표 1> 지상파 3사 TV의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4
<표 2> 지상파 3사 TV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4
<표 3> 지역민방 TV의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9
<표 4> 지역민방 TV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9
<표 5> 지상파 3사 및 EBS 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24
<표 6> 지역민방 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24
<표 7> KBS 지역방송국 라디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25
<표 8> MBC 지방계열사 AM 라디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27
<표 9> MBC 지방계열사 FM 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	27
<표 10>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28
<표 11>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29
<표 12> 지역민방 TV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2
<표 13> 지역민방 라디오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2
<표 14> 지상파 3사와 EBS TV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5
<표 15> 지역민방 TV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5
<표 16> KBS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6
<표 17> MBC 지방계열사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7
<표 18>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9
<표 19>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39
<표 20> 지역민방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44
<표 21> KBS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46
<표 22>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	54
<표 23> 지상파 3사와 EBS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54
<표 24> 지역민방 TV의 수입영화 편성비율	56
<표 25> 지역민방 TV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57
<표 26> 분기별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58

<표 27>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분기별 편성비율	58
<표 28> 지역민방 TV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59
<표 29> OBS경인TV의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59
<표 30> KBS 지역방송국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	60
<표 31> 지상파 DMB TV 사업자의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69
<표 32> 지상파 DMB 라디오 사업자의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69
<표 33> 전문편성 지상파 DMB 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72
<표 34> 지상파 DMB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73
<표 35>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75
<표 36>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76
<표 37>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수입영화 편성비율	79
<표 38> 지상파 DMB 사업자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80
<표 39> SO 직사채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84
<표 40>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85
<표 4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86
<표 42> 수입 영화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92
<표 43>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93
<표 44> 수입 대중음악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94
<표 45> SO의 연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95
<표 46> SO의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95
<표 47> SO의 연간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	96
<표 48> 위성방송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	97
<표 49> PP의 연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98
<표 50> PP의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99
<표 51> PP의 연간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	100
<표 52> 법정 의무편성비율 분야별 점검 내용	102
<표 53> 2009년 중 영화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103
<표 54> 2009년 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103
<표 55> 2009년 중 주된 방송분야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104
<표 56> 지상파 3사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 비교	107
<표 57> 주요 지상파 TV의 연도별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109

<표 58>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2009년)	111
<표 59>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시청등급별 편성비율	112
<표 60>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분류별 편성비율	113
<표 61>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제작국가별 분포	114
<표 62> JEI 재능TV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15
<표 63> JEI 재능TV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15
<표 64> JEI 재능TV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16
<표 65> NICK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17
<표 66> NICK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17
<표 67> NICK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18
<표 68> 대교 어린이TV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19
<표 69> 대교 어린이TV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19
<표 70> 대교 어린이TV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20
<표 71> 애니맥스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21
<표 72> 애니맥스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21
<표 73> 애니맥스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22
<표 74> 애니박스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23
<표 75> 애니박스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23
<표 76> 애니박스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24
<표 77> 애니원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25
<표 78> 애니원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25
<표 79> 애니원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26
<표 80> 챔프TV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26
<표 81> 챔프TV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27
<표 82> 챔프TV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27
<표 83> CN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28
<표 84> CN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29
<표 85> CN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29
<표 86> 투니버스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130
<표 87> 투니버스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131
<표 88> 투니버스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131
<표 89>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버전차이 중복편성 현황	132
<표 90>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채널간 중복편성 현황	133
<표 91> 어린이 시청시간대 국내 제작물 편성현황	136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1] 지상파 3사 TV의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 비교	5
[그림 2] 지상파 3사 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추이	5
[그림 3] 지상파 3사 TV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추이	6
[그림 4] 지상파 3사 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추이	7
[그림 5] 10개 지역민방 TV의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 비교	8
[그림 6]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10
[그림 7] OBS 경인 TV, SBS와 9개 지역민방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11
[그림 8] EBS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추이	11
[그림 9] KBS 지역방송국 1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12
[그림 10] KBS 지역방송국 2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13
[그림 11] KBS 지역방송국 전체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14
[그림 12] KBS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비교	15
[그림 13] MBC 지방계열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15
[그림 14] 서울 MBC와 지방계열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16
[그림 15] 충청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17
[그림 16] 강원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18
[그림 17] 영남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18
[그림 18] 호남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19
[그림 19] 제주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19
[그림 20] 전체 지역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20
[그림 21] 지상파 3사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21
[그림 22] 지상파 3사 TV와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22
[그림 23] 지상파 3사의 TV와 AM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23
[그림 24]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34
[그림 25] KBS 1TV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0
[그림 26] KBS 2TV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1
[그림 27] MBC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1
[그림 28] MBC의 분기별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2
[그림 29] SBS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2
[그림 30] SBS의 분기별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3
[그림 31] EBS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3

[그림 32]	지역민방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44
[그림 33]	지상파 3사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45
[그림 34]	지상파 3사와 지역민방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물 편성비율 비교	45
[그림 35]	KBS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47
[그림 36]	KBS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49
[그림 37]	MBC 지방계열사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50
[그림 38]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의 연평균 외주제작물 편성비율 비교	53
[그림 39]	지상파 3사와 EBS TV의 분기별 수입영화 편성추이	55
[그림 40]	지상파 3사와 EBS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55
[그림 41]	지상파 3사 TV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63
[그림 42]	지상파 3사 TV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64
[그림 43]	EBS TV의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비율	64
[그림 44]	지역민방 TV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65
[그림 45]	지역민방 TV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65
[그림 46]	지상파 3사 및 EBS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67
[그림 47]	지역민방 TV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67
[그림 48]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교	70
[그림 49]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 DMB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70
[그림 50]	전문편성 DMB 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연평균 편성비율	71
[그림 51]	지상파 DMB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74
[그림 52]	지상파 3사 DMB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77
[그림 53]	주요 DMB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77
[그림 54]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78
[그림 55]	지상파 DMB 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연간 편성비율	82
[그림 56]	지상파 DMB 사업자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연간 편성비율	83
[그림 57]	지상파 3사와 EBS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105
[그림 58]	지역민방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108
[그림 59]	지상파 DMB 사업자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108
[그림 60]	주요 지상파 TV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추이	109
[그림 61]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분야 분포 비교	133
[그림 62]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시청 대상 등급 분포 비교	134
[그림 63]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제작 국가 분포 비교	135
[그림 64]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 시간대별 분포	136

요 약 문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2009년 중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편성 현황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항목과 방송사업자 구분 등은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을 따랐다.

우리나라의 방송법 및 하위 규정들은 다양성, 국가 정체성 등 방송 고유의 공익성을 보호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편성비율과 관련된 주요한 항목들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의 편성 비율,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편성 비율,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별 의무 편성비율들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항목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사업자 모두 월별 오락 프로그램을 50% 이내로 편성했으나, 주시청시간대에만 국한해서 보면 50%이상 편성한 사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의 경우에는 9개 지역민방 모두 월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의무기준인 80%를 상회하는 90% 이상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모든 방송사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보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영화가 가장 많았으나, 지상파 3사 모두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고, 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 쿼터의 경우에도 위반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SO, 위성방송, PP의 항목별 편성현황 중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26개 SO의 경우에 매분기 50% 이상을 편성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 역시 매분기 50% 이상을 편성하고 있다. 매분기 40%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전문편성 pp의 경우, 위반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PP의 경우, XTM, ATV, 일자리방송 등의 PP가 위반하였다. 영화에서는 예당아트, 채널CGV, 홈드라마,

KTV 등이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했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애니맥스가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법정비율보다 많이 편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추이 및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연간 35만분 이상 방송하고 있는 9개 채널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분석 결과, 2007년 이후 종합편성을 하고 있는 지상파 3사에 비해 교육 전문 편성을 수행하고 있는 EBS에서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경우 분석 대상 1주일 동안 9개 채널에서 총 376개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9개 채널에서는 일일 평균 23시간 이상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다.

프로그램 분야를 살펴보면 모험/액션과 명랑/코믹물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외의 프로그램 분야는 비교적 소수로 편성되어 특정 분야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시청등급을 살펴보면, 어린이/교육 채널 3개의 경우 12세 이상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채널의 경우에도 19세 이상 등급의 프로그램은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 국가별 분포를 분석해 보았을 때 대체로 일본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교육 채널인 대교 어린이TV와 NICK에서는 각각 한국과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편성과 관련하여 흔히 지적되는 중복편성의 경우, 버전별 차이를 두고 동일한 주인공이 나오는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인한 방송시간 분량이 전체 애니메이션 채널 방송시간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채널간 중복도 분석 대상 1주일 동안 많게는 8개 채널에서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송하는 채널들의 프로그램 다양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I. 서론

이 보고서는 2009년 중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방송사업자 별로 정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현황을 방송법에 따른 사업자별,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방송법에서 규정한 편성 관련 의무비율을 위반한 사례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각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편성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2010년 보고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어린이 채널의 편성 현황도 정리하였다. 부록 부분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애니메이션 시청행태 조사결과와 해외 주요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현황을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편성 관련 방송법 및 하위법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별 편성 현황 분석 부분은 우리나라 편성 정책의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편성정책의 주요한 원칙은 방송 공익성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방송사업자의 지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편성하는 프로그램의 범위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크게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나뉜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분야에 제한이 없이 모든 분야를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전문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들은 균형있는 편성을 위하여 특히 오락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시청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제한하고 있다.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일지라도 송출 시간의 일정 부분을 허가받은 주된 분야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사항은 국내 제작 프로그램 전체에 관한 편성 비율과 해당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해당 분야별 편성비율은 다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국내 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국내 제작 대중음악의 편성비율로 나뉘지며, 이러한 비율들은 사업자 지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된다.

전체적인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분야별 편성비율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방송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장르별 제한이 적용된다. 특이한 사항은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인데, 이 규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개 국가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송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있다.

지역 민방과 관련된 편성비율 규정으로는, 제작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주제작물 전체에 관한 편성 정책과 아울러, 지역성 구현을 위해 다른 한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있다. 외주제작물에 관한 정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독립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외주제작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독립 제작물 규정 이외에도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물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주시청시간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둔다.

방송사업자별 편성 현황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는 2009년 중 방송사업자별로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방송사업자별 편성 현황 분석 이후에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연간 35만분 이상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어린이 채널을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편성 현황 분석을 위하여 2009년 7월의 한 주간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주간 편성표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분석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하여 연구자들의 협의 하에 프로그램 분야와 시청 등급을 재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주요한 관점은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송하는 채널들이 프로그램 분야, 주요 대상 시청층, 그리고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영하는 9개 채널에 대한 채널별 분석에 덧붙여, 프로그램의 중복 편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애니메이션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각종 의무편성 비율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 관한 고시를 수록한다. 부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EU, 영국 및 호주의 지상파 텔레비전과 관련된 주요 편성정책 및 현황을 2008년도 보고서에서 준용하여 제시하였다.

Ⅱ. 방송사업자별 편성 현황 분석(2009년)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항목별 편성 현황

1) 오락 및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분류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의 세 분야로 구분된다.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매월 50% 이하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유지해야하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매월 60% 이상 방송해야 한다.

오락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 규정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¹⁾ 및 OBS 경인 TV, KNN,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등 10개 지역 민영방송, KBS의 18개 지역방송국 및 MBC의 19개 지방계열사, 4개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일부 채널 등에 적용된다.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정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에서는 교육 전문편성 채널인 EBS에만 적용되며,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는 11개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7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 적용된다.

(1) 지상파 3사의 텔레비전 방송

①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편성 현황²⁾

지상파 3사(KBS, MBC, SBS) 본사의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3사 모두 50% 이내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KBS 1TV는 전체적으로 20%

1) 이 보고서에서 지상파 3사는 KBS, MBC의 서울 본사 및 SBS를 지칭하며, 데이터 방송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방송법 시행령(제50조)이 명시한 국내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이후의 도표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로 나누어 제시될 것이다.

이하의 낮은 비율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KBS2 TV, MBC, SBS는 이보다 높은 40%대에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 3사의 텔레비전 방송은 모두 주시청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KBS 2TV의 경우 연평균 50.9%, MBC와 SBS는 평균적으로 60%를 넘는 비율로 주시청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표 1> 지상파 3사 TV의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1TV	18.6	16.2	16	15.8	14.4	13.1	14.7	14.3	14.5	13.3	13.9	15.8
KBS 2TV	46.1	41.8	42.1	42.8	45.4	44.5	43.9	45.4	44.9	49.3	44.9	46.3
MBC	46.3	40	44.2	40.9	40.4	43.3	43.2	42.5	42.1	46.3	42.6	42.6
SBS	45.9	43.9	45.4	39.5	39.7	44.9	42.2	42.8	43.6	47.8	41.7	42.1

<표 2> 지상파 3사 TV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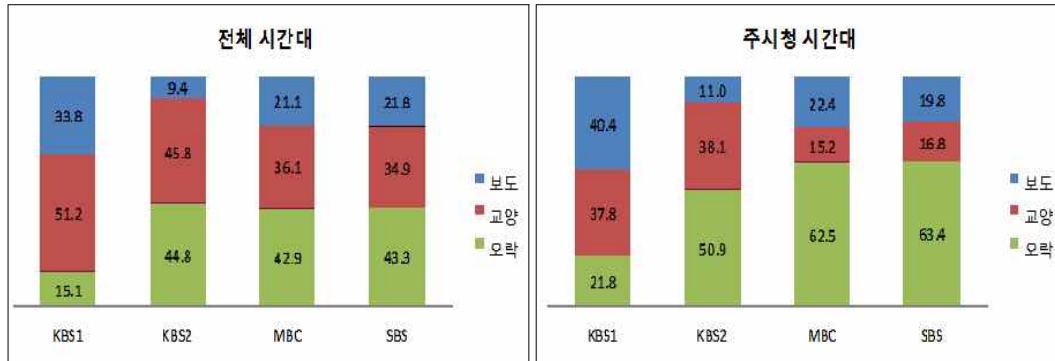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1TV	23	25	22.6	21.5	19.2	22	21.7	21.5	21.9	20.3	22	21.4
KBS 2TV	50.7	48.1	47.1	48.4	52.2	51.6	50.8	51	52.1	58.9	50.8	49.3
MBC	64.3	60.5	62.2	60.4	57.4	61.8	61.4	61.9	64.5	67.5	63.4	64.3
SBS	61.7	62.4	62.5	61.6	60.6	62.6	65.7	65.2	65	66	64.2	63.7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 1TV가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모두 다른 채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전체시간대 34%, 주시청시간대 40%),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KBS 1TV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 1TV와 KBS 2TV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체 시간대와 주시청 시간대에서 모두 나타난다. 실제로 KBS 1TV의 경우 전체시간대 대비 51.2%를, KBS2의 경우 45.8%를 교양 프로그램에 할애하고 있으며,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KBS 1TV는 37.8%, KBS 2TV는 38.1%로, MBC의 15.2%나 SBS의 16.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그림 1] 지상파 3사 TV의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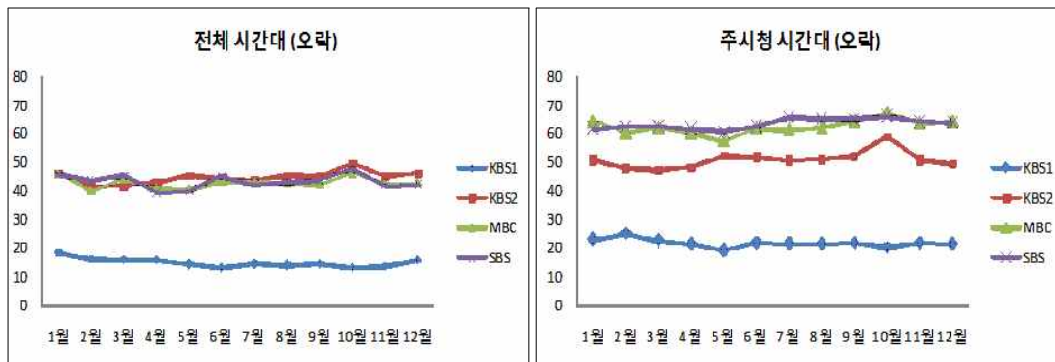
② 분야별 월별 편성 추이

가) 오락 프로그램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모두 KBS 1TV는 가장 낮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월별 편성비율에 특별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시간대의 경우에는 KBS 2TV, MBC, SBS의 채널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KBS 2TV가 SBS나 MBC에 비해 다소 낮은 편성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MBC와 KBS 2TV, SBS의 경우 10월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KBS 2TV와 MBC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2] 지상파 3사 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나) 보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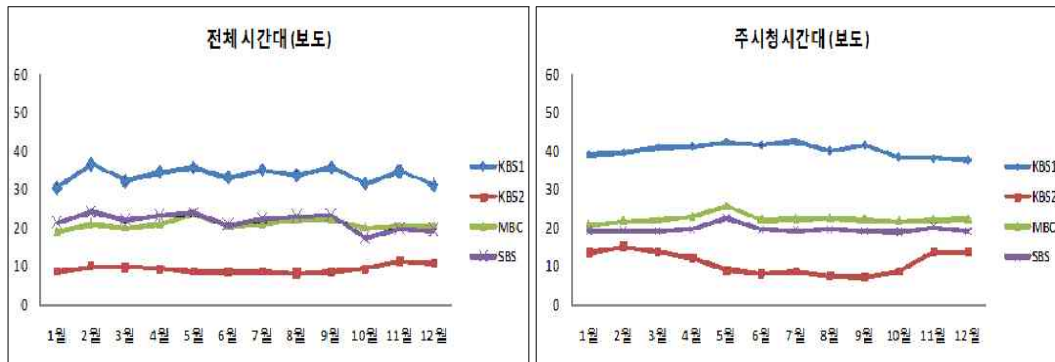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에 모두 KBS 1TV가 다른 채널에 비해 10% 이상 보도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KBS 2TV는 지상파 3사의 채널중 보도 프로그램을 가장 적게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서 10월 사이 주시청시간대에는 보도 프로그램을 10% 미만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영방송 KBS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두 채널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을개편이 있는 10월 이후 KBS 2TV는 오히려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증가한 한편 KBS 1TV는 약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시청시간대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SBS와 MBC는 주시청시간대와 전체 시간대에 걸쳐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주시청시간대에 뉴스 프로그램을 떠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BS의 경우 가을개편 이후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약 4% 가량 줄어들었다.

[그림 3] 지상파 3사 TV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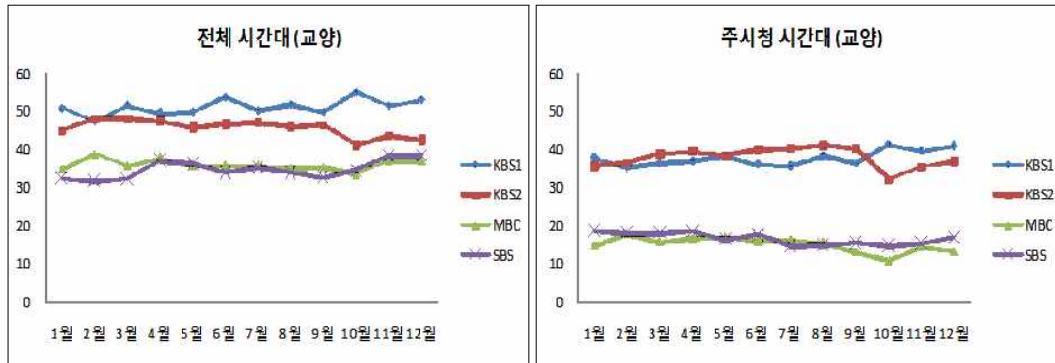
다) 교양 프로그램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KBS 1TV와 KBS 2TV는 다른 두 방송사에 비해 높은 비율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별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KBS 계열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에서 10월 이후 1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이 증가하고, 2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9년 가을개편 이후의 변화로 판단된다.

MBC의 경우에도 가을개편이 있는 10월 이후 주시청시간대 교양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와 월별, 계절별 추이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공통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4] 지상파 3사 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2) 지역민영 텔레비전 방송

① 주시청시간대와 전체시간대 편성 현황

지역민영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로는 OBS 경인TV, KNN,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의 10개가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모두 월별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가운데 OBS 경인TV는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모두 높은 비율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주시청시간대의 교양 프로그램 연평균 편성비율(46.8%)은 전국권 KBS 1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37.8%) 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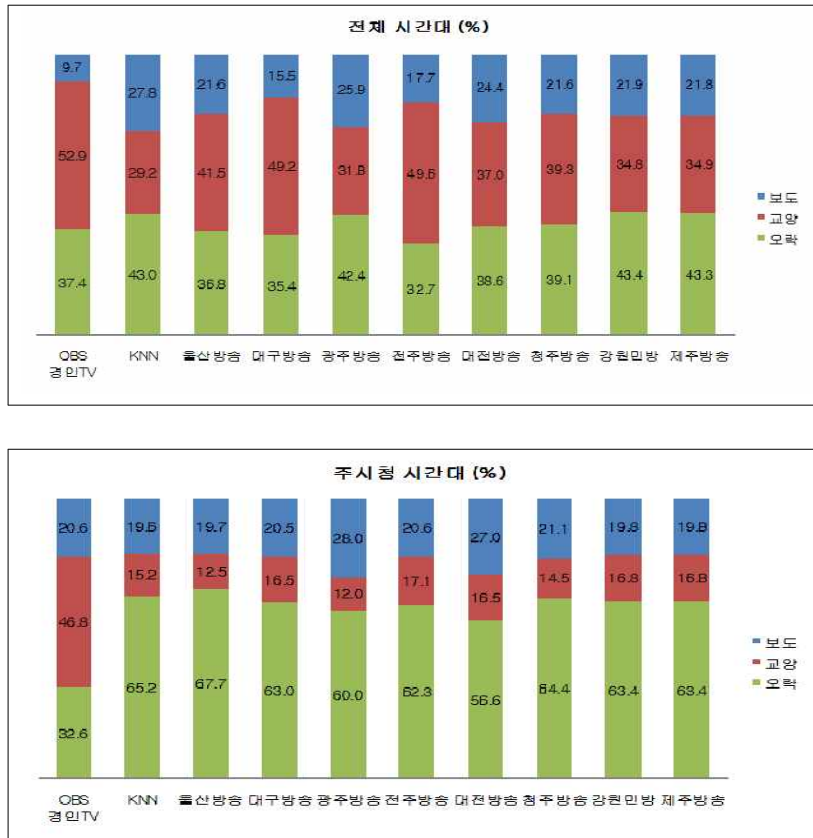
그 외 민영방송 사업자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시간대에는 모두 5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어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 시청시간대에는 대부분 60%대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OBS 경인TV는 전체시간대 대비 오히려 가장 낮은 편성 비율

3) 과거 iTV였던 경인TV가 2007년 12월 OBS 경인TV로 다시 정식 개국하며 새로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2008년 1월부터 통계자료에 포함되었다.

을 보이고 있으나, 주시청시간대에는 다른 방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광주 방송과 대전 방송이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그림 5] 10개 지역민방 TV의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 비교
(단위: %)



방송사별로 분야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2007, 2009년과는 달리 전체시간대에 공통된 분포가 나타나지 않고 방송사업자 별로 조금씩 다른 편성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10개 지역민방사업자들이 SBS와의 계약을 통해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재송출했던 관행을 다소 탈피하여, 독자적인 제작, 편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시청시간대에는 경인TV와 광주방송, 대전방송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SBS와 거의 유사한 분야별 편성비율(보도20%, 오락 63%, 교양 17%)을 보이고 있다.

<표 3> 지역민방 TV의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BS 경인TV	30.4	29.4	29.6	35.5	41.6	39.6	45.8	46.9	43.5	39.2	33.4	33.5
KNN	44.8	44.7	41.6	41.8	43.5	41.9	43	43.6	41.2	43.7	42.6	43.6
울산방송	40.5	38.1	35.7	35.2	35.1	35.3	35.6	37	36.5	38.8	36.9	37.2
대구방송	37.5	35.5	34.6	33.7	35.1	34.3	34.1	36.9	35.5	37	35.4	34.8
광주방송	46.9	44.7	47.8	43.2	41.1	45.5	41.9	15.6	44.3	48.4	43.1	46.2
전주방송	36.8	34.2	32.1	32.4	31.9	29.8	32.4	34.2	30.9	32.9	31.4	32.9
대전방송	40.3	41.3	37.6	35.9	37.3	36.9	37.1	39	37.1	36.9	41.7	41.5
청주방송	40.3	38.9	41.6	36.4	35.1	39.5	38.1	37.7	38.6	43.4	39.7	40.2
강원민방	45.8	43.8	45.2	39.5	39.5	44.8	42	42.7	43.3	47.8	41.6	44.7
제주방송	45.9	43.9	45.4	39.5	39.7	44.9	42.3	42.8	43.6	48	41.7	42.1

<표 4> 지역민방 TV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BS 경인TV	30.6	23.6	25	31.9	38.6	38.4	40.1	40.2	36.5	26.1	27.6	32.8
KNN	62.6	62.5	62.5	63.3	65.5	67.6	67.4	64.7	65.5	66.8	67.3	66.8
울산방송	67.1	69	69.8	68.4	65.3	66	65.7	65.2	65.9	71.6	70	68.9
대구방송	63.1	63.1	64.3	65	64.1	62.6	62.4	62.5	60.9	63.8	62.8	61.4
광주방송	61.2	61.5	64.7	64.6	53.9	58.9	59.4	53.6	62.1	56.4	61.2	62.9
전주방송	58.5	60	59.1	61.6	60.6	62.6	65.7	63.6	64	68.7	61.8	61.8
대전방송	49.2	54	49	61.6	45.3	46.9	52	56.9	65	65.4	64.2	69.3
청주방송	61.8	63.4	63.2	62.4	61.3	63.4	66.8	65.2	66.2	65.4	67.4	65.9
강원민방	61.7	62.4	62.5	61.6	60.6	62.6	65.7	65.3	65	66	64.2	63.7
제주방송	61.7	62.4	62.5	61.6	60.6	62.6	65.7	65.3	65	66	64.2	63.7

②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분야별 편성현황 비교

이 부분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분야별 편성비율을 비교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중 공영방송으로는 KBS 1TV, 2TV와 MBC⁴⁾가 포함되며 민영방송에는 서울의

4) 법적으로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적기관임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KBS 계열처럼 공영방송으로 분류한다. 단, 편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보도, 교양 프로그램 위주의 KBS 1TV를 분리하여 분석한다.

SBS와 10개 지역민방(OBS경인TV, KNN,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이 포함된다. 분석 과정에서 공영방송 중 채널 성격이 다른 KBS 1TV와, 민영방송 중에서 독특한 편성형태를 보인 OBS 경인TV를 고려하여, 이 두 방송을 제외시킨 방송채널 그룹의 편성 현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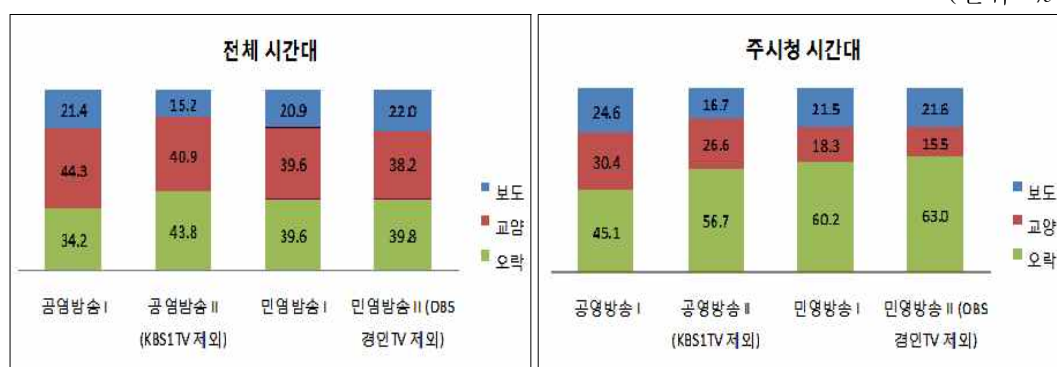
채널별 특성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전체와 민영방송 전체 평균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에 비해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낮고(34% 대 40%) 보도, 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처럼 보인다(65% 대 56%). 그러나, 채널 성격상 교양과 보도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KBS 1TV를 제외하면 KBS 2TV와 MBC의 오락 프로그램 비중은 민영방송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두 방송 채널의 평균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44%인 반면, 민영 방송의 평균은 40%로 나타난다.

주시청시간대에는 민영방송이 공영방송에 비해 오락 프로그램을 더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60% 대 45%), KBS 1TV를 제외한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도 높아지는 한편(57%) , 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은 오히려 민영방송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17% 대 22%). 교양 프로그램에 관한 한 전체시간대와 주 시청시간대에 상관없이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로 편성하고 있다.

민영방송 가운데 독특한 편성패턴을 보이는 OBS 경인TV를 제외하면, 전체시간대의 분야별 편성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주시청시간대에는 민영방송 그룹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3% 정도 높아지고, 그 대신 교양 프로그램 비중이 그만큼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시청시간대 OBS 경인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다른 지역 민영방송에 비해 특히 높고,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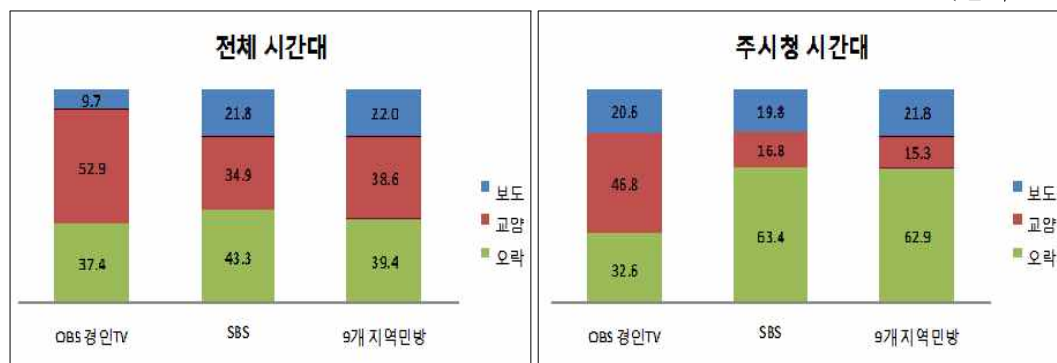
[그림 6]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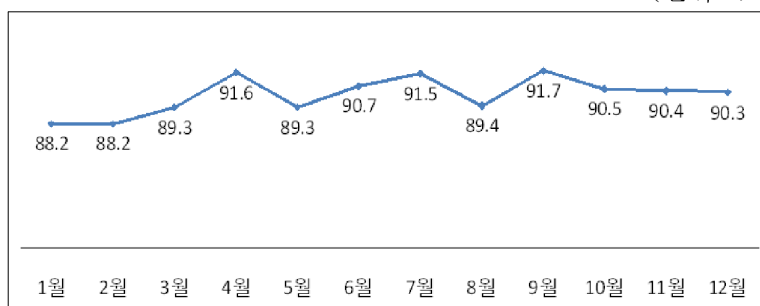
한편, 다른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들과 차별적인 편성 형태를 보이는 OBS 경인TV를 제외하고 SBS와 9개 지역민방 간의 편성비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에서 모두 SBS와 9개 지역민방 간의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SBS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지역민방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율적 편성·제작의 비율이 높은 OBS 경인TV와 비교하면 이와 같은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7] OBS 경인 TV, SBS와 9개 지역민방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③ 전문편성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에서는 전문편성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매월 6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에서는 교육방송인 EBS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50조).

[그림 8] EBS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EBS의 월별 편성비율 추이는 1년을 통하여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의무비율인 60%를 훨씬 상회하는 88~92%의 선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중 88~91% 선에서 교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유지하던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3) KBS, MBC의 지역방송국 및 지역계열사

① KBS 지역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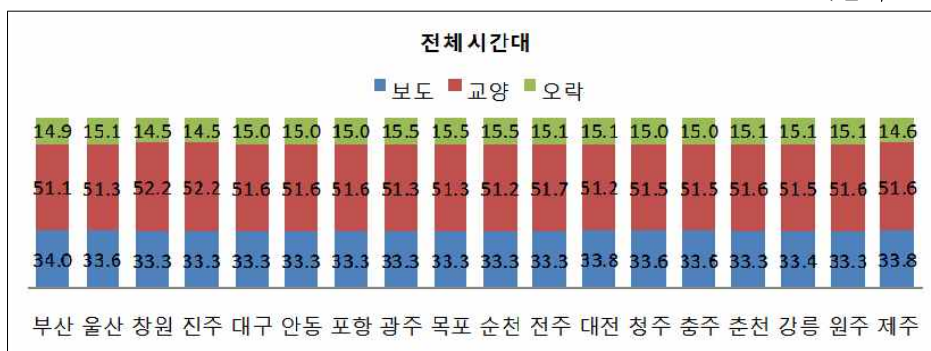
KBS의 지역방송국은 방송총국과 방송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방송총국은 부산(1TV, 2TV), 창원(1TV, 2TV), 대구(1TV, 2TV), 광주(1TV, 2TV), 전주(1TV, 2TV), 대전(1TV, 2TV), 청주(1TV, 2TV), 춘천(1TV, 2TV), 제주(1TV, 2TV)를 포함한다. 방송국은 방송총국과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으로, 울산(1TV, 2TV), 진주(1TV, 2TV),⁵⁾ 안동(1TV), 포항(1TV), 목포(1TV), 순천(1TV), 충주(1TV), 강릉(1TV, 2TV), 원주(1TV)로 구성되어 있다.⁶⁾

가) KBS 지역방송국 1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KBS 1TV의 경우, 지역방송국 간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전체시간대 교양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은 KBS 본사 1TV가 51.2%, 지역방송국은 51~52%로 확인되며,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본사 37.8%, 지역방송국 36~39%로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편성비율 상에 차이가 거의 없다. KBS 1TV는 본사와 지역권 모두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다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KBS 지역방송국 1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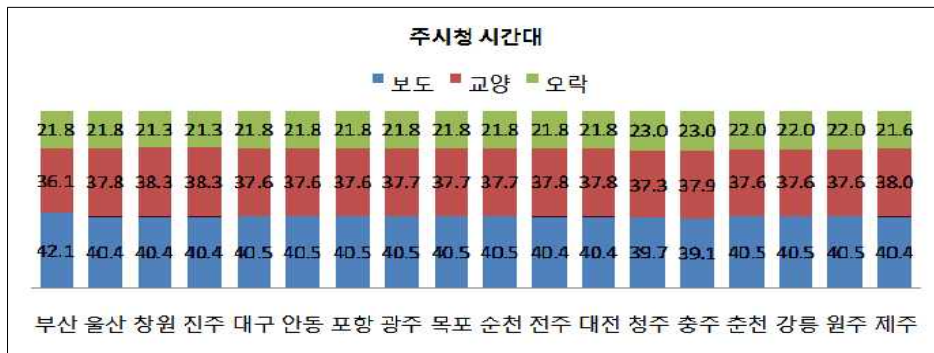
(단위: %)



5) KBS 진주방송국은 2009년 7월 이후 2TV 송출을 시작하였음

6) KBS 조직도, www.kbs.co.kr/openkbs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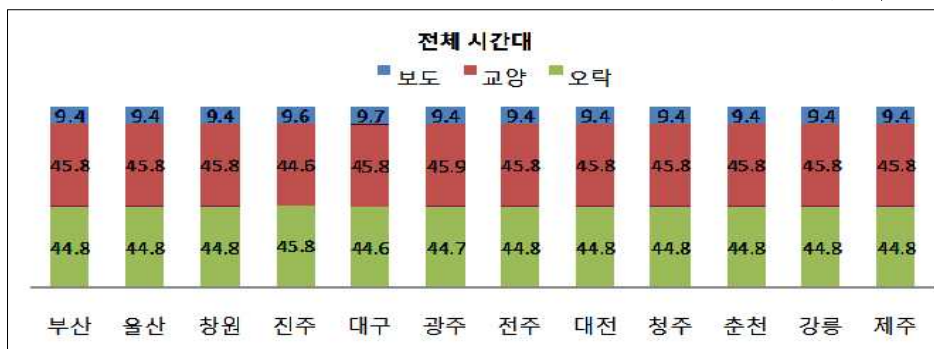
나) KBS 지역방송국 2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KBS 1TV와 마찬가지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연간 편성비율은 대부분의 지역 방송국이 KBS 본사 2TV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즉, KBS 본사 2TV의 전체시간대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연평균 편성비율은 각각 9.5%, 45.7%, 44.8%이며, 주시청 시간대 역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각각 11.0%, 38.1%, 50.9%인데, 12개 지역 KBS 2TV의 연평균 편성비율이 편차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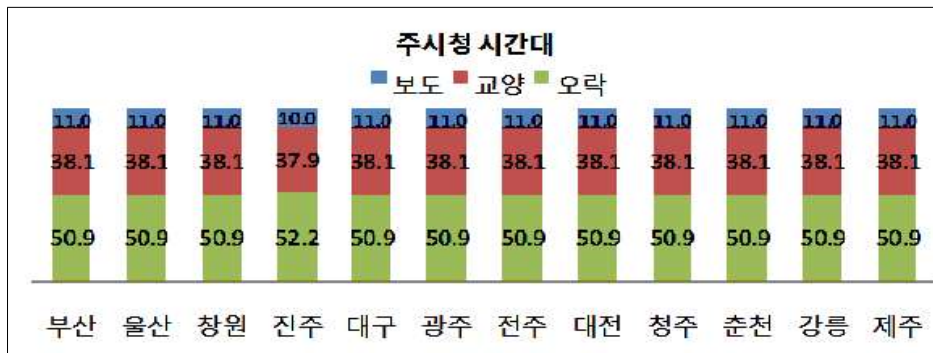
연평균 분야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시청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전체시간대보다 6%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시청 시간대의 연평균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시간대 대비 7% 이상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KBS 지역방송국 2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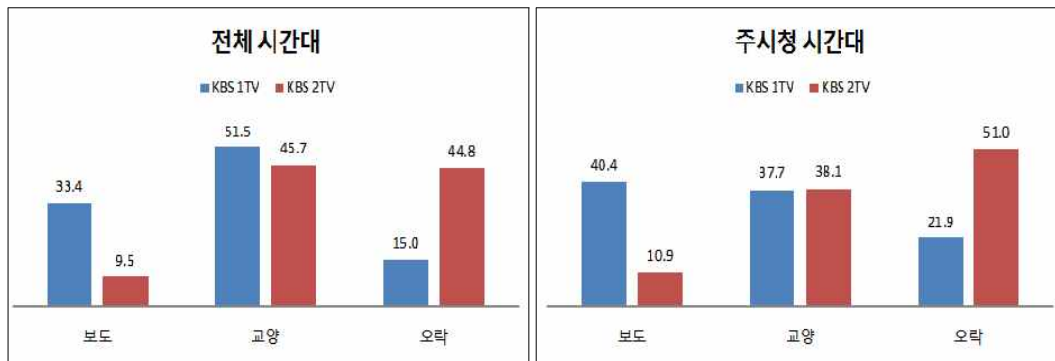


다) KBS 지역방송국과 본사의 편성비교

KBS 본사 1TV와 2TV의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마찬가지로, 전체시간대의 경우 지역 KBS 1TV의 교양 및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지역 KBS 2TV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에도 KBS 2TV의 오락 프로그램 비중이 KBS 1TV에 비해 30%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KBS 지역방송국 전체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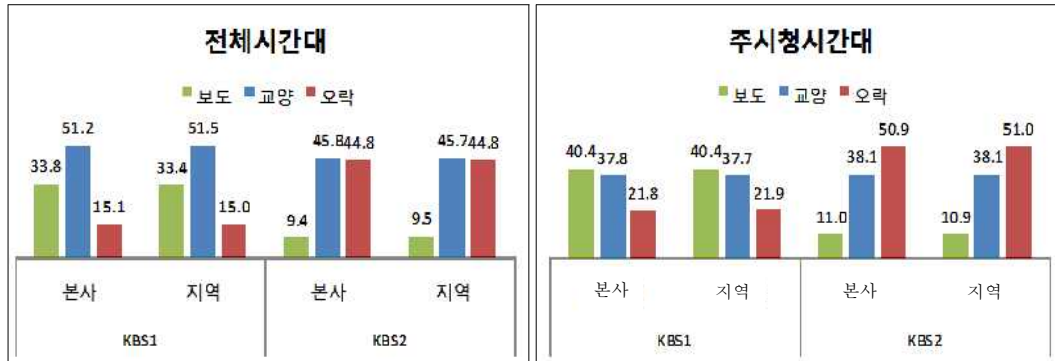
(단위: %)



다음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KBS 1TV와 2TV 모두, 대부분의 지역방송국이 본사의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매우 유사한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전체시간대에 비해 주시청시간대에 있어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1TV에 비해 2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KBS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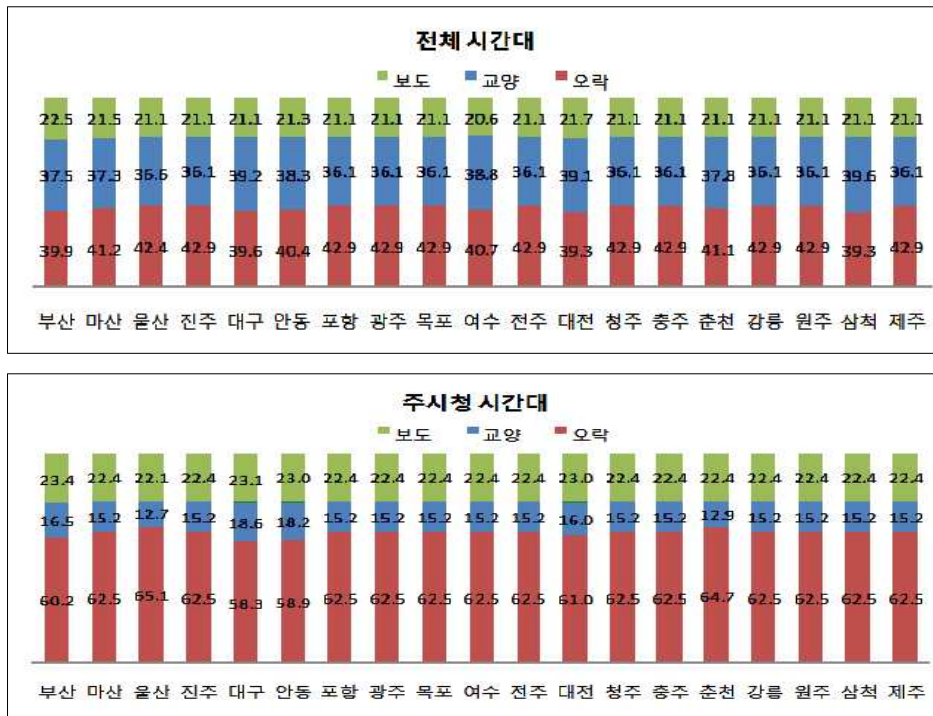


② MBC 지방계열사

MBC 지방계열사는 부산, 마산, 울산,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제주 등 총 19개 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지방

[그림 13] MBC 지방계열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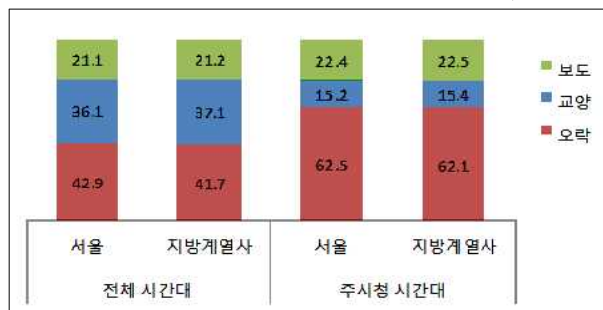
(단위: %)



계열사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큰 편차 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령, 주시청 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은 41.7%로, 최소 39.3%에서 최대 42.9%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37.1%를 보이는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지방계열사들은 36.1~37.8%의 범위에서 별 차이없는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방계열사들과 본사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의 구분없이 약 22%정도의 비율로 편성하고 있으며,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체시간대는 42~43%, 주시청시간대에는 약 62%의 비율로 편성하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시간대에는 36~37%, 주시청시간대에는 약 15%의 비율로 방영하고 있다.

[그림 14] 서울 MBC와 지방계열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③ 권역별 편성비율 비교

다음으로, 권역별 비교를 통해 KBS, MBC, 지역민방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권역은 크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방송사별로 해당 지역권에 포함되는 각 지역방송국은 다음과 같다.

MBC의 권역 구분은 영남권(대구, 마산, 부산, 안동, 울산, 진주, 포항), 호남권(광주, 목포, 여수, 전주), 충청권(대전, 청주, 충주), 강원권(강릉, 삼척, 원주, 춘천), 제주로 하였고, KBS 1TV 권역 구분은 영남권(대구, 부산, 안동, 울산, 진주, 창원, 포항), 호남권(광주, 목포, 순천, 전주), 충청권(대전, 청주, 충주), 강원권(강릉, 원주, 춘천), 제주로 하였으며, KBS 2TV 권역 구분: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진주, 창원), 호남권(광주, 전주), 충청권(대전, 청주), 강원권(강릉, 춘천), 제주로 하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인),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호남권(광주, 전주), 충청권(대전, 청주), 강원, 제주로 하였다. 수도권은 경우 앞서 지상파 3사 본사와 OBS 경인TV가 포함되지만, 앞에서 대부분 제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서 별도의 분석과 도표 제시는 생략하고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의 다섯 권역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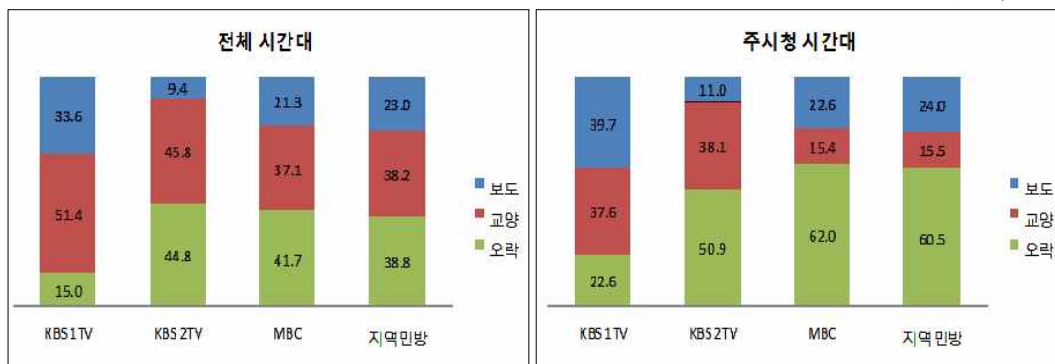
가) 충청권

충청권역에는 대전 MBC, 청주 MBC, 충주 MBC 등 3개 MBC 계열사 및 대전, 청주, 충주 지역 KBS 1TV, 대전과 청주 지역 KBS 2TV, 대전방송(TJB), 청주방송(CJB) 등의 지역방송국이 포함되었다.

전체시간대의 경우, KBS 2TV와 MBC의 연평균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각각 약 45%와 41%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지역민방은 이보다 약간 낮은 38.8%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MBC > 지역민방 > KBS 2TV의 순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모두 KBS 1TV가 3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권 KBS 2TV와 마찬가지로, 충청권에서도 전년도와 비교할 때 KBS 2TV의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연평균 편성비율이 다소 늘었음(41.3% → 44.8%)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충청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단위: %)



나) 강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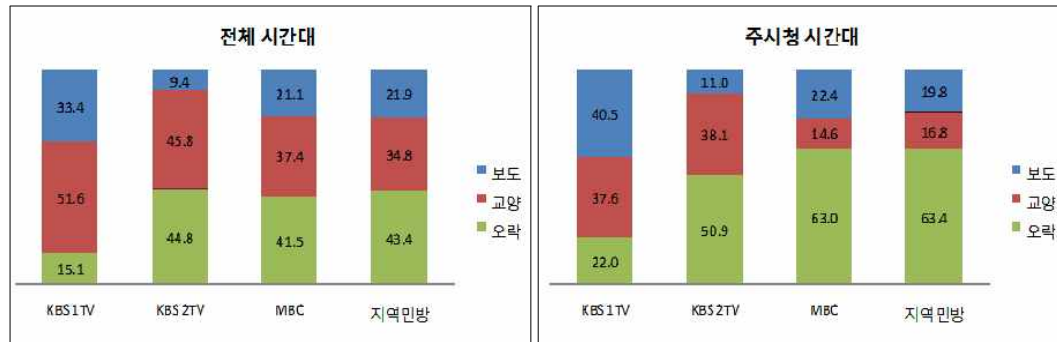
강원권에는 춘천 MBC, 강릉 MBC, 원주 MBC, 삼척 MBC 등 4개 MBC 계열사 및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KBS 1TV, 춘천, 강릉 지역의 KBS 2TV, 강원민방(GTB) 등의 지역방송국이 포함되었다.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 2TV > MBC > 지역민방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KBS 1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15.1%로 타사의 1/3에 가까운 수준이다. 주시청시간대에는 지역민방과 MBC > KBS 2TV > KBS 1TV의 순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민방과 MBC의 경우 60%를 웃돌며 주시청시간대에 높은 비율로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6] 강원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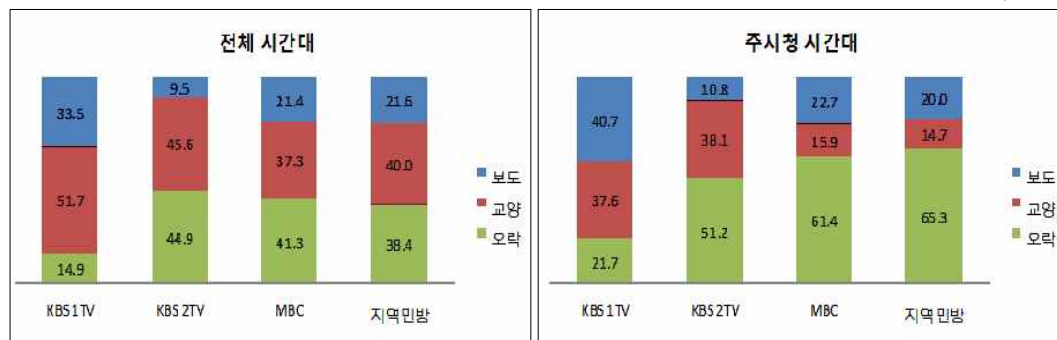
다) 영남권

영남권에는 7개 MBC 계열사(부산, 마산, 울산, 진주, 대구, 안동, 포항) 및 7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KBS 1TV,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KBS 2TV, KNN, 울산방송(UBC), 대구방송(TBC) 등의 지역방송국이 포함되었다.

전체시간대의 경우 KBS 2TV, MBC가 40%선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KBS 1TV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지역민방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림 17] 영남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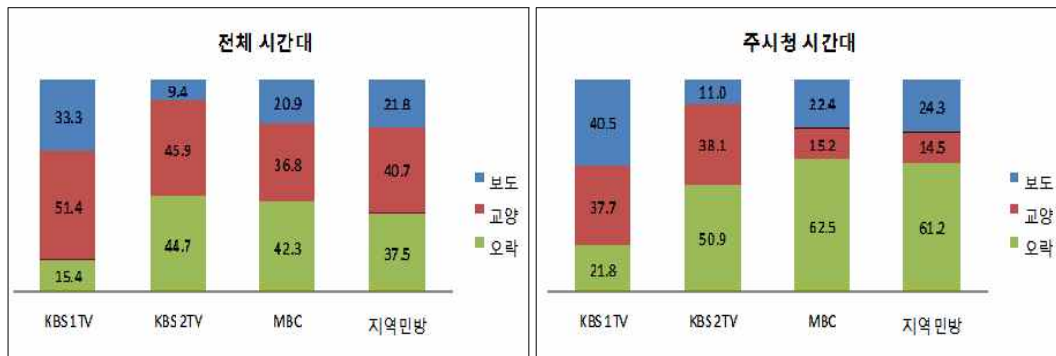
라) 호남권

호남권에는 4개 MBC 계열사(광주, 목포, 여수, 전주) 및 4개 지역(광주, 목포, 순천, 전주)의 KBS 1TV, 2개 지역(광주, 전주)의 KBS 2TV, 광주방송(KBC), 전주방송(JTV) 등의 지역방송국이 포함되었다.

전체시간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KBS 2TV, MBC, 지역민방, KBS 1TV의 순으로 높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시청시간대에는 MBC, 지역민방, KBS 2TV, KBS 1TV의 순으로 오락 프로그램을 높게 편성하고 있다.

[그림 18] 호남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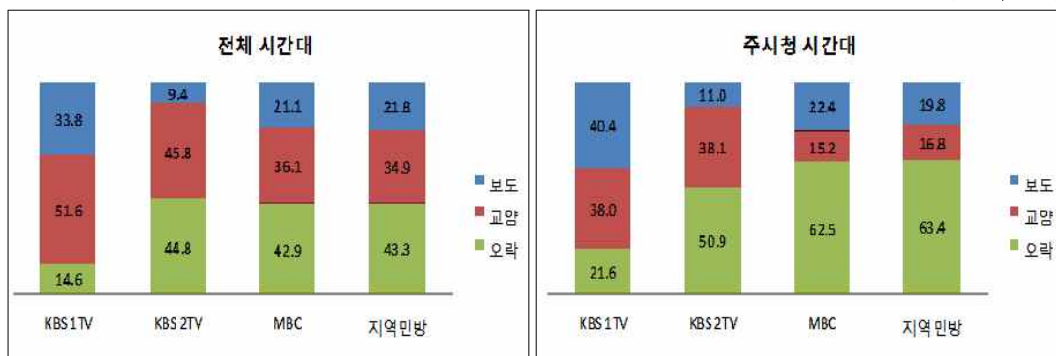


마) 제주권

제주권에는 제주 MBC, 제주 KBS 1TV, 2TV, 제주방송(JIBS) 등의 지역방송국이 포함되었다.

[그림 19] 제주권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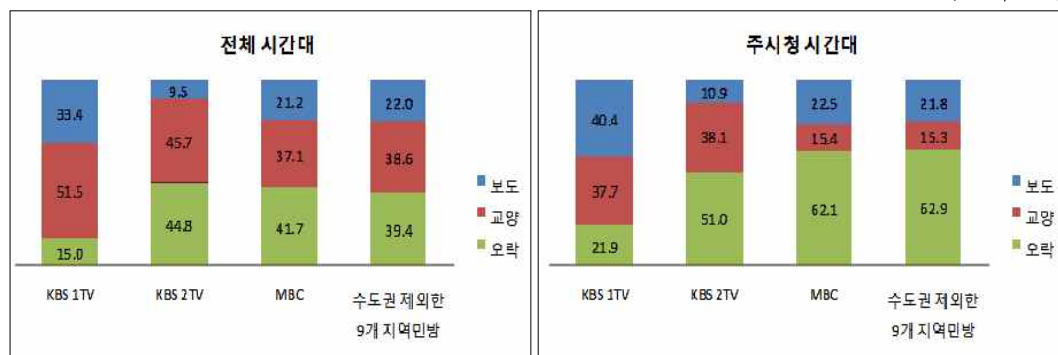
제주권 역시 편성비율 구성이 다른 지역권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있어서는 KBS 2TV, 지역민방, MBC, KBS 1TV의 순으로 주 시청시간대는 지역민방, MBC, KBS 2TV, KBS 1TV의 순으로 높은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바)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편성 종합비교

종합하자면, 전체시간대의 경우 KBS 2TV계열이 가장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있으며(45%) 그 다음으로 MBC계열, 지역 민방의 순이다. 전체시간대의 경우, 평균 약 41%대로 거의 비슷했던 전년도에 비해 KBS 2TV와 MBC의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다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시청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MBC계열사와 지역민방사들의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은 62%대이며, KBS 2TV계열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51%이다. KBS 1TV와 비교하면 나머지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세 배 가까이 높은 편이며, KBS 1TV계열은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에 있어서 타사대비 높은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정리한 중앙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유사한 구성이다.

[그림 20] 전체 지역 지상파 TV의 분야별 편성비율

(단위: %)



(4)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대체로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 3사 본사 및 KBS와 MBC의 지역방송국이 운행하는 AM 및 FM 라디오 채널, 9개 지역민방(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강원, 제주)의 FM 채널, 그 밖에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들이 운행하는 AM 및 FM 채널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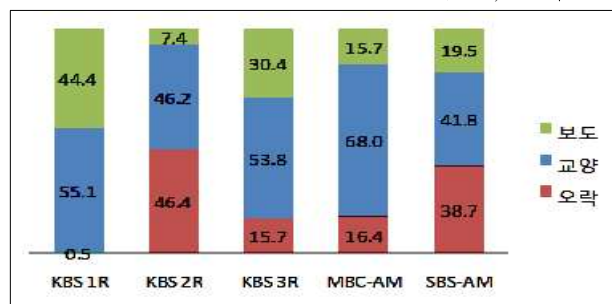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로는 YTN, 라디오 인천(경기방송), CBS, BBS, PBC, 극동, 원음, TBS, TBN, 국악방송, 아리랑 영어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자가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서 운행하는 FM 및 AM채널이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2008년 12월 1일 개국하여 2009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채널인 TBS eFM, 2009년 7월 이후 조사대상에 추가된 서울(관악, 마포), 경기(분당), 광주, 공주, 대구(성서), 영주 지역 7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FM 방송국, 마찬가지로 2009년 7월 이후 추가된 광주영어방송 FM, 부산영어방송 eFM 등도 이 보고서에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로 포함되어 있다.

① 지상파 3사 라디오 방송의 분야별 편성현황

오락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지상파 3사의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으로는 KBS 3개 채널(1라디오, 2라디오, 3라디오)과 MBC AM(표준FM), SBS AM(러브FM) 등 5개 채널이 있다.⁷⁾

지상파 3사 라디오 방송의 채널별 특징을 살펴보면, KBS 1R의 경우, 24시간 뉴스와 시사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KBS 2R(해피 FM)는 건강한 가족·오락 채널을 지향하는 오락채널, KBS 3R는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방송을 표방한다. 한편, MBC의 표준FM과 SBS의 러브FM은 시사교양 및 생활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고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편성하고 있다.

[그림 21] 지상파 3사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AM, 단위: %)



이러한 채널별 특징이 편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증가 되

7) 이 가운데 MBC의 AM 방송 표준FM과 SBS의 AM 방송 러브FM은 채널 명칭의 일부(FM)가 상징하는 것처럼, AM 뿐만 아니라 FM에서도 수신 가능한 주파수를 가지고 AM과 FM 주파수대 모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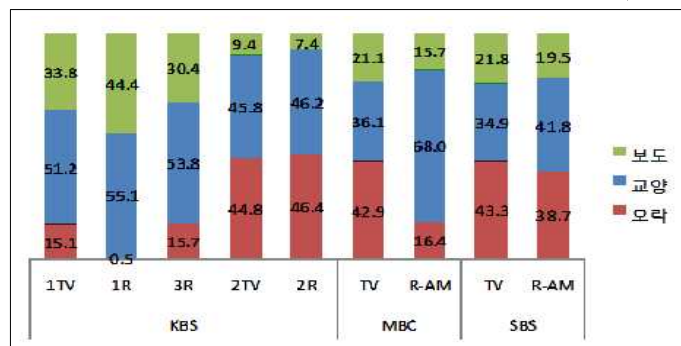
는 KBS 1R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BS 2R의 경우 KBS 1R에서 거의 편성하지 않는 오락 프로그램을 상당한 비중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KBS 3R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이 편성되나 그 분량은 많지 않으며, 장애인, 노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 정체성으로 인해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KBS 2R의 편성 형태는 SBS AM과도 비슷하여, 두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MBC는 KBS 3R과 비슷한 편성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오락과 보도 프로그램도 약 16% 정도로 함께 방송하고 있다.

지상파 3사의 텔레비전과 종합편성을 하는 AM 라디오 채널의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을 비교해보면, KBS의 경우 1TV와 1·3R, 2TV와 2R가 비교적 유사한 편성 구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MBC와 SBS의 지상파 텔레비전은 분야별 편성비율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라디오의 경우를 살펴보면 SBS 라디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MBC 라디오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나 SBS 라디오 채널의 오락성이 훨씬 강하다는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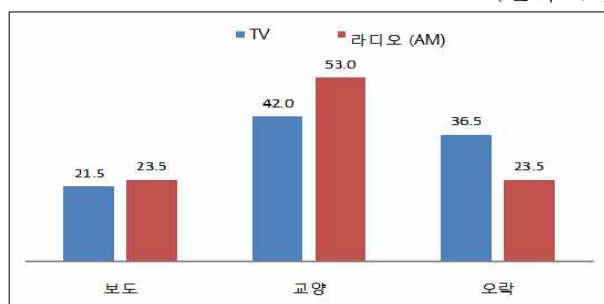
[그림 22] 지상파 3사 TV와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비교
(단위: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텔레비전 방송과 종합편성을 하는 AM 라디오 방송의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을 매체별로 총괄하여 비교해보면, 텔레비전의 경우 교양 > 오락 > 보도 프로그램의 순으로, AM 라디오의 경우 교양 > 보도 = 오락 프로그램의 순으로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과 비교할 때 AM 라디오에서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11%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13%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도 프로그램은 근소한 차이(2%)로 라디오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라디오의 경우 FM과 AM으로 채널이 구분되어 있으며, 채널 정체성에 있어서 전문 편성을 주로 하는 FM에 비해 AM에서는 오락 보다는 교양과 보도의 기능을 더 강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3] 지상파 3사의 TV와 AM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단위: %)



② 전문편성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전문 편성을 수행하는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60%이상 편성해야 한다.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로는 지상파 3사의 FM 채널(KBS 1FM, KBS 2FM, KBS 한민족방송, KBS 국제방송, MBC FM, SBS FM)과 EBS FM이 포함되며,⁸⁾ 10개 지역 민영 방송 사업자(경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강원, 제주)의 FM 채널도 포함된다.

지상파 3사 및 EBS의 FM 방송의 월별 편성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7개 채널 모두 의무편성비율인 60%를 훨씬 웃도는 100%에 가까운 비율로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KBS 1FM은 서양 고전음악과 국악방송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채널이며 KBS 2FM(쿨FM)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음악 전문채널이다. 한민족방송은 남북교류 및 한민족 관련 내용을 다루며, 국제 방송(KBS WORLD Radio)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다국어 국제방송 전문채널이다. MBC FM(FM4U)과 SBS FM(파워FM)은 모두 음악 중심의 오락채널이다.

<표 5> 지상파 3사 및 EBS 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KBS	1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FM	99.1	99.1	99	99.5	98.8	99.5	99.1	99	99.1	99	99	99.1	99.1
	한민족 방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방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BC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9	99.6	99.7	99.6	99.6	99.6	99.7
SBS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BS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민방의 모든 FM 채널들도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된다. 이들 가운데 경인방송의 iTV FM⁹⁾은 매월 90% 이내의 범위에서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부산의 KNN FM과 대구방송FM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민방의 FM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 100% 가까이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경인방송, KNN FM, 대구방송 FM 등 몇몇 방송은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80~90%대를 오가며 월별 차이를 보였다.

<표 6> 지역민방 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경인방송 FM	88.2	88.3	88.3	88.2	88.3	88.2	88.2	90	88.2	88.2	88.6	88.4	88.6
KNN FM	98.2	98.6	98.6	87.9	87.4	87.3	89.1	86.6	92.1	90.9	98.5	98.2	92.8
울산방송 FM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대구방송 FM	99.3	99.3	99.3	92.5	93.7	93.5	94	92.3	93.8	99.3	99.3	99.3	96.3
광주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주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전방송 FM	98.3	99.8	98.3	96.4	98.3	96.4	98.3	99.3	96.4	98.3	96.4	98.3	97.9
청주방송 FM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강원민방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 경인방송 iTV FM은 2006년 4월 경인방송에서 라디오 인천 Sunny FM으로, 2007년 10월 경인방송으로 회사명을 재변경한 후 경인방송 iTV FM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지역에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5) 지역 KBS, MBC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① KBS 지역방송국

KBS 지역방송국은 부산(1R, 2표준FM, FM), 울산(1R, FM), 창원(1표준FM, 2표준FM, FM), 진주(1R, FM), 대구(1R, 2R, FM), 안동(1R), 포항(1R), 광주(1R, 2표준FM, FM), 목포(1R, FM), 순천(1R), 전주(1R, 2R, FM), 대전(1R, 2표준FM, FM), 청주(1R, 2표준FM, FM), 충주(1R, FM), 춘천(1R, 2표준FM, FM), 강릉(1R, FM), 원주(1R, FM), 제주(1R, 2표준FM, FM) 등 18개 지역에서 42개 채널이 운영 중이다.

이들 42개 채널 가운데,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은 부산(1R, 2표준FM), 울산(1R), 창원(1표준FM, 2표준FM), 진주(1R), 대구(1R, 2R), 안동(1R), 포항(1R), 광주(1R, 2표준FM), 목포(1R), 순천(1R), 전주(1R, 2R), 대전(1R, 2표준FM), 청주(1R, 2표준FM), 충주(1R), 춘천(1R, 2표준FM), 강릉(1R), 원주(1R), 제주(1R, 2표준FM) 등 18개 지역의 27개 채널이다.

이들 방송국들은 모두 매월 50% 이내의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앞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방송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KBS 본사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1R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현저히 낮고, 표준 FM이나 2R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40~50% 가까이로 높게 나타나는 등, 채널간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표 7> KBS 지역방송국 라디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산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울산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창원	1표준FM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4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진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5	0.7	0.9
대구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R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안동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포항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방송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8	46.6	48	48.8	47.6	47.6	44.4	44.5
목포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순천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전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R	44	42.6	44.4	45.1	45.1	44.5	47.9	48.2	47.4	47.4	44.4	44.4
대전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청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충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춘천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강릉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원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제주	1R	0.5	0.1	0.2	0.1	0.7	0.4	0.5	0.9	0.6	0.8	0.7	0.9
	2표준FM	48	46.3	45.1	44.1	46.7	46.5	47.9	48.2	47.4	47.4	44.4	44.4

한편,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전문편성 FM 채널은 총 15개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광주, 목포,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지역에서 각각 하나씩 운영 중이다. 15개사 모두 2009년에 매월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을 100%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② MBC 지방계열사

MBC 지방계열사는 부산, 마산, 울산,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제주의 19개 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지방계열사는 각각 AM과 FM 채널을 한 개씩 운영 중이며, 종합편성을 하고있는 AM 채널에는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매월 50% 이내)이, 전문편성을 하고있는 FM 채널에는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매월 60% 이상)이 적용된다.

MBC 지방계열사의 AM 라디오 방송들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방송사들이 매월 의무편성비율 기준인 50%보다 훨씬 낮은 13~18%의 범위 내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도(13~22%)에 비해서 약간 낮아진 수치로, 2008년에 비해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

<표 8> MBC 지방계열사 AM 라디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MBC(19개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산	AM	15.7	14.4	13.6	14.7	14	14.7	14.7	14.6	15.8	13.4	14.4	14.3
마산	AM	16.5	16.4	15.4	16.9	15.9	16.2	16.6	16.6	16.5	15	16.6	16.6
울산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	16.6
진주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대구	AM	16.7	16.2	17.5	16.9	16.5	17.2	16.9	17.4	17.4	17.2	16	15.9
안동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포항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광주	AM	16.7	16.6	15.5	16.9	16.2	16.2	16.9	15.8	17.1	16	16.9	16.7
목포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여수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전주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7	16.6
대전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7	16.6
청주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7	16.6
충주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7	16.6
춘천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강릉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7	16.5	15	16.6	16.6
원주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7	16.5	15	16.6	16.6
삼척	AM	18.3	18.2	17.2	18.4	17.6	18	18.2	18.3	17.9	16.1	18	14
제주	AM	16.7	16.6	15.5	16.9	16.1	16.4	16.7	16.6	16.5	15	16.6	16.6

한편, 전문편성을 하고 있는 MBC 지방계열사의 FM 라디오 19개는 모두 주된 방송분야의 의무편성비율인 60%를 훨씬 웃도는 99-100% 선에서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표 9> MBC 지방계열사 FM 라디오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산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마산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울산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진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대구	FM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동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포항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광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목포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여수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전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대전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청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충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춘천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강릉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원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삼척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100
제주	FM	99.7	99.7	99.7	99.6	99.6	99.6	99.6	99.6	99.7	99.6	99.6	99.6

(6)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앞서 간략히 서술한 것처럼, 지상파 3사 본사 및 지방계열사, EBS 및 지역민방의 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로는 라디오인천, CBS, BBS, PBC, 극동, 원음, TBS, TBN, 국악방송, YTN라디오, 아리랑영어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자가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서 운행하는 FM 및 AM채널과, 2008년 12월 1일 개국한 TBS eFM, 2009년 7월 이후 추가된 7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FM 방송국, 2개 영어방송 채널(광주영어방송 FM, 부산영어방송 eFM)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우선,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개별 지상파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경기방송과 TBS eFM, 광주영어방송과 부산영어방송의 4개 사업자로, 모두 매월 50% 미만으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였다.

<표 10>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방송	FM	36.5	36.5	36.3	36.4	36.3	36.4	36.4	36.3	36.4	42.5	42.2	42.2
TBS 서울교통	eFM	48.4	48.4	48.4	46	46	46	46	46	46	46	45	45
광주영어방송	FM	-	-	-	-	-	-	47.6	47.6	47.6	47	47	46
부산영어방송	eFM	-	-	-	-	-	-	43	43.7	46.9	43	47	47

이들 4개 개별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개별 라디오 방송사업들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들이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61개 채널에는 주된 방송분야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된다.

분석 결과, 2009년 중 모든 채널들이 60%이상이라는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¹⁰⁾

<표 11>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BS 기독교 (14개사)	서울	AM (표준 FM)	83.7	83.7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87.6	87.6
		FM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춘천	FM	83.7	71	83.7	76.9	71	76.9	76.9	76.9	76.9	81.4	87.6	87.6
	영동	FM	72.2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부산	AM	72	71	72	71	72	71	72	72	71	72	71	72
	경남	FM	72.2	71.4	72.2	73.8	72.2	73.8	72.2	72.2	73.8	72.2	73.8	72.2
	울산	FM	66.1	66.1	66.1	66.1	66.1	70.7	66.1	66.1	66.1	66.1	66.1	66.1
	광주	AM	79.1	78	79.1	78	79	78	79	79	78	79	78	79
	전북	AM	72	72	72	72	72	72	72	72	72.5	72	72	72
	전남	AM	71.1	71.2	71.8	71.8	71.8	71.8	71.8	71.8	71.8	71.1	71.8	71.1
	제주	FM	70.7	80.3	78.9	80	80	80	80	80	80	83	86	86
	대구	AM	83.6	83.7	83.7	83.6	83.7	83.7	83.7	83.7	83.7	81.5	82	82
	포항	FM	78.8	78.9	78	77.8	78	77.8	77.7	78	77.7	81.9	87.4	87.2
	대전	FM	71.7	70.3	71.7	70	72	70	71.7	70.3	71.7	70.3	71.7	70.3
	청주	FM	78	76.8	78.1	80	79	81	78.6	79.8	80.2	80.9	80.7	80.9
BBS 불교 (7개사)	서울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춘천	FM	61.3	64.1	64.1	61.3	64.1	64.1	61.1	64.1	64.1	64.1	64.1	64.1
	부산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울산	FM	—	—	—	—	—	—	64.1	64.1	64.1	64.1	64.1	64.1
	대구	FM	63.7	62.4	62.6	64.7	66.8	66.5	66.5	61.2	66.2	64.8	66.5	64.7
	광주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청주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10) BBS 불교방송 울산 FM은 2008년 6월 30일 개국하였으나, 2009년 7월 이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BC 평화 (5개사)	서울	FM	70.1	73	70.1	70.2	70.1	70.2	70.1	70.1	70.2	70.1	70.2	70.1
	부산	FM	72.5	70.1	72.5	72.8	72.5	72.8	72.5	72.5	72.8	72.5	72.5	72.8
	광주	FM	60.2	60.3	60.6	60.1	62.2	61.4	61.3	60.8	60.1	60.2	60.7	60
	대구	FM	79.3	79.4	79.6	79.3	79.6	79.3	74.9	75.2	75	74.9	75.3	74.9
	대전	FM	69.3	69.6	69.3	69	69	69	69.3	69.3	69.3	69.3	69.3	69.3
극동 (9개사)	서울	AM	100	100	100	91	100	91	100	100	100	100	100	100
		표준 FM	100	100	100	91	100	91	100	100	100	100	100	100
	영동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창원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울산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산	FM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목포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A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포항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전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전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원음 (4개사)	서울	FM	66.5	66.6	70.5	69.8	67.6	67.1	68	66.4	67.2	68.4	70.3	70
	부산	FM	66.5	66.6	70.5	69.8	67.6	67.1	68	66.4	67.2	68.4	70.3	70
	전북	FM	66.5	66.6	70.5	69.8	67.6	67.1	68	66.4	67.2	68.4	70.3	70.7
	광주	FM	66.5	66.6	70.5	69.8	67.6	67.1	68	66.4	67.2	68.4	70.3	70
TBS 서울교통		FM	92.2	91.4	91.8	91.8	91.1	90.7	90.9	90.3	90	90	90	90
TBN 교통 (7개사)	인천	FM	90.7	90.3	90.3	89	92	91.2	92.1	91.9	92.1	92.3	92.8	93.3
	강원	FM	99.1	99.1	91.4	91.3	91	91.1	99.1	99.1	91.4	90.2	91.3	90.7
	부산	FM	93.9	93.7	93.7	93.6	93.5	93.4	93.4	93.5	93.4	93.5	93.6	93.5
	대구	FM	97.5	97.3	97.3	97.2	97.3	97.2	97.3	97.3	97.2	97.3	97.3	97.2
	광주	FM	95	95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전주	FM	95	95	95	95	95	95	95	95	95	90	90	90
	대전	FM	95.5	95	94.7	94.9	94.8	94.9	94.8	94.6	94.7	94.5	94.3	94.4
국악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YTN라디오		FM	80	82.4	82.4	82.9	81	77.3	77.7	76	77.3	76.5	77	82.5
아리랑영어	제주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관악소출력 FM방송국	서울	FM	—	—	—	—	—	—	98.1	97.8	98.5	96.7	96.7	96.7
마포소출력 FM방송국	서울	FM	—	—	—	—	—	—	95.3	96.1	95.8	63.4	66.3	61.8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당소출력 공동체라디오 FM방송국	분당	FM	-	-	-	-	-	-	96.5	97.1	96.6	77.7	77.7	84.6
광주소출력 공동체라디오 FM방송국	광주	FM	-	-	-	-	-	-	70.6	67.6	71	71	69	69
공주소출력 공동체라디오 FM방송국	공주	FM	-	-	-	-	-	-	75.9	75.5	75.2	76.1	75.5	81.4
성서소출력 공동체라디오 FM방송국	대구	FM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영주소출력 공동체라디오 FM방송국	영주	FM	-	-	-	-	-	-	95	95	95	95	95	95

2)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과 시행령 및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에 따르면 지역 민영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1차 민영방송인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의 경우 매월 69%이내, 2차 민영방송인 라디오인천,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경기방송은 매월 71%이내, 3차 민영방송인 강원민방, 제주방송은 매월 77%이내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된다.

(1) 지역민영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9개 지역민방 텔레비전 모두 해당 월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민방인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은 의무편성비율인 69%에 매우 근접한 비율을 유지하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월별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2차 지역민방인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역시 법정 의무편성비율인 71%에 매우 근접한 비율을 유지하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우 작은 변동폭을 보이며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3차 민방인 강원민방과 제주방송도 77%이내라는 의무편성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의 77%에 근접한 비율을 유지하며, 월별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표 12> 지역민방 TV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민방	KNN	68.3	68.8	69	67.5	68.1	65.5	66.2	68.7	68.5	68.7	66.2	69
	대구방송	68.9	69	69	68	68.8	68.4	68.5	68.3	68.7	68.7	68.9	68.9
	광주방송	68.1	67.1	68.9	68.2	68.8	67	67.7	67.9	68.5	68.3	67.3	69
	대전방송	68.9	69	69	68.5	68.8	68.9	68.4	69	68.9	69	68.3	68.9
2차 민방	전주방송	70.1	70.5	70.3	69.3	70.6	70.5	70.4	69.7	70.3	70.6	69.8	70.4
	청주방송	70.6	70.1	70.6	70.6	70.4	70.3	69.8	70.8	70	71	69.8	70.8
	울산방송	70.8	70.8	70.6	70.4	70.7	70.5	70.5	70.6	70.7	70.6	70.8	70.9
3차 민방	강원민방	77	76.9	76.9	75.2	77	76.9	74.5	76.9	75.6	77	76	76.6
	제주방송	77	76.7	76.5	75	76.8	72.8	75.2	75	74.7	76	74.4	75.9

(2) 지역민영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민방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역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의무편성비율은 1차 지역민방의 경우 69%이내, 2차 지역민방은 71%이내, 3차 지역민방은 77% 이내이다.

조사결과 모든 지역민방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들이 해당 법정 규정비율에서 1~2% 차이를 두며 매월 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표 13> 지역민방 라디오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민방	KNN	66.7	66.7	66.7	65.6	65.5	66.7	66.7	66.7	66.4	65	66.5	66.7
	대구방송	66.7	66.7	66.7	65.6	67.6	67.5	67.9	66.9	67.9	69	66.7	66.7
	광주방송	66.8	66.8	66.8	67	66.8	66.9	67	67.9	67	67	69	67
	대전방송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차 민방	라디오인천	0	0	0	0	0	0	0	0	0	0	0	0
	전주방송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청주방송	70.7	70.4	70.7	70.7	70.7	70.7	70.7	70.7	70.7	70.7	70.7	70.7
	울산방송	70.8	70.8	70.8	70.7	70.8	70.7	70.8	70.8	70.7	70.8	70.7	70.8
	경기방송	0	0	0	0	0	0	0	0	0	0	0	0
3차 민방	강원민방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제주방송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보다 구체적으로,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은 매월 69%이내의 의무편성비율에 근사한 65~68%의 선에서 편성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텔레비전에서의 해당 편성비율과 비교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더 낮았다.

2차 민방에 속하는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은 의무편성비율인 71%에 더 근접한 편성비율을 연간 유지하고 있다. 라디오 인천과 경기방송의 경우는 다른 지역민방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들과 달리,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거의 100%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0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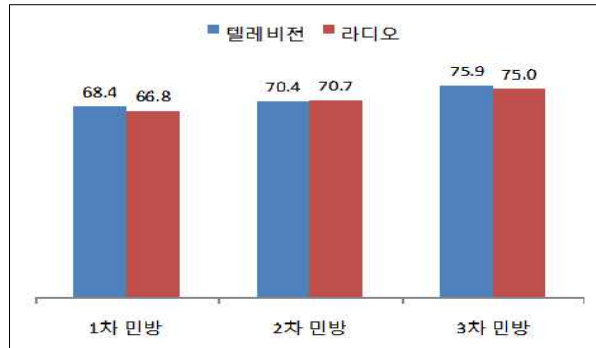
3차 민방에 속하는 강원민방과 제주방송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을 매월 75%씩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인 77% 이내를 준수하였다.

(3) 지역민방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편성 비교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해당 편성내용이 없는 라디오 인천과 경기방송을 제외하면,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유사한 비율로 자체제작물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지역민방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은 70.7%이며, 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약 70%정도이다.

[그림 24]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3)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과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는 방송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전문 방송인 EBS는 매분기 70% 이상의 편성비율을 유지해야하며, EBS 외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매분기 80% 이상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분석의 대상이 되는 4개 지상파 사업자 및 EBS, 10개 지역민방 모두 해당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의무편성비율인 70%를 넘긴 72~76%의 범위 내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EBS와, 8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OBS경인TV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의무기준인 80%를 훨씬 상회하는 90%이상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① 지상파 3사 및 EBS 텔레비전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상파 3사의 경우, 의무비율인 80%를 상회하는 96% 이상의 비율로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방송사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KBS나 MBC에 비해 SBS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1~2%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표 14> 지상파 3사와 EBS TV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96.6	96.7	96.9	97.1
	2TV	96.4	96.9	97	98.6
MBC		96	96.6	96.4	96.8
SBS		97.9	98.1	98.5	98.3
EBS		72.1	72.7	72	76

② 지역민영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SBS를 제외한 10개 지역민영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자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대부분 90% 이상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자체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BS경인 TV만이 80~84% 선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지역민방 TV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BS경인TV	83.4	83	81.8	80.9
KNN	96.6	96.9	96.9	97
울산방송	94.5	96.2	96.7	97
대구방송	94.1	96.1	97	97.2
광주방송	94.8	95.2	95.7	96.1
전주방송	93.9	94.1	95.4	95
대전방송	94.3	96.3	96.9	95.8
청주방송	96.7	97.3	98.4	97.6
강원민방	98	98.1	98.4	98.4
제주방송	97.9	98.1	98.5	98.3

(2) 지역 KBS, MBC 텔레비전 방송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① KBS 지역방송국

KBS의 모든 지역방송국(KBS 1TV, KBS 2TV)들은 2009년도 매분기 거의 동일한 비율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편성비율인 80%를 훨씬 웃도는 96.4~98.6%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KBS 1TV의 18개 지역방송국들은 96.6~97.1%의 비율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KBS 2TV의 경우 12개 지역방송국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96.4~98.6%의 비율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표 16> KBS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KBS 지역방송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18개사)	부산	96.6	96.6	96.9	97.1
	울산	96.6	96.7	96.9	97.1
	창원	96.6	96.7	96.9	97.1
	진주	96.6	96.7	96.9	97.1
	대구	96.6	96.7	96.9	97.1
	안동	96.6	96.7	96.9	97.1
	포항	96.6	96.7	96.9	97.1
	광주	96.6	96.7	96.9	97.1
	목포	96.6	96.7	96.9	97.1
	순천	96.6	96.7	96.9	97.1
	전주	96.6	96.7	96.9	97.3
	대전	96.6	96.7	96.9	97.2
	청주	96.6	96.7	96.9	97.1
	충주	96.6	96.7	96.9	97.1
	춘천	96.6	96.7	96.9	97.1
	강릉	96.6	96.7	96.9	97.1
	원주	96.6	96.7	96.9	97.1
	제주	96.6	96.7	97	97.3
KBS 1TV (12개사)	부산	96.4	96.9	97	98.6
	울산	96.4	96.9	97	98.6
	창원	96.4	96.9	97	98.6
	진주	—	—	97	98.6
	대구	96.4	96.9	97	98.6
	광주	96.4	96.9	97	98.7
	전주	96.4	96.9	97	98.6
	대전	96.4	96.9	97	98.6
	청주	96.4	96.9	97	98.6
	춘천	96.4	96.9	97	98.6
	강릉	96.4	96.9	97	98.6
	제주	96.4	96.9	97	98.6

② MBC 지방계열사

분기별 편성자료의 분석 결과, KBS와 마찬가지로 MBC의 모든 지방계열사들도 매분기 비슷한 비율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다. 19개 지방계열사 가운데 대구, 춘천, 삼척 등 일부 방송사가 특정 분기에 다른 계열사와 다소 차이나는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사분기에 비해 4사분기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은 편성 형태를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17> MBC 지방계열사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MBC(19개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산	96	96.6	96.4	96.8
마산	96	96.6	96.4	96.8
울산	96	96.6	96.4	96.8
진주	96	96.6	96.4	96.8
대구	94.3	94.9	93.9	94.9
안동	96	96.6	96.4	96.8
포항	96	96.6	96.4	96.8
광주	96	96.6	96.4	96.8
목포	96	96.6	96.4	96.8
여수	96	96.6	96.4	97.8
전주	96	96.6	96.4	96.8
대전	96	96.6	96.4	97
청주	96	96.6	96.4	96.8
충주	96	96.6	96.4	96.8
춘천	96.8	97.1	96.9	97.2
강릉	96	96.6	96.4	96.8
원주	96	96.6	96.4	96.8
삼척	97	96.2	95.9	96.5
제주	96	96.6	98.5	96.8

③ 본사와 지역방송국 및 지방계열사의 편성 비교

한편, 방송사를 막론하고 각 지역방송국 및 지방계열사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각 방송사의 서울본사의 편성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사분기 KBS 1TV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96.6%이며, 지역방송국의 1TV 역시

96.4~96.6% 내에서 편성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분기마다 MBC와 KBS의 전국권, 지역권 방송사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본사의 편성을 대부분 따르는 편성방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3) 주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2009년도 매분기별로 KBS의 7개 채널(1R, 2R, 3R, 1FM, 2FM, 한민족방송, 국제방송)과 MBC의 2개 채널(AM, FM), SBS의 2개 채널(AM, FM), EBS FM,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경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강원, 제주)의 FM방송과 그 외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모두 100%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표와 그래프는 생략한다.

(4) 지역 KBS, MBC 라디오 방송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KBS 18개 지역의 42개 지역방송국 라디오 채널 및 MBC 19개 지방계열사의 AM과 FM을 포함하는 38개 채널 모두 2009년도 매분기별로 100%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하기로 한다.

(5)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극동방송채널(서울 2개 채널, 제주 1개 채널), 아리랑 영어(제주), TBS FM 1개 채널에서 일부분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이 다섯 채널 역시 분기에 따라 90% 이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한다.

4)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 및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방송사들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방송해야 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에 적용되는 의무편성비율은 KBS 1TV의 경우 매분기 24% 이상, KBS 2TV는 매분기 40% 이상, MBC 및 SBS는 매분기 35% 이상이다. 교육 전문 방송인 EBS의 경우 매분기 2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할애해야 하며, SBS를 제외한 지역민영 방송사는 매분기 4%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매분기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21%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시간대별로는, KBS, MBC, SBS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매분기 총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①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사별로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와 EBS, 지역민방을 포함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해당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별로 해당 편성비율을 전체 및 주시청시간대에 모두 엄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TV)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25.7	27.1	26.3	27.5
KBS 2TV	44.4	45.6	45.9	48.4
MBC	42.2	42.8	43.8	47.2
SBS	48.2	50.4	48.2	47.9
EBS	22.8	20.9	22.4	20.1

* 분기별로 KBS 1TV는 24% 이상, KBS 2TV는 40% 이상, MBC 및 SBS는 35% 이상, EBS는 매분기 20% 이상,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매분기 4%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

<표 19>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TV)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14.9	13.2	12.6	14.2
KBS 2TV	50.2	55.5	54.1	59
MBC	36.8	36.5	32.2	40.3
SBS	56.3	57.3	54.6	54.1

* 분기별로 KBS, MBC, SBS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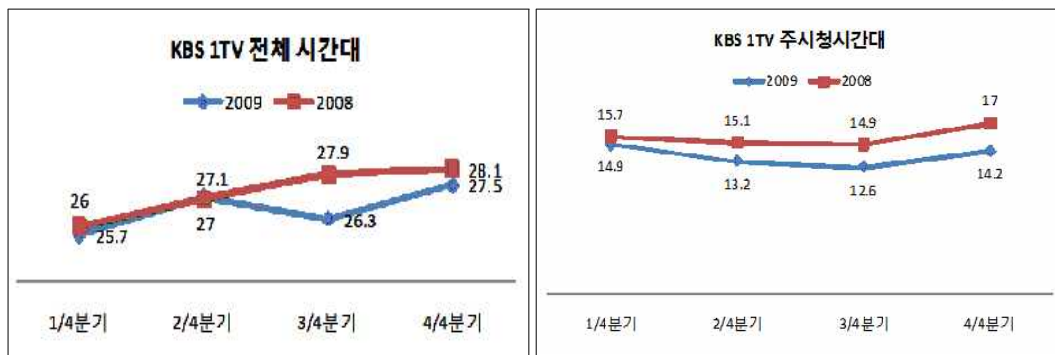
가) K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KBS 1TV 전체시간대의 경우, 의무 편성비율인 24%를 약간 넘는 선에서 조금씩 외주 제작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8년과 비교해보면, 2008, 2009년 모두 1사분기보다 4사분기로 갈수록 외주 비율이 조금씩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전체시간대에 비해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 4사분기에 비해 2, 3사분기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은 2008년과 2009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2008년과 비교해볼 때, 전체적으로 KBS 1TV의 주시청시간대 및 전체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분기별 편성비율은 2009년에 다소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KBS 1TV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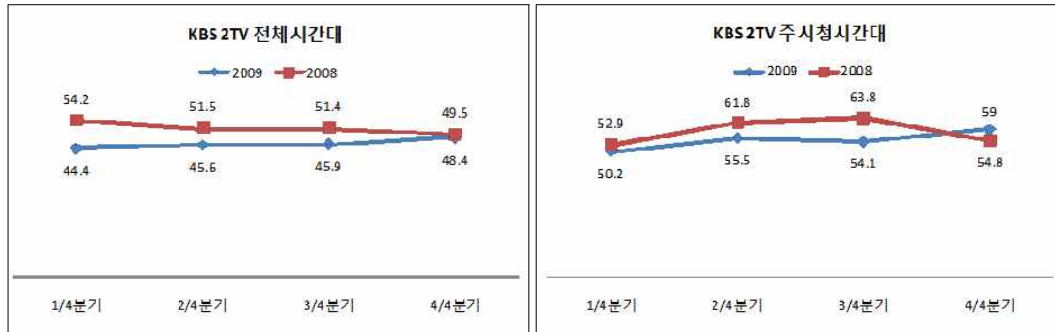
(단위: %)



KBS 2TV는 전체시간대의 경우, 2009년 1사분기 약 44.4%의 편성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0%이상 낮아진 것이다. 2008년도와는 반대로 이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에도 2009년 1사분기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59%에 이르지만,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KBS 1TV의 경우와는 달리, KBS 2TV는 전체시간대에 비해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KBS 2TV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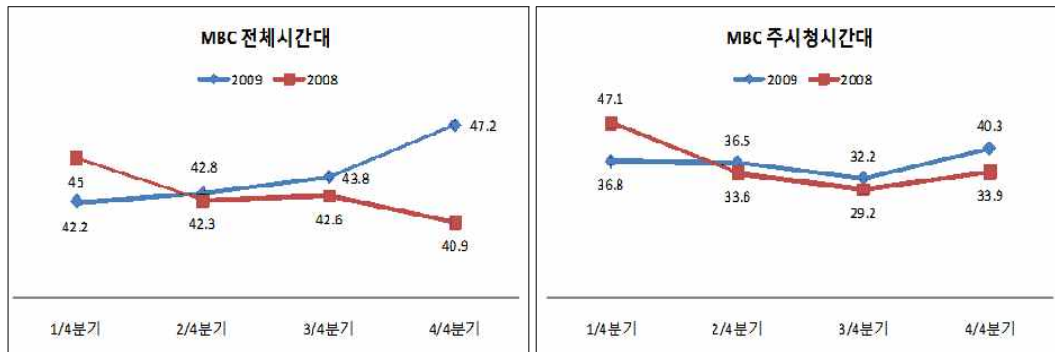


나) MBC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MBC에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체시간대 대비 1사분기에는 42.2%의 비율을 보 이다가 점차 증가하여 4사분기에는 47%선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1사분기에는 약 37%를 기록하다가 3사분기에 32.2%로 내려갔다가 4사분기에 이르러 8%정도 상승한 40.3%의 편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징적으로, KBS 2TV와는 반대로 주시청시간대에 비해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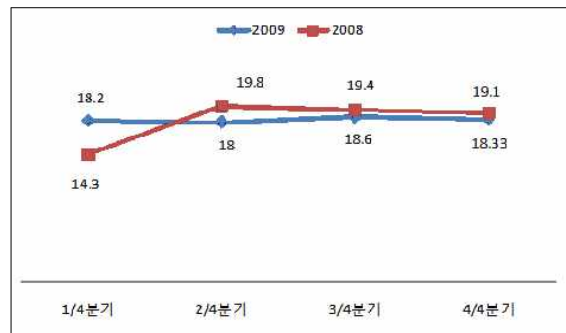
[그림 27] MBC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2009년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MBC에서 방송한 특수관계자에 의한 외주제작 프 로그램 편성비율 평균은 편성 기준인 21%보다 낮은 약 18.3%이다. 분기별 추이를 보면 1사분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1% 안팎으로 매우 적은 차이지만 외주제작물의 편 성비율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 MBC의 분기별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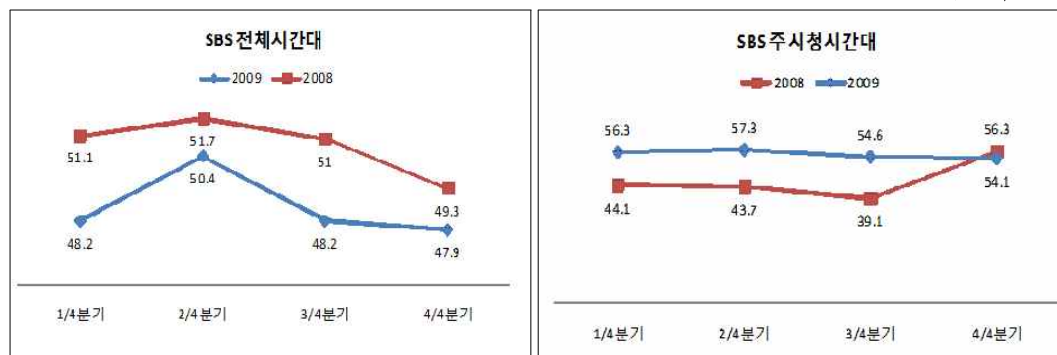


다) S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SBS는 전체시간대의 경우 분기별 추이로 볼 때 외주제작 비율을 약 48~50%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이는 보이지 않는다.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타사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인 54~57%의 범위 내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높아진 수치이다. S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은 동일한 의무편성 비율이 적용되는 MBC에 비해서도 약 10~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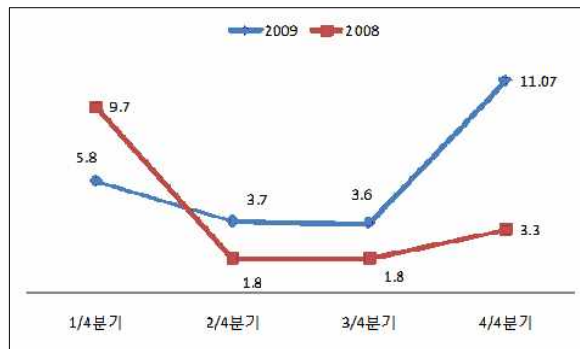
[그림 29] SBS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한편,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2009년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평균 약 6.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8.3%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보이는 MBC의 3분의 1정도에 해당된다. 특히, 2008년도와는 다르게 4사분기 들어 편성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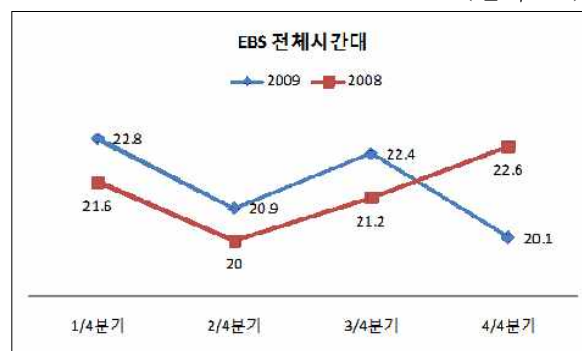
[그림 30] SBS의 분기별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라) E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EBS의 경우, 전체시간대에만 20% 이상이라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에 의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해당사항이 없다. 2009년에는 4사분기 내내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비율인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특이한 편성행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 EBS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마)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SBS를 제외한 10개 지역민방 역시 전체시간대에만 4% 이상이라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따라야 하며, 청주, 강원 및 경인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민방이 분기별로 10% 이내에서 외주제작물을 방송하고 있다. 이중 OBS경인TV는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 매우 높은 외주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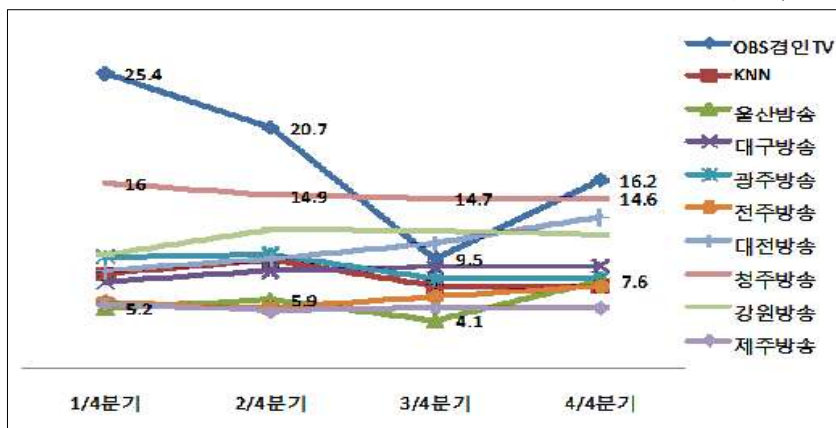
<표 20> 지역민방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TV)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BS경인TV	25.4	20.7	9.5	16.2
KNN	8.1	9.3	7.1	7.1
울산방송	5.2	5.9	4.1	7.6
대구방송	7.4	8.4	8.7	8.8
광주방송	9.6	9.8	7.7	7.7
전주방송	5.7	5.2	6.2	7.1
대전방송	8.4	9.4	10.8	13
청주방송	16	14.9	14.7	14.6
강원방송	9.8	11.9	11.8	11.5
제주방송	5.5	4.9	5.2	5.2

[그림 32] 지역민방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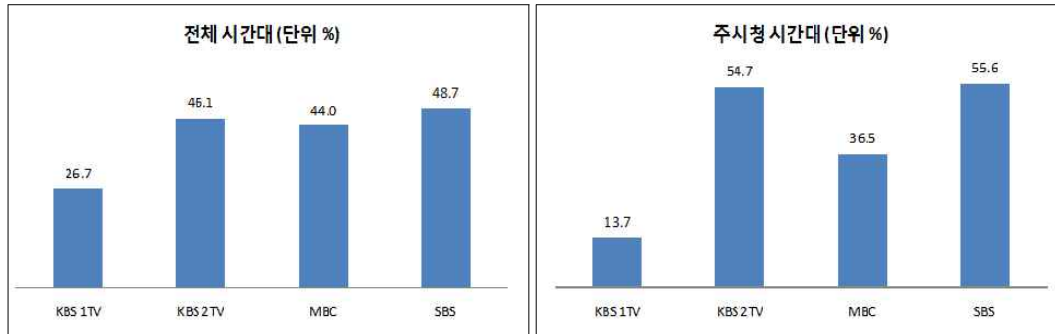


② 방송사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교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기준이(10% 이상) 전체시간대의 의무편성비율 기준(24~40% 이상)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KBS 2TV와 SBS의 경우 주시청시간대 외주 비율이 전체시간대보다 7~8% 가량 높은 55% 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MBC 역시 주시청시간대 의무 편성비율 기준인 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외주제작물을 편성하고 있다.

[그림 33] 지상파 3사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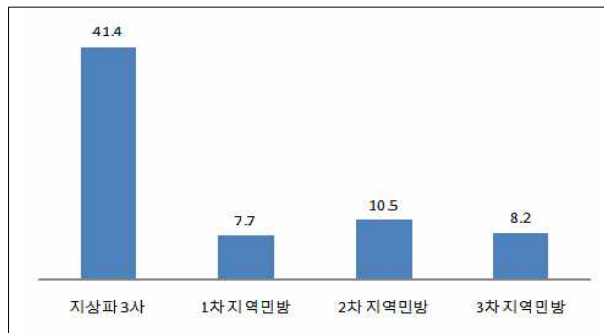
(단위: %)



주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1, 2, 3차 지역민방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비교해보면, 외주제작물 편성비율 기준 자체도 낮은 지역민방의 외주제작비율이 중앙네트워크 3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와 교양에 중점을 두는 KBS 1TV를 제외하면 지상파 3사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균은 46%까지 높아지는 반면, 지역민방의 경우 허가 차수별로 7.7, 10.5, 8.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34] 지상파 3사와 지역민방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물 편성비율 비교

(단위: %)



(2) 지역 KBS, MBC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① KBS 지역방송국

KBS 지역방송국간에는 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기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KBS 1TV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18개 지역

방송국에서 연중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KBS 2TV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12개 지역방송국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표 21> KBS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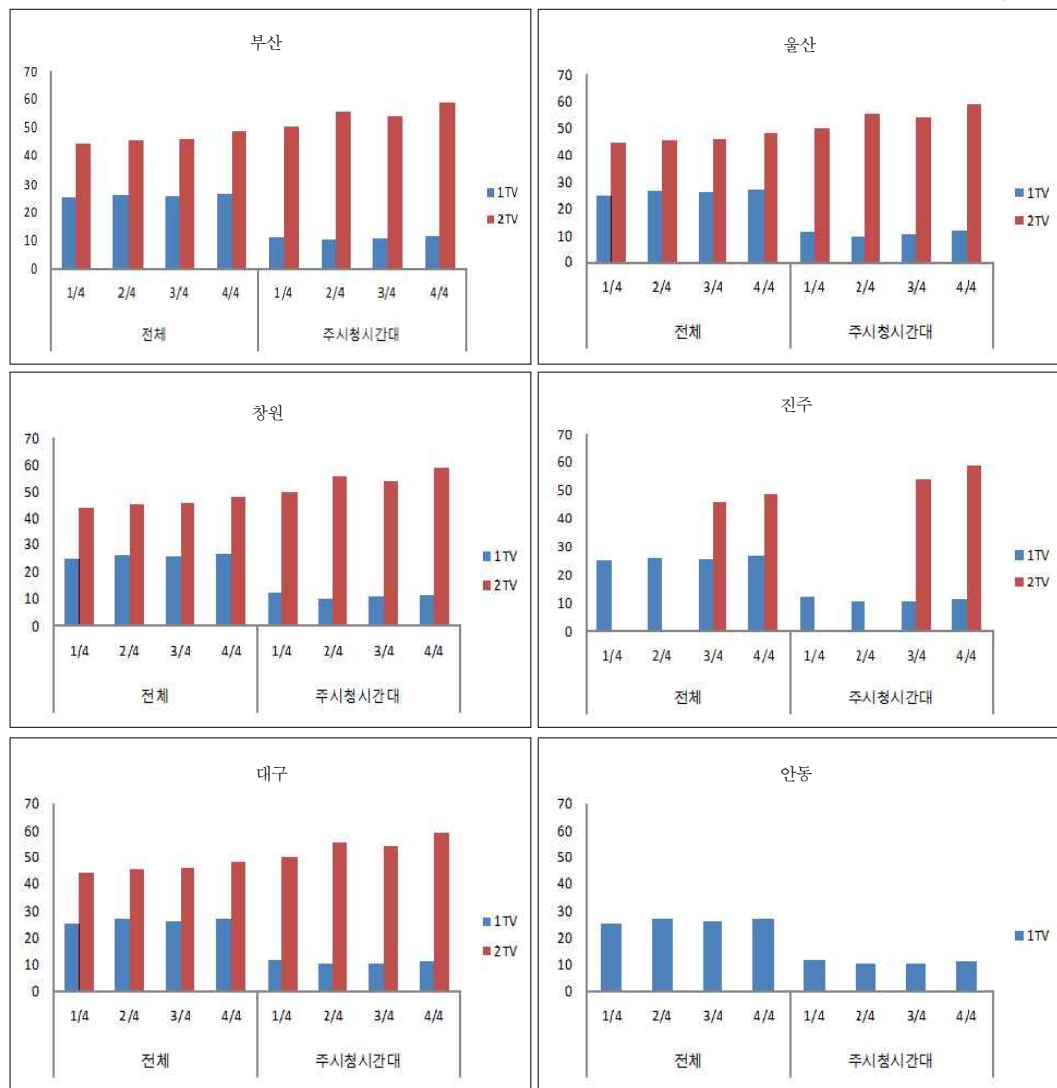
(단위: %)

KBS 지역방송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TV (18개 방송국)	강릉	25.8	27.1	26.3	27.6
	광주	24.8	26.5	25.6	26.8
	대구	25.4	26.9	26	27.2
	대전	25.1	26.7	25.6	26.9
	목포	24.8	26.5	25.6	26.8
	부산	24.9	26	25.3	26.7
	순천	24.8	26.5	25.6	26.8
	안동	25.4	26.9	26	27.2
	울산	25.1	26.7	26	27.2
	원주	25.8	27.1	26.3	27.6
	전주	25.5	26.9	26	27.3
	제주	25.2	26.7	26.1	27.2
	진주	25	26.2	25.4	26.8
	창원	25	26.2	25.4	26.8
	청주	25.1	27	26.2	27.4
	춘천	25.8	27.1	26.3	27.5
	충주	25.1	27	26.2	27.4
	포항	25.4	26.9	26	27.2
2TV (12개 방송국)	강릉	44.4	45.6	45.9	48.4
	광주	44.4	45.6	45.6	48.2
	대구	44.4	45.6	45.9	48.4
	대전	44.4	45.6	45.9	48.4
	부산	44.4	45.6	45.9	48.3
	울산	44.4	45.6	45.9	48.4
	전주	44.4	45.6	45.9	48.4
	제주	44.4	45.6	45.9	48.4
	진주	—	—	45.9	48.4
	창원	44.3	45.6	45.9	48.4
	청주	44.4	45.6	45.9	48.4
	춘천	44.4	45.6	45.9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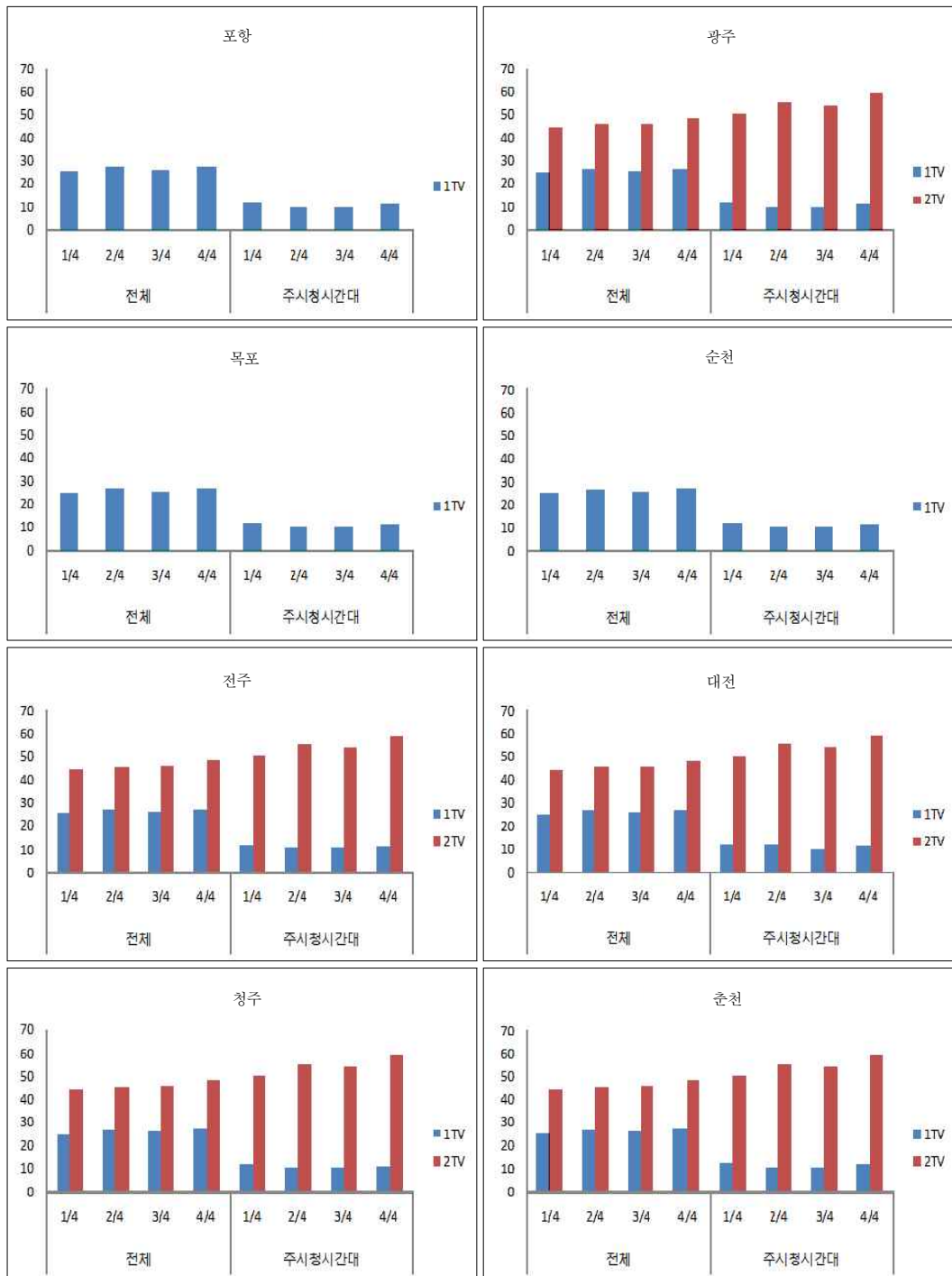
KBS 본사 1TV의 시간대별 편성 형태와 마찬가지로, 지역방송국의 KBS 1TV에서도 전체시간대에 비해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KBS 2TV 지역방송국에서는, 역시 본사 KBS 2TV처럼, 주시청시간대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훨씬 많이 방송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KBS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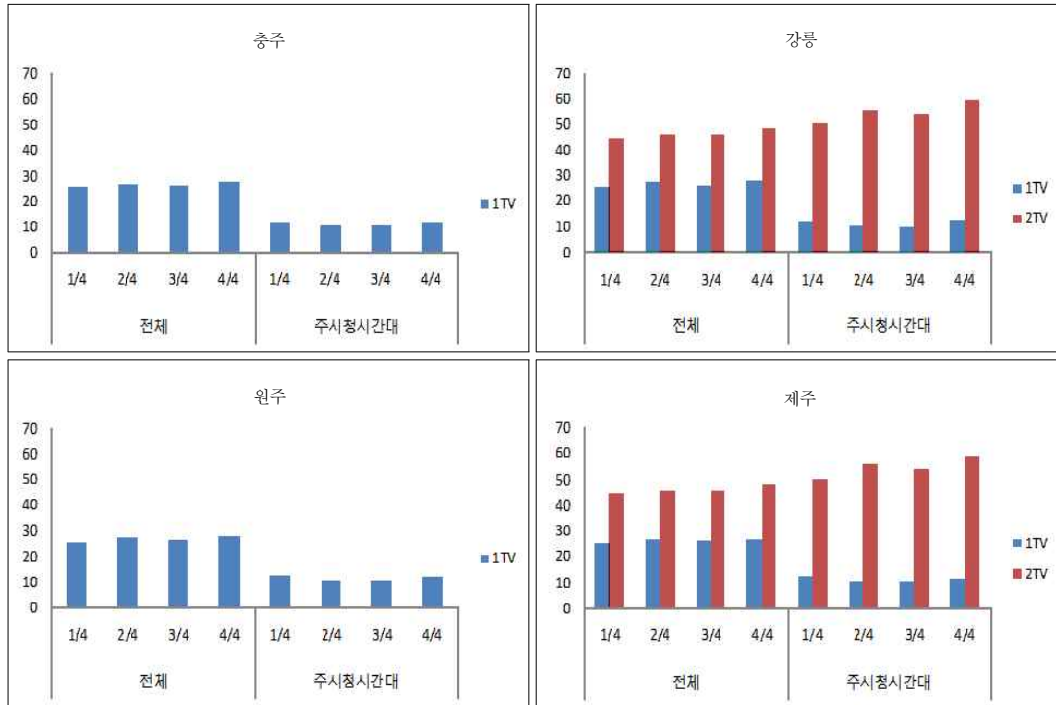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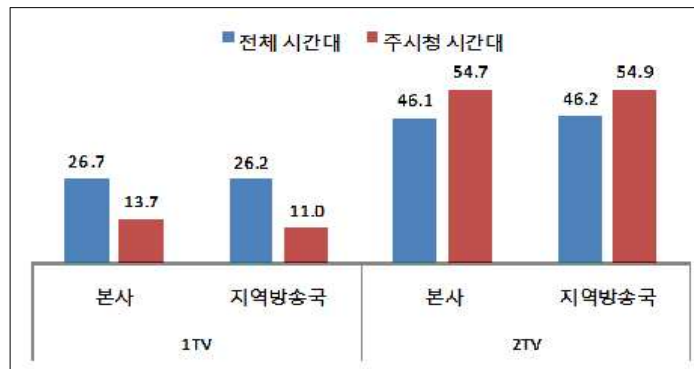


(단위: %)



KBS 본사와 KBS 지역방송국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분포나 수치가 서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KBS 본사에서 편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6] KBS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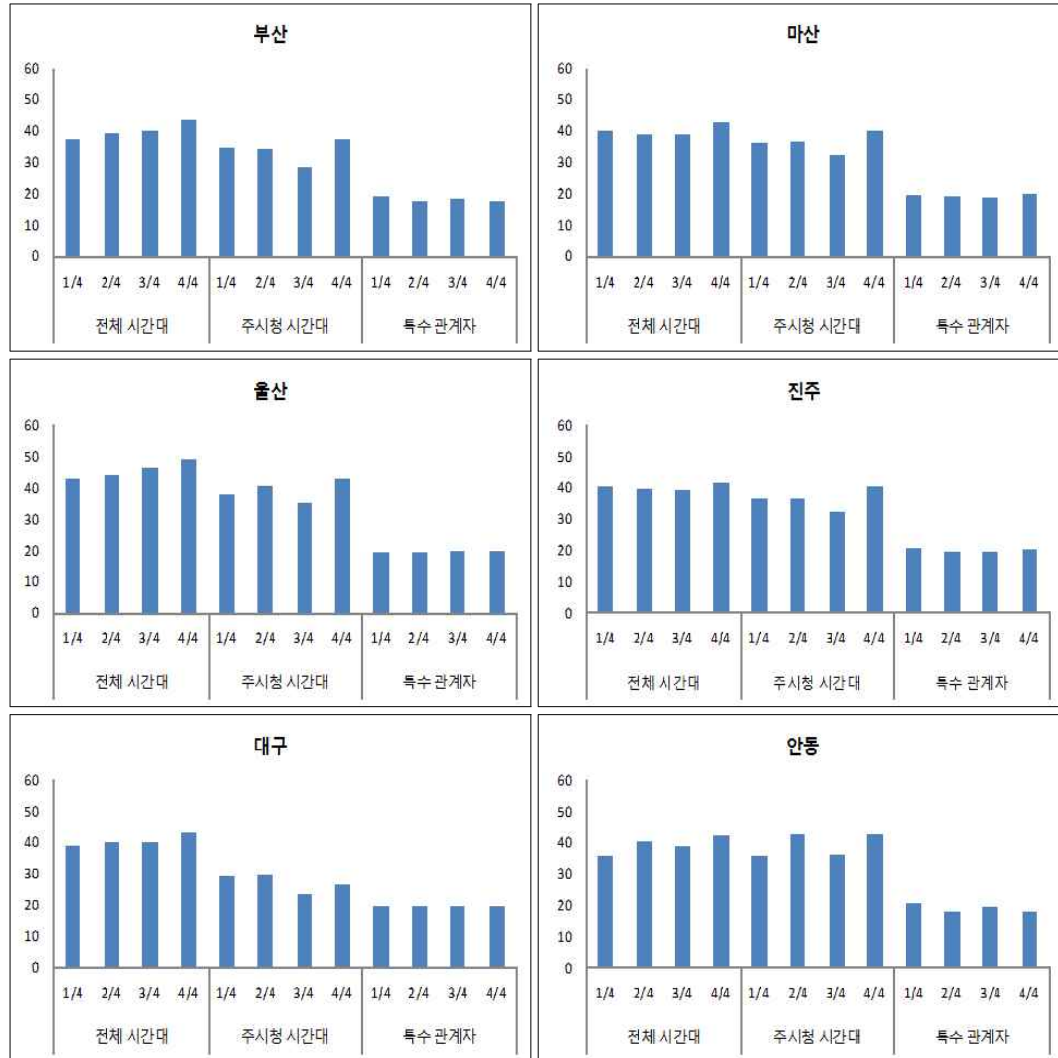


② MBC 지방계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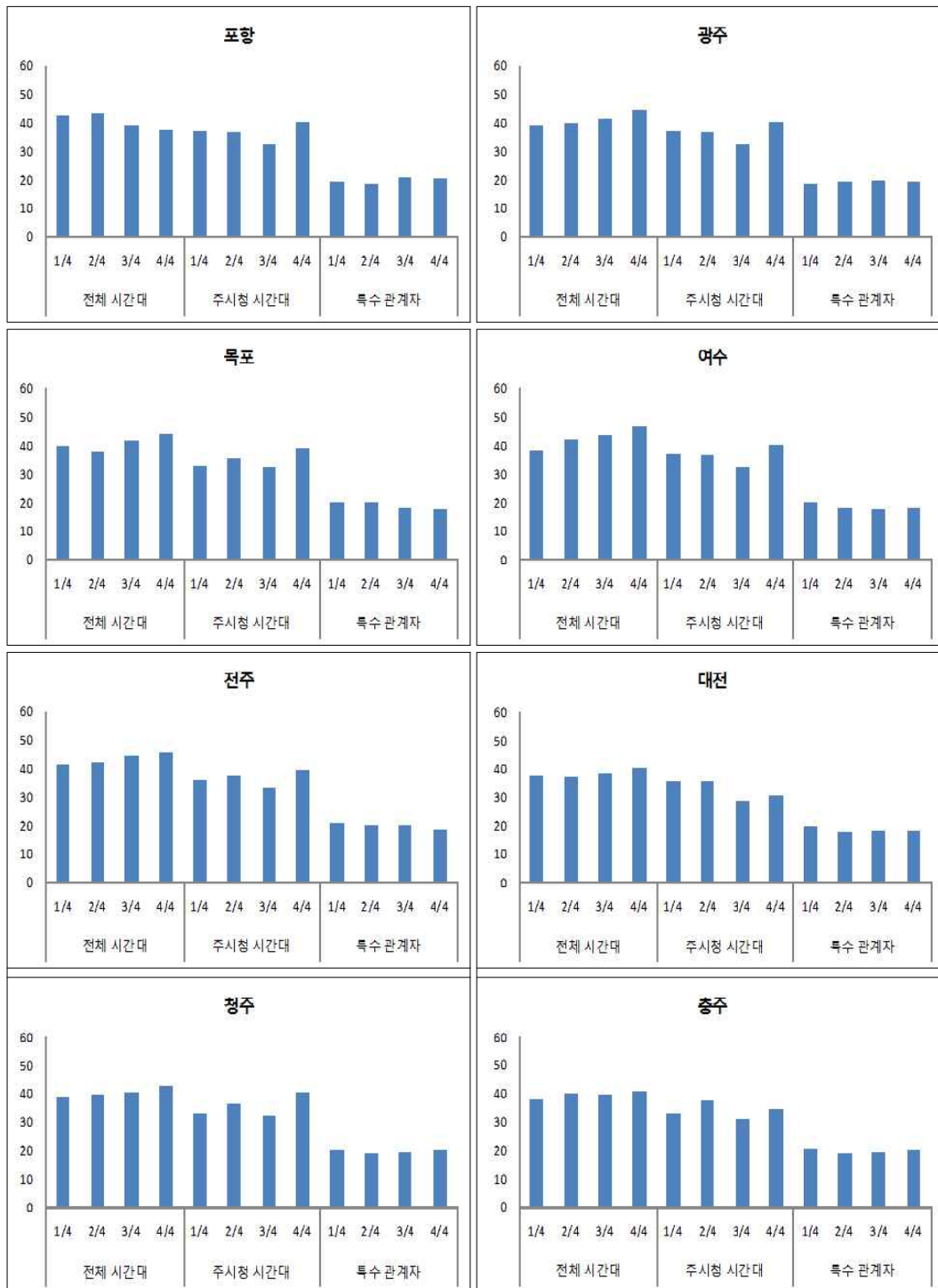
이 부분에서는 MBC 지방계열사들의 전체시간대,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특수제작자에 의한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분기별로 살펴보았다. 몇몇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방송사간의 분기별 외주제작 편성비율 분포 및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MBC 지방계열사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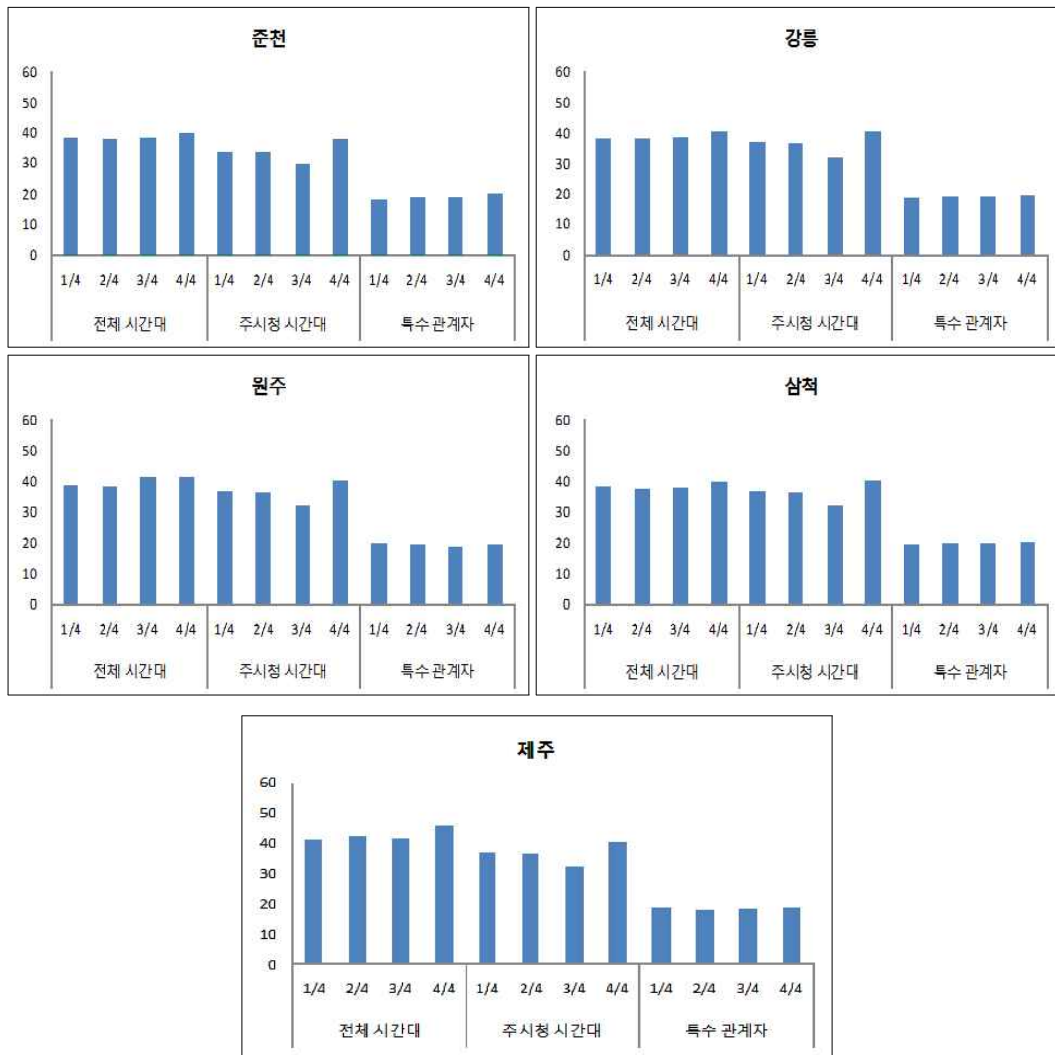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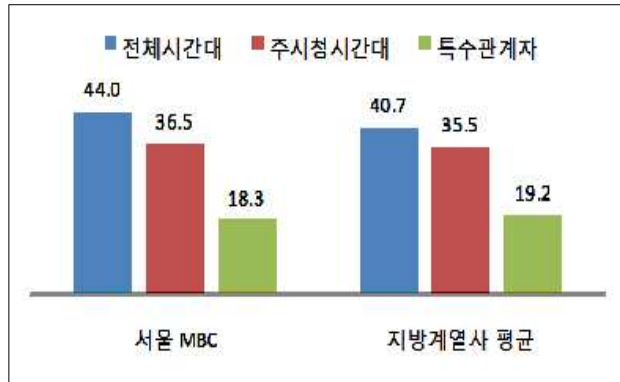
(단위: %)



동시에, 각 계열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대체로 전국권 MBC의 편성비율(전체시간대 44%, 주시청시간대 37%, 특수관계자 18.3%)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MBC 지방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시청시간대에 비해 전체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시간대의 경우 서울 MBC가 지방계열사보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시청시간대와 특수관계자에 의한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1% 정도의 차이로 서울 MBC에 비해 지방계열사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38]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의 연평균 외주제작물 편성비율 비교
(단위: %)



5)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과 시행령 및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매분기 방송하는 외국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에서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여 편성해야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① 수입 영화

가) 지상파 3사 및 EBS 텔레비전 방송의 수입 영화 편성현황

2009년 중 지상파 3사와 EBS의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된 영화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특정한 추이나 일관된 수치가 발견되지 않으나, 방송사별, 매분기별로 수입 영화의 편성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특히 KBS 1TV와 MBC, EBS는 일부 분기에서 영화 전체 가운데 수입 영화의 방송비율이 7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11) 현행 편성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의무편성비율은 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과정에서 국내 제작 영화가 주시침시간대에 편성될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 즉 150%를 인정하고 있다.

<표 22>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43	61.8	72.5	25.2
KBS 2TV	30.1	0	50.7	41.4
MBC	54.3	58.6	67.7	56.5
SBS	40.2	45.8	26.1	47.3
EBS	71.9	69.9	71.9	73.4

분기별로 방송된 수입 영화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4사분기 KBS 1TV를 제외하고는 지상파 3사 및 EBS 모두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

<표 23> 지상파 3사와 EBS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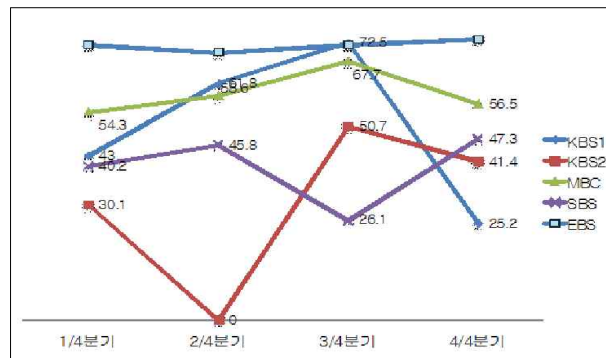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48.8 (미국)	55.1 (미국)	47 (미국)	26.4 (폴란드)
KBS 2TV	50 (미국)	0	36.1 (미국)	53.5 (미국)
MBC	49.6 (미국)	55.3 (미국)	35.1 (미국)	42 (미국)
SBS	54.2 (미국)	50 (미국)	53.5 (미국)	50 (미국)
EBS	47.6 (미국)	38.5 (미국)	48.7 (미국)	55.1 (미국)

지상파 3사 및 EBS 텔레비전 방송의 연평균 수입 영화 편성비율을 비교해보면, KBS 1TV는 50.6%, KBS 2TV는 30.6%, MBC는 59.3%, SBS는 39.9%, EBS는 71.8%로, EBS > MBC > KBS 1TV > SBS > KBS 2TV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EBS를 제외한 4개 지상파 채널에서 모두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¹²⁾ 즉, 지상파 3사 및 EBS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2008년에 비해 수입 영화를 적게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기별로는 상대적으로 EBS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방송사별로 특정한 형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12) 2008년 주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의 연평균 수입 영화 편성비율은 KBS 1TV 71.1%, KBS 2TV는 59.2%, MBC는 60.2%, SBS는 66.2%, EBS는 70.3%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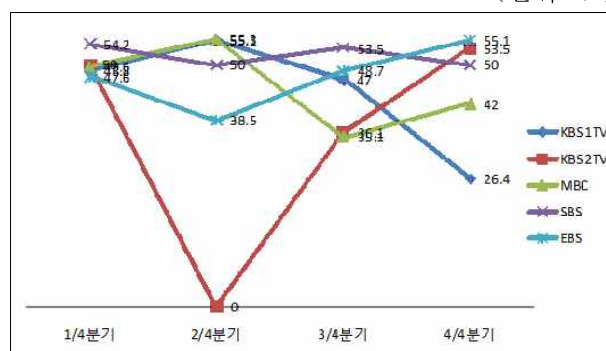
[그림 39] 지상파 3사와 EBS TV의 분기별 수입영화 편성추이
(단위: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60% 미만으로 편성해야 하나, 방송사별로 실제 편성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SBS는 각 분기별로 비교적 고르게 50~55% 수준에서 1개 국가 제작 영화를 편성하고 있으며, MBC와 KBS 2TV의 경우에는 3사분기의 편성비율이 다른 분기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1TV는 44.3%, KBS 2TV는 34.9%, MBC는 45.5%, SBS는 51.9%, EBS는 47.5%로 SBS가 비교적 1개 국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EBS의 경우 수입영화 편성 비율은 가장 높았으나, 1개 국가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0] 지상파 3사와 EBS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 편성추이
(단위: %)



나) 지역민영 텔레비전 방송의 수입영화 편성현황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인방송과 대구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민방 텔레비전의 수입영화 편성비율이 방송사간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민방들의 수입영화 편성비율이 2008년도에는 SBS의 분포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났던 반면, 2009년도에는 그와 같은 특성이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았다.

OBS경인TV의 경우,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 더욱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민방이나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수입영화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연평균 수입영화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OBS 경인TV의 경우 70%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9개 지역민영방송사는 30~40%대의 비율로 외국 영화를 편성하고 있었다.

한편, 수입된 영화의 제작 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민방 10개사 모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의무편성비율 기준인 60%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에서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기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외화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미국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그 외에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일부 방송국에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지역민방 TV의 수입영화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BS경인TV	87.5	72.4	75.1	61.3
KNN	37.8	50.4	26.1	50.3
울산방송	40.2	41.6	27.7	38
대구방송	37.5	50	26.1	37.9
광주방송	39.1	45.8	26.1	44.8
전주방송	37.5	50.4	28.1	39.2
대전방송	40.2	41.6	26.1	43.7
청주방송	34.1	41.6	26.1	47
강원민방	40.2	45.8	26.1	63.6
제주방송	40.2	45.8	26.1	47.3

<표 25> 지역민방 TV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강원민방	54.2 (미국)	50 (미국)	53.5 (미국)	47 (영국)
광주방송	54.2 (미국)	50 (미국)	53.5 (미국)	50 (미국)
대구방송	48.8 (미국)	50 (미국)	53.5 (미국)	54.2 (영국)
대전방송	54.2 (미국)	59.5 (미국)	53.5 (미국)	50 (미국)
울산방송	54.2 (미국)	59.5 (미국)	53.5 (미국)	45.8 (미국)
전주방송	48.8 (미국)	50 (미국)	53.5 (미국)	41.7 (영국)
제주방송	54.2 (미국)	50 (미국)	53.5 (미국)	50 (미국)
청주방송	40.5 (미국)	59.5 (미국)	53.5 (미국)	44.1 (미국)
KNN	40.5 (미국)	50 (미국)	53.5 (미국)	44.1 (미국)
OBS경인TV	59.6 (미국)	51.3 (미국)	57.7 (미국)	57.8 (미국)

② 수입 애니메이션

가) 지상파 3사와 EBS 텔레비전 방송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연평균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KBS 1TV는 10.5%, KBS 2TV는 6.6%, EBS의 경우 73.2%이며, 교육 전문 방송인 EBS를 제외한 3개 지상파 방송사 모두 법정 의무편성비율인 60%를 한참 밑도는 선에서 편성을 하거나, 또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MBC와 SBS는 2009년 내내 수입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KBS 1TV도 1사분기와 3사분기, KBS 2TV의 3사분기, 4사분기에도 외국수입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 중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은 EBS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BS의 경

우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교육 전문 채널의 특성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많으며, 그 가운데 수입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도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6> 분기별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0	11.6	0	30.5
KBS 2TV	13.1	13.1	0	0
MBC	0	0	0	0
SBS	0	0	0	0
EBS	75.8	76	72.8	68.3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모든 채널들이 규정 수준인 60%미만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 EBS의 경우 전반적인 수입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율은 다른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한 KBS 1TV, 2TV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EBS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에 있어서 단일 국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수입 애니메이션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7>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분기별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0	50(독일, 미국)	0	50(미국, 독일)
KBS 2TV	52.9(미국)	52.6(프랑스)	0	0
MBC	0	0	0	0
SBS	0	0	0	0
EBS	32.2(미국)	34.8(미국)	41.8(미국)	45(일본)

나) 지역민영 텔레비전 방송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텔레비전에서 2009년 중 방영된 수입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OBS 경인TV를 제외한 9개 지역민방이 0으로 보고되었으며, OBS 경인TV는 54.1%로, 모두 법정 의무편성비율인 60%를 넘지 않는다.

여기서, OBS 경인TV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 민영 방송사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이 0으로 나오는 것은, SBS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재송신하여 SBS와 유사한 편성을 보이는 지역민방들의 편성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2009년에 SBS에서 수입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28> 지역민방 TV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BS경인TV	65	56.4	58.3	36.8
KNN	0	0	0	0
울산방송	0	0	0	0
대구방송	0	0	0	0
광주방송	0	0	0	0
전주방송	0	0	0	0
대전방송	0	0	0	0
청주방송	0	0	0	0
강원민방	0	0	0	0
제주방송	0	0	0	0

지역 민방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는 OBS 경인TV의 경우, 앞서 <표 24>와 비교해볼 때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의 분포가 수입 영화 편성비율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OBS 경인 TV에서 연중 방송된 수입 애니메이션의 제작 국가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세 분기에 걸쳐 가장 비중이 큰 1개 국가로 일본이 보고되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9> OBS경인TV의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BS경인TV	56.9 (일본)	57.9 (일본)	56.3 (프랑스)	49.4 (일본)

* 나머지 9개 지역민방에서는 2009년 중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지 않았음

③ 수입 대중음악

주요 지상파 3사와 EBS, 그리고 OBS 경인TV를 포함하는 10개 지역민방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대중음악의 전체 편성비율이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수입 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역시 0이 되므로 별도의 표와 그림은 생략한다.

(2) 지역 KBS, MBC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① 수입 영화

가) KBS 지역방송국

KBS의 18개 지역방송국의 분기별 수입 영화 편성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소한 차이로 낮게 나타난 대구, 안동, 포항 방송국의 4사분기 편성을 제외하면, KBS 1TV의 경우 1사분기는 43%, 2사분기는 61.8%, 3사분기는 72.5%, 4사분기는 25.1%로 나타난다.

KBS 2TV의 경우 4사분기에 특이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한 대구 방송국과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광주 방송국을 제외하면, 1사분기는 30.1%, 2사분기는 0%, 3사분기는 50.7%, 4사분기는 41.4%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앙 네트워크와 지역방송국들 사이에 수차상 차이가 거의 없다.

<표 30> KBS 지역방송국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

(단위: %)

지역방송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1TV (18개사)	강릉	43	61.8	72.5	25.2
	광주	43	61.8	72.5	25.2
	대구	43	61.8	72.5	24.7
	대전	43	61.8	72.5	25.2
	목포	43	61.8	72.5	25.2
	부산	43	61.8	72.5	25.2
	순천	43	61.8	72.5	25.2
	안동	43	61.8	72.5	24.7
	울산	43	61.8	72.5	25.2
	원주	43	61.8	72.5	25.2
	전주	43	61.8	72.5	25.2
	제주	43	61.8	72.5	25.2
	진주	43	61.8	72.5	25.2
	창원	43	61.8	72.5	25.2
	청주	43	61.8	72.5	25.2
	춘천	43	61.8	72.5	25.2
	충주	43	61.8	72.5	25.2
	포항	43	61.8	72.5	24.7

지역방송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2TV (12개사)	강릉	30.1	0	50.7	41.4
	광주	30.1	0	50.7	42
	대구	30.1	0	50.7	23.1
	대전	30.1	0	50.7	41.4
	부산	30.1	0	50.7	41.4
	울산	30.1	0	50.7	41.4
	전주	30.1	0	50.7	41.4
	제주	30.1	0	50.7	41.4
	진주	—	—	50.7	41.4
	창원	30.1	0	50.7	41.4
	청주	30.1	0	50.7	41.4
	춘천	30.1	0	50.7	41.4

한편,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역시 일부 지역방송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KBS 중앙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KBS 1TV의 경우 서울 본사와 마찬가지로 1사분기는 48.8%(미국), 2사분기는 55.1%(미국), 3사분기는 47%(미국), 4사분기는 26.4%(폴란드)로 나타났으며, KBS 2TV는 1사분기는 50%(미국), 2사분기는 0%, 3사분기는 36.1%(미국), 4사분기는 53.5%(미국)로 나타났다.

앞서 다른 지역방송국들과 차이를 보였던 대구를 포함하여, 광주, 대전, 청주의 4사분기 KBS 2TV 편성비율만 각각 52.9%(미국), 52.2%(미국), 52.9%(미국), 52.9%(미국)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수입 영화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모두 50% 안팎의 비율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4사분기의 경우 이전 분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26.4%로 폴란드 영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MBC 지방계열사

MBC의 19개 지방계열사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은 분기별로 1사분기 54.3%, 2사분기 58.6%, 3사분기 67.7%, 4사분기 56.5%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본사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또한 중앙 네트워크와 차이가 없으며, 중앙 네트워크의 사례에서처럼, 19개 지방계열사 모두 매 분기별로 외화의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수입 애니메이션

가) KBS 지역방송국

KBS 지역방송국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모든 KBS 지역방송국이 동일한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비율은 KBS 중앙 네트워크의 분기별 편성비율과 차이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지역방송국의 KBS 1TV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중앙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1사분기 0%, 2사분기 11.6%, 3사분기 0%, 4사분기 30.5%로 나타났다. KBS 2TV의 경우 지역방송국 역시 1사분기 13.1%, 2사분기 13.1%, 3사분기 0%, 4사분기 0%로 중앙 네트워크의 분기별 편성비율과 차이가 없다.

지역방송국에서 방송한 수입 애니메이션들이 제작된 국가를 살펴보면 KBS 1TV의 경우 2사분기와 4사분기에 50%의 비율로 독일과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KBS 2TV는 1사분기 미국(52.9%), 2사분기 프랑스(52.6%)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중앙 네트워크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동일하다.

나) MBC 지방계열사

MBC의 19개 지방계열사에서는 중앙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2009년의 경우 수입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그 비율이 0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하기로 한다.

③ 수입 대중음악

앞서 보고한 것처럼, 주요 지상파 3사와 10개 지역민방 모두 수입 대중음악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며, KBS와 MBC의 계열사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대중음악을 방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하기로 한다.

6)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현황

(1) 방송사별 연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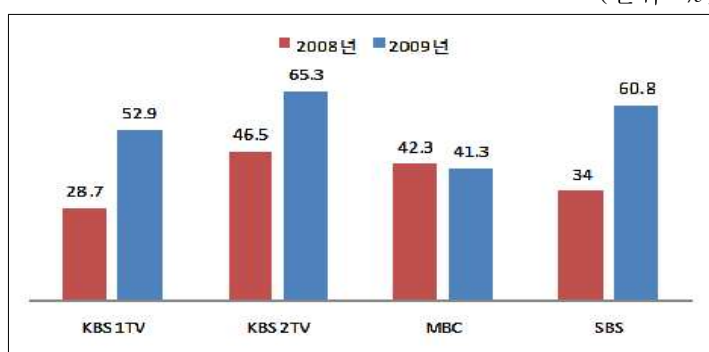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에 따르면 국내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 음악의 연간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영화의 경우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25% 이상이며, 애니메이션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4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단,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EBS의 경우 8% 이상, 종교방송의 경우 4% 이상의 법정비율이 적용된다. 대중음악의 경우 국내 제작 프로그램

이 전체 편성시간의 60% 이상 이어야 하며,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교육이나 종교 전문 편성 채널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편성고시 제3조).

① 지상파 3사의 비교

전체 영화 편성 시간 대비 국내 제작 영화의 연간 평균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순서대로 KBS 2TV(65.3%) > SBS(60.8%) > MBC(41.3%) > KBS 1TV(52.9%)의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1%정도 감소한 MBC를 제외하고는 이 수치는 모두 큰 차이의 비율로 증가한 것이며 의무 편성비율인 25%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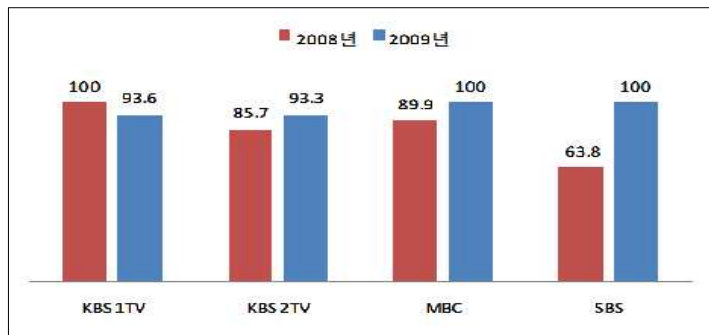
[그림 41] 지상파 3사 TV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단위: %)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은 MBC 100%, SBS 100%, KBS 1TV 93.6%, KBS 2TV 93.3%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무편성비율인 4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MBC와 SBS의 경우 전년도 보다 증가한 비율인 100%는 2009년에 두 방송사에서 방송한 모든 애니메이션이 국내 제작임을 나타낸다. KBS의 두 채널도 90%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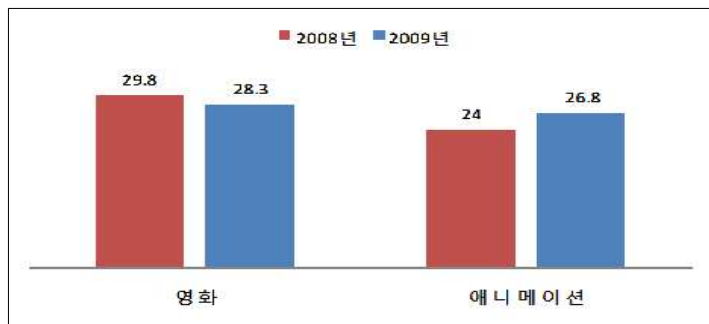
영화와 애니메이션 외 대중음악의 경우는 법정 비율로 60% 이상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KBS, MBC, SBS에서 2009년도에 방송된 대중음악 프로그램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100%에 달하고 있다.

[그림 42] 지상파 3사 TV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한편, EBS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28.3%,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26.8%로 파악되었다. 영화의 경우 2008년도의 편성비율(29.8%) 보다 약간 감소한 것이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2008년도(24%) 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영화의 경우 25% 규정 수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육 전문 편성 채널에 요구되는 8%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림 43] EBS TV의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대중 음악의 경우 EBS에 별도로 요구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② 지역민방의 분야별 국내제작물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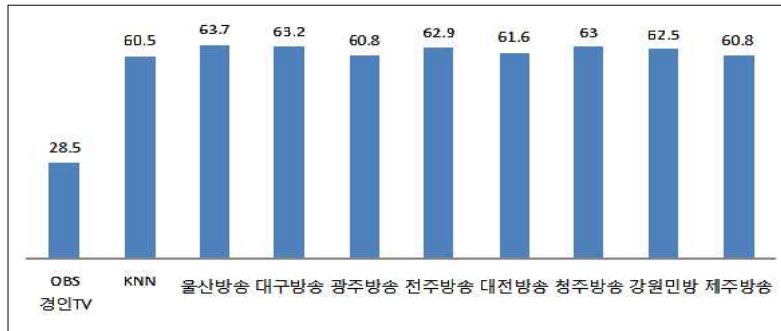
SBS를 제외한 10개 지역 민영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OBS경인TV를 제외한 9개 지역민방은, 전체 영화 편성 시간 중에서 법정비율인 25%를 훨씬 웃도는 60.5~63.7%의 범위 내에서 국내제작 영화를 방송하고 있다. 방송사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SBS의 연간 편성비율(60.8%)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OBS경인TV도 법정비율을 준수하고는 있으나, 다른 지역 민영 방송사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인 28.5%로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4] 지역민방 TV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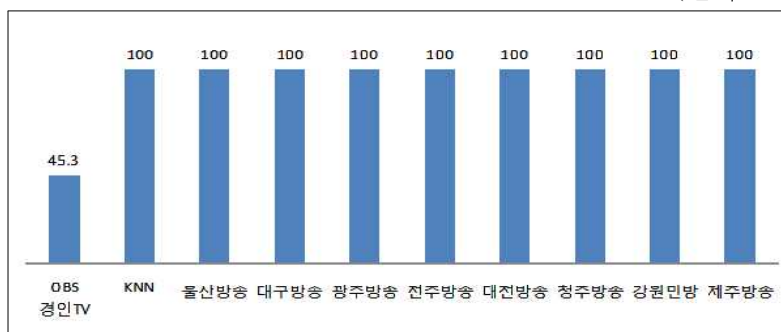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10개 지역민방 모두 법정비율인 45%를 준수하고 있으며, OBS경인TV를 제외한 9개 지역민방은 모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100%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SBS의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과 같다.

OBS경인TV의 경우 법정비율에 거의 근접하는 45.3%의 비교적 낮은 비율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하였다. 앞선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분석에서 OBS경인TV는 매분기 평균 54.1%의 높은 비율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수입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림 45] 지역민방 TV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이러한 결과는 이들 9개 지역민방이 SBS의 편성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OBS 경인TV는 비교적 독자적인 편성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 음악의 경우, OBS 경인TV를 포함하여 10개 지역민방에서 연중 방송한 대중 음악 프로그램이 전부 국내 제작인 것으로 나타나서 모두 예외없이 법정비율(60% 이상)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한다.

③ 지역 KBS, MBC의 국내제작물 편성현황

KBS의 모든 지역방송국은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에 있어서 예외없이 본사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 전체 영화 방영시간 대비 국내제작 영화의 비율이 KBS 1TV는 52.9%, KBS 2TV는 65.3%로 본사와 지역방송국이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며, 애니메이션 역시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비 국내제작물의 비율이 KBS 1TV의 경우 93.6%, KBS 2TV는 93.3%로 서울 본사와 같은 수치를 보인다. 대중음악의 경우도 2009년에 지역방송국에서 방송한 모든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역시 서울 본사와 같은 100%의 비율이다.

KBS의 경우에서처럼, MBC도 본사와 지방계열사들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서울 본사와 지방계열사 모두 41.3%의 동일한 편성비율을 보이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과 대중음악의 편성 비율도 서울 본사와 지방계열사 모두 100%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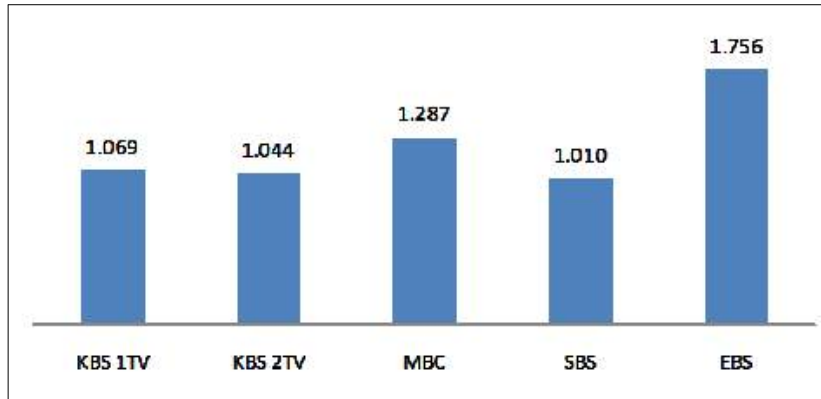
(2)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2009년 중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적용되는 법정비율은 KBS(1TV, 2TV), MBC, SBS의 경우 연간 총 프로그램 편성시간 중 1% 이상이며, EBS의 경우 0.3% 이상의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1% 이상이라는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EBS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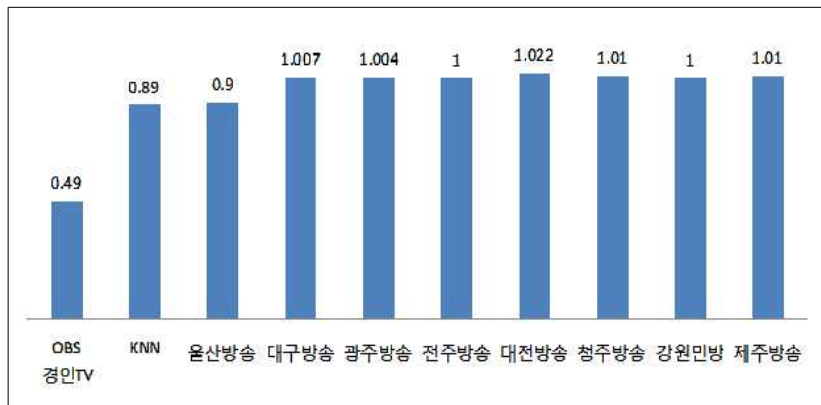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된 KBS, MBC 본사 및 지방계열사의 국내제작물 편성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의 지방계열사 또는 지역방송사의 경우, 본사와 동일한 비율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각각 KBS 1TV 1.07%, KBS 2TV 1.04%, MBC 1.29%의 편성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46] 지상파 3사 및 EBS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한편 지역 민영 방송사업자의 경우, 10개 방송사업자 가운데 OBS 경인TV, KNN, 울산방송 등 3개 방송사는 2009년에 1% 미만으로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나, 의무편성비율 위반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것은 SBS를 제외한 10개 지역민방과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 2009년까지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편성규정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7] 지역민방 TV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2.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항목별 편성 현황

1) 오락 및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1) 종합편성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구분 없이 종합편성 지상파 DMB 사업자¹³⁾는 매월 전체 프로그램 편성 시간 중 50% 이내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라디오와 TV를 모두 포함하여 총 26개의 종합편성 지상파 DMB 채널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18개의 텔레비전 채널과 8개의 라디오 채널이 포함된다.

오락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지상파 DMB TV 채널로는 지상파 3사의 DMB TV 채널(KBS의 U KBS 스타, MBC의 MY MBC TV, SBS의 SBS ② TV), 그 외 종합편성 지상파 DMB TV 채널(한국 DMB의 QBS, U1 Media의 U1 TV, YTN DMB의 ③ YTN), 여섯 개 MBC 지방계열사의 DMB TV 채널(광주 MBC, 대전 MBC, 부산 MBC, 안동 MBC, 제주 MBC, 춘천 MBC의 MY MBC TV), 지역민방의 DMB TV 채널(KNN의 KNN ④, 강원민방의 Hi-GTB, 광주방송의 KBC ⑤, 대구방송의 TBC ⑥, 대전방송의 TJB ⑦, 제주방송의 JIBS ⑧)가 포함된다.

한편, 지상파 DMB 라디오 채널 8개로는 본사 및 6개 MBC 지방계열사의 my MBC 라디오 채널, SBS의 SBS ② RADIO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① 채널별 월별 편성현황

월별로 채널마다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9년 중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U KBS 스타와 ③ YTN은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 보고서에서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지상파 DMB PP)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표 31> 지상파 DMB TV 사업자의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U KBS 스타	15.7	14.1	17.3	18.2	10.7	12.5	14	14.5	13.8	12.1	13.3	14.7
MBC	MY MBC TV	45.7	42.8	47.2	46.2	43.5	47.3	46.7	45.1	45	49	45.3	45.1
SBS	SBS ㉠ TV	45.5	46.9	44.5	42.8	41.9	48.3	46.9	45.4	46.7	49.2	48.9	45.7
한국 DMB	QBS	40.6	45.7	47.8	5.6	5	2.2	0.5	31.4	32.8	38.9	37.2	38
U1 MEDIA	U1 TV	39.3	35.5	35.5	44	45.2	48.8	48.7	49.4	49.0	43.9	38.3	46.7
YTN DMB	㉠YTN	6.6	6.8	6.4	6.1	4.3	7.6	7.68	7.72	7.71	9.16	5.76	4.09
광주MBC	MY MBC TV	45.7	42.8	47.2	46.2	43.5	47.3	46.7	45.1	45	49	45.3	45.1
대전MBC	MY MBC TV	41.2	36.9	40	38.9	40.6	40.6	40.3	39.4	39.4	44.8	39.7	41.4
부산MBC	MY MBC TV	43.5	48.8	42.9	41.4	38.4	40.7	41.8	40.3	39.5	44.2	39.8	41.5
안동MBC	MY MBC TV	43.6	40.6	42.9	40.4	40.1	41.1	41.3	39.1	39.4	44	39.4	41.7
제주MBC	MY MBC TV	45.7	42.8	47.2	46.2	43.5	47.3	46.7	45.1	45	49	45.3	45.1
춘천MBC	MY MBC TV	43.9	37.4	40.6	38.5	37.1	39.4	39.6	39.5	39.5	44.3	40.6	39.1
KNN	KNN ㉠	45	45.8	44.5	42.7	45.3	45.6	47	46	45.3	46.3	46.2	45.5
강원민방	Hi-GTB	48.2	44.9	46.3	40.9	41.1	48.6	44.2	44.6	45	48.9	43.6	46
광주방송	KBC ㉠	48.3	44.7	46.2	41.8	40.7	45.7	40.5	40.5	42.6	46.6	41.7	43.9
대구방송	TBC ㉠	38.5	35.7	36.7	32	35.2	34.2	33.9	35.2	34.6	37.4	34.9	33.9
대전방송	TJB ㉠	41.1	40.9	40.9	39.2	38.3	39.2	41.6	40.6	37.7	35.3	39.4	38.2
제주방송	JIBS ㉠	45.5	46.9	44.5	42.8	41.9	48.3	46.9	45.4	46.7	49.2	48.9	35.7

<표 32> 지상파 DMB 라디오 사업자의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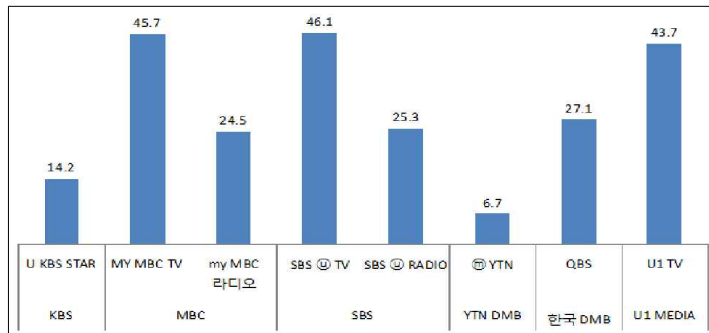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MBC	myMBC라디오	25.1	25.1	25.1	25.1	25.1	25.1	26.7	25.1	25.1	25	25.1	16.6
SBS	SBS ㉠ RADIO	30.5	30.5	30.5	23.1	23.1	23.1	23.1	23.1	23.1	23.1	25	25.2
부산MBC	myMBC라디오	23.8	15.4	25.1	23.1	23.2	24	25.6	23.7	24.1	24.3	23.7	24.4
안동MBC	myMBC라디오	25.1	25.1	25.1	25.1	25.1	25.1	26.7	25.1	25.1	25	25.1	25.1
광주MBC	myMBC라디오	25.1	25.1	25.1	25.1	25.1	25.1	26.7	25.1	25.1	16	25.1	25.1
대전MBC	myMBC라디오	25.1	25.1	25.1	25.1	25.1	25.1	26	25.1	25.1	24.3	24.4	24.4
춘천MBC	myMBC라디오	25.1	25.1	25.1	25.1	25.1	25.1	26.7	25.1	25.1	25	25.1	25.1
제주MBC	myMBC라디오	25.1	25.1	25.1	25.1	25.1	25.1	26.7	25.1	25.1	25	25.1	25.1

② 채널별 연평균 오락 프로그램 편성현황

연중 편성자료의 분석 결과, MY MBC TV, SBS ㉠ TV, U1 TV는 매월 모두 40%대 선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YTN에서 운영하는 ㉠ YTN의 경우, 보도중심 종합채널이라는 특성에 맞게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한국

DMB의 QBS는 이전의 1TO1 TV에서 UBS TV로, 2009년 3사분기 이후에는 다시 QBS로 채널명이 바뀌면서 채널 정체성을 자리 잡는 과정에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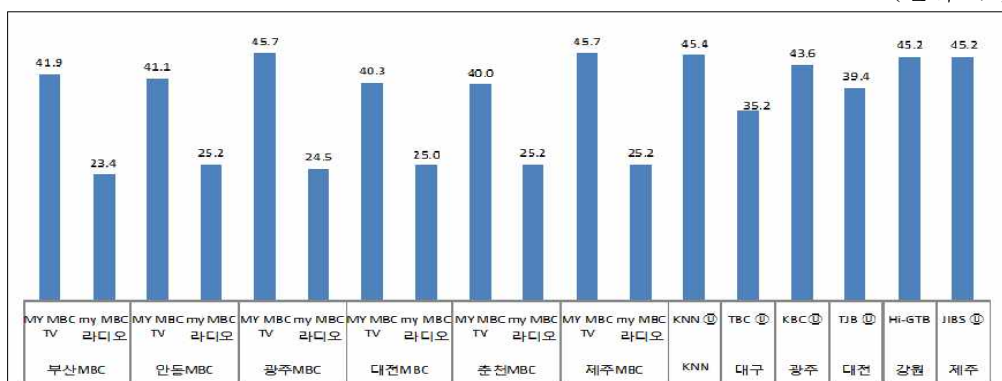
[그림 48]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교
(단위: %)



전반적으로 U KBS 스타와 ⑩ YTN을 제외한 지상파 DMB TV 채널이 지상파 DMB 라디오 채널에 비해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별적 편성 행태는 일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편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지역민방 및 MBC 지방계열사들의 DMB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사분기 이후 추가된 MBC 지방계열사들은 지상파 DMB TV의 경우 연평균 40~46%의 범위 내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지상파 DMB 라디오는 23~25% 선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지역민방에서 운영하는 6개 지상파 DMB 방송은 모두

[그림 49]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 DMB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TV 채널로, 적게는 연평균 35.2%(대구방송)에서 많게는 45.4%(KNN)의 범위 안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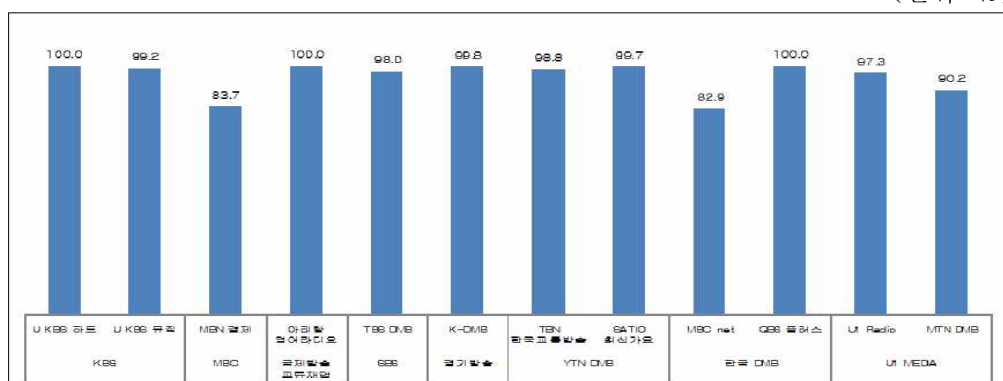
(2) 전문편성 DMB 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전문편성 지상파 DMB 사업자로, KBS의 U KBS 하트, U KBS MUSIC, MBC의 MBN 경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 영어 라디오, SBS의 TBS DMB, 경기방송 K-DMB, YTN DMB의 TBN 한국교통방송(on TBN), SATIO, 한국 DMB의 MBCNET, QBS 플러스(7월부터 전송 시작), U1 Media의 U1 Radio와 MTN DMB(2009년 8월 3일 개국)의 모두 12개 방송이 포함된다.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은 전문편성 지상파 DMB의 경우 매월 60% 이상, 전문편성 지상파 DMB PP는 매월 80% 이상인데, 위의 채널 가운데에서 매월 60% 이상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전문편성 지상파 DMB는 KBS의 U KBS MUSIC와 U KBS 하트의 2채널이며, 매월 80%이상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지상파 DMB PP로는 MBN 경제, 아리랑 영어, TBS DMB, 경기방송의 K-DMB, on TBN, SATIO 최신가요, 한국 DMB의 MBC net과 QBS 플러스, U1 Media의 U1 Radio와 MTN DMB의 10개 채널이 있다.

채널별로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MBN 경제와 MBC net, MTN DMB를 제외하고는 모두 97~100%의 높은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편성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MBN 경제와 MBCNET, MTN DMB의 경우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84%, 83%, 90%의 수준에서 각각 해당 전문편성 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그림 50] 전문편성 DMB 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연평균 편성비율
(단위: %)



구체적으로, 의무 편성비율 적용대상인 월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12월 U1 MEDIA의 MTN DMB를 제외한 11개 채널 모두 해당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MTN DMB의 경우 2009년 8월 개국 이후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90% 대에서 방송하였으나, 12월에는 의무편성비율인 80%에 못 미치는 77%만 편성함으로써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표 33> 전문편성 지상파 DMB 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업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U KBS 하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U KBS 뮤직	99	99.2	99.2	99.6	99	99.6	99.2	99.2	99.2	99.2	99.2	99.2
MBC	MBN 경제**	83.9	84.9	83.7	82.5	84.7	84	84.3	84	83.2	83.7	83.1	82.8
SBS	tbs DMB	97	97	96	96	96	97	100	100	100	100	100	97
	K-DMB**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국제방송 교류재단	아리랑영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 DMB	MBC net	80.2	80.8	80.9	80.4	82.8	82.6	84.8	85.8	84.4	83.7	84.4	83.4
	QBS 플러스*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U1 MEDIA	U1 Radio	97.5	97.1	96.7	96.7	96.7	96.6	96.6	96.7	96.7	100	100	96.6
	MTN DMB*	-	-	-	-	-	-	-	94.1	93.3	93	93.6	77
YTN DMB	onTBN**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8	98.78	98.8	98.8	98.8
	SATIO	99.6	99.6	99.6	99.6	99.5	99.6	100	100	100	100	100	98.8

* QBS플러스는 2009년 7월, MTN DMB는 2009년 8월 1일 방송을 시작하였음.

** 경기방송 DMB 라디오 K-DMB는 SBS의 송신소를 임대하여 방송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방송이 중단되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on TBN은 YTN을 통해 방송하였다.

2)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현황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외부의 특정 단일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막고 지역민방의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법률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매월 전체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특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 DMB 방송의 경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지상파 DMB 사업자들 가운데 이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KBS와

MBC의 DMB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DMB 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SBS의 2개 채널(SBS ㉔ TV, SBS ㉔ RADIO), YTN DMB의 ㉓ YTN, 한국 DMB의 QBS(이전 1TO1 TV)와 QBS 플러스, U1 MEDIA의 U1 TV. 그리고 KNN의 KNN ㉔, 대구방송의 TBC ㉔, 광주방송의 KBC ㉔, 대전방송의 TJB ㉔, 강원민방의 Hi-GTB, 제주방송의 JIBS ㉔ 등 6개 지역민방의 DMB 채널을 포함한 12개 채널이 해당된다.

월별 편성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SBS ㉔ TV와 SBS ㉔ RADIO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연중 0%로, SBS 채널들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DMB의 QBS, QBS 플러스, U1 MEDIA의 U1 TV 역시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연중 40%대 이하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YTN에서 운영하는 ㉓ YTN은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의 비중이 매월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외 지역민방의 6개 DMB 채널의 경우 매월 적게는 66.5% 에서 많게는 79.5%로 아직까지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지상파 DMB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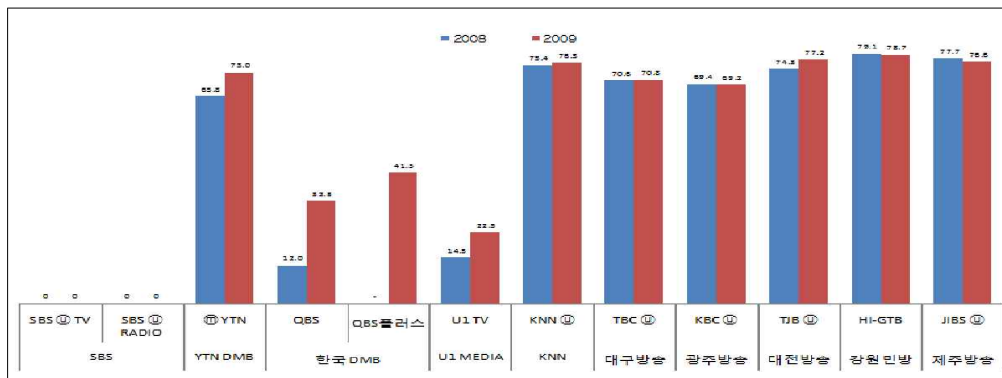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BS	SBS ㉔ TV	0	0	0	0	0	0	0	0	0	0	0	0
	SBS ㉔ RADIO	0	0	0	0	0	0	0	0	0	0	0	0
YTN DMB	㉓ YTN	73	73.3	72.6	73.5	72.8	71.1	71.3	70.9	72.2	69.9	76.2	78.9
한국 DMB	QBS	17.3	20.4	14.3	28.9	29.4	30.9	49.3	39.9	42.2	38.2	38.8	40.8
	QBS플러스	-	-	-	-	-	-	49.3	39.9	42.2	38.2	38.8	40.8
U1 MEDIA	U1 TV	14.3	20	20.1	23.8	28.1	26.9	20.1	25.7	22.8	22.7	24	21.5
	KNN ㉔	76.2	77.3	78.6	76.9	76	76.5	76.5	77	77	75	73.6	74.7
대구방송	TBC ㉔	72.5	70.3	73.9	70.8	71	69.9	69.9	70.9	70.6	70.7	69.8	69.3
광주방송	KBC ㉔	67.8	66.7	69.6	68.9	68.2	66.5	75.9	78.2	67.5	68.2	66.4	67
대전방송	TJB ㉔	76.1	76.6	79	77.5	76.8	78.3	77.6	76	79.1	77.6	76.6	75.6
강원민방	Hi-GTB	79.5	79.4	79.1	77.7	79.8	78.9	76.7	79.5	77.9	78.2	79	78.7
제주방송	JIBS ㉔	77.3	77.9	78.9	75.2	77.9	74.8	75.2	75	77.8	77	76.1	75.9

전년도 편성비율과 비교해보면, SBS 채널들의 경우 2008년도에도 역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0으로 나타나는 반면, YTN, 한국 DMB, U1 모두 전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들어서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6개 지역민방의 DMB 채널들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적게는 연간 평균 69.2%에서 많게는 78.7%에 이르는 높은 수준에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1] 지상파 DMB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3)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에 따르면, KBS, MBC, SBS¹⁴⁾의 지상파 DMB는 매분기 80% 이상, 그 외 지상파 DMB 사업자는 매분기 60%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분기별 편성현황

①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상파 3사와 국제방송 교류재단, YTN DMB, 한국 DMB, U1 Media에서 운영하는 지상파 DMB 채널 20개는 모두 분기별로 80% 이상이라는 해당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KBS, MBC, SBS의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DMB 채널에 비해 다른

14) SBS의 경우 KBS나 MBC처럼 관련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의무편성비율 80%의 기준에 부합한다.

지상파 DMB 사업자들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5>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무편성비율
KBS	U KBS 스타	99.4	99.2	99.2	99.5	80%이상
	U KBS 하트	99.6	100	99.9	99.4	
	U KBS MUSIC	100	100	100	100	
MBC	MY MBC TV	99.7	100	100	99.8	60%이상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MBN 경제*	100	100	100	100	
SBS	SBS ㉸ TV	100	100	100	100	80%이상
	SBS ㉸ RADIO	100	100	100	100	
	TBS DMB*	100	100	100	100	
	K-DMB*	100	100	100	100	
국제방송 교류재단	아리랑 영어	100	100	98.8	98.4	60%이상
YTN DMB	㉸ YTN	92.1	95.3	96.7	98	
	on TBN	100	100	100	100	
	SATIO 최신가요	100	100	100	100	
한국 DMB	QBS	89.7	96.1	96.8	96.4	
	QBS플러스	—	—	96.8	96.4	
	MBCNET	100	100	100	100	
U1 MEDIA	U1 TV	99.3	91.2	90.4	92.2	
	U1 Radio	100	100	100	100	
	MTN DMB	—	—	100	100	

* MBN 경제, K-DMB와 TBS DMB의 경우 방송 채널을 임대하고 있으나 최종 편성권은 해당 PP에서 가지므로 60% 이상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된다.

②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역 지상파 DMB 방송으로 간주하여 이 보고서에서 포함시킨 대상은 MBC의 지방계열사 6곳(부산, 안동, 광주, 대전, 춘천, 제주)에서 운영하는 지상파 DMB TV 및 라디오 채널 12개와, 6군데 지역 민영방송(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에서 운영하는 6개 지상파 DMB TV채널이다. 2009년 중 이 12개 방송사업자의 18개 채널 모두 분기별 60% 이상이라는 국내제작물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모두 분기별로 의무편성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96.8~100%의 범위 내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특히, MBC의 지방계열사에서 운영하는 my MBC 라디오 채널들의 경우는 6개 방송 모두 100%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라디오 채널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이 TV 방송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 지상파 방송의 편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36>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무 편성비율
부산 MBC	MY MBC TV	99.7	100	100	99.8	80%이상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안동 MBC	MY MBC TV	99.7	100	100	99.8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광주 MBC	MY MBC TV	99.7	100	100	99.9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대전 MBC	MY MBC TV	99.8	100	99.4	99.4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춘천 MBC	MY MBC TV	98.8	98.7	97.6	98.8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제주 MBC	MY MBC TV	99.7	100	100	99.8	
	MY MBC 라디오	100	100	100	100	
KNN	KNN ㉠	98.7	98.7	98.2	98.5	60% 이상
대구방송	TBC ㉠	97.2	97.8	98	98.4	
광주방송	KBC ㉠	95.8	96.8	97.7	96.9	
대전방송	TJB ㉠	97.2	97.9	98.1	97.8	
강원민방	Hi-GTB	100	100	100	100	
제주방송	JIBS ㉠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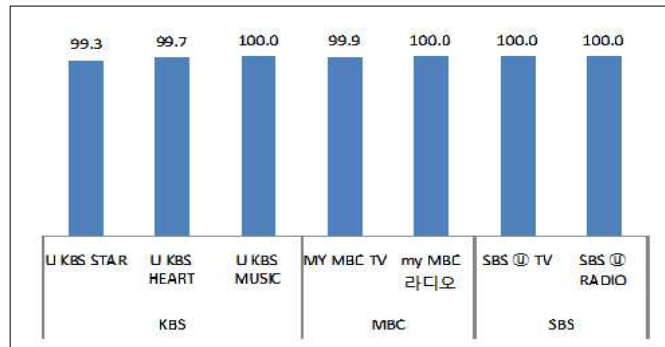
(2) 연평균 편성현황

①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현황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KBS, MBC, SBS가 소유, 운영하는 지상파 DMB 방송의 경우 TV나 라디오 방송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80%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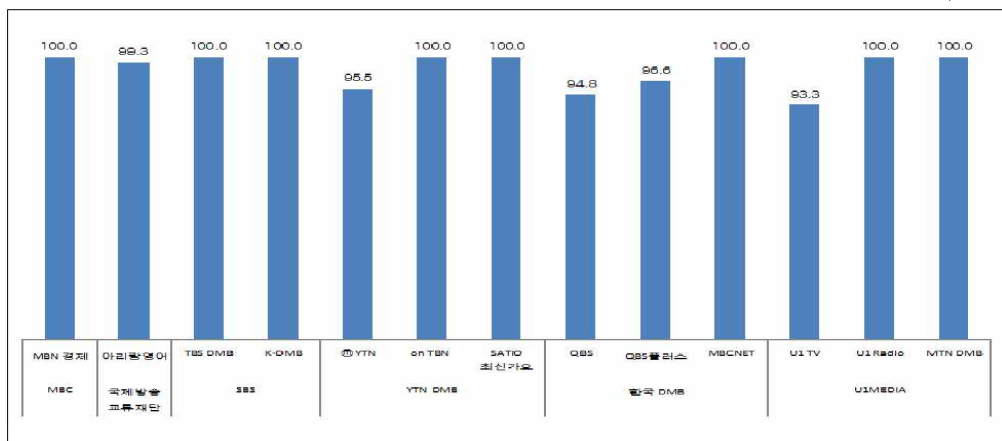
상 방송해야 한다. 실제로 방송 3사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분기별은 물론, 연평균 편성비율도 100%에 가깝게 나타난다. 특히 라디오 DMB 채널인 U KBS 뮤직, my MBC 라디오, SBS ⑩ Radio는 방송 시간의 전량(100%)을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으며, TV 채널인 SBS ⑩ TV도 연평균 편성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다.

[그림 52] 지상파 3사 DMB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단위: %)



지상파 3사를 제외하고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60% 이상인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경우, 6개 방송사업자의 13개 채널 중 8개 채널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연평균 100% 편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채널도 모두 전체 방송시간의 90%가 넘게 국내제작물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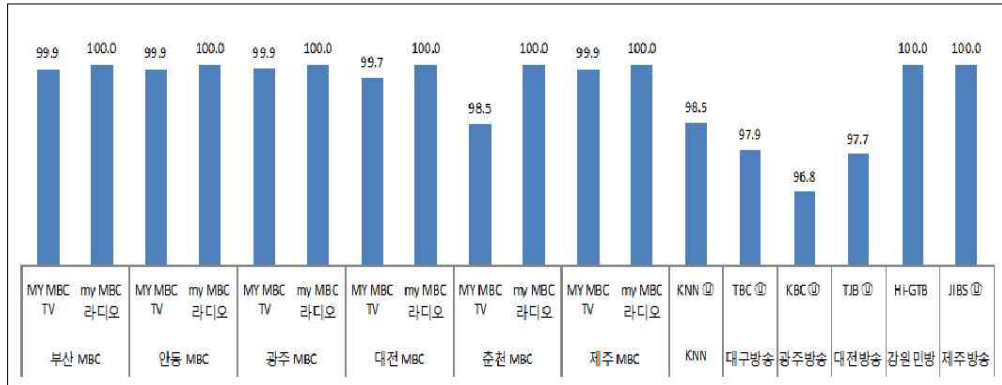
[그림 53] 주요 DMB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단위: %)



②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현황

2008년 3사분기 이후부터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한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로써 의무편성비율 80% 이상이 적용되는 12개 MBC 지방계열사의 TV 및 라디오 DMB 채널과, 의무편성비율 60% 이상의 6개 지역민방 DMB이 포함된다. 분석 대상 방송사업자 모두 기준비율을 훨씬 넘긴 95% 이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연중 방송하고 있었다.

[그림 54]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단위: %)



4)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고시의 부칙에 따르면,¹⁵⁾ 편성고시의 제8조에서 규정하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이 지상파 DMB 사업자와 지상파 PP에게 모두 2009년까지 그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2009년 중 방송사업자별 편성 보고 자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들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분석도 생략하기로 한다.

5)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처럼 지상파 DMB 사업자 역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3개 분야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편성비율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DMB 사업자는

15) 부칙 제2008-135호(2008. 12. 31.) 제1조 제4항.

분기별로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1개 국가 의존도를 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2개 지상파 DMB TV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1) 영화

2009년 중 편성 자료의 분석결과, 해당 기간 동안 KBS의 U KBS 스타와 U KBS 하트, 한국 DMB의 QBS, QBS 플러스, 춘천 MY MBC TV의 5개 채널에서 외국 수입영화를 편성하였다. 전체 외국 수입영화의 편성비율은 분기별, 채널별로 차이가 있으나, 한국 DMB의 QBS와 QBS플러스(2009년 8월 개국)의 경우 분기별로 65~74%의 높은 비율로 외국 수입영화를 편성하였다. U KBS 스타와 U KBS 하트는 연평균 각각 48.2%, 38.2%의 비율로 외국영화를 편성하였으나, 분기별로 일정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며 매분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춘천 MY MBC TV의 경우 5월에 외화를 130분 동안 편성하여 2사분기의 외화 편성 비율이 16.3%로 기록되었다.

<표 37> 지상파 DMB 사업자의 분기별 수입영화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U KBS 스타	38.9	67	58.3	28.5
	U KBS 하트	19.5	0	100	33.3
춘천MBC	MY MBC TV	0	16.3	0	0
한국DMB	QBS	73.9	0	64.5	64.8
	QBS 플러스	-	-	64.5	64.8

직접적으로 의무편성비율의 규정 대상 항목인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수입 영화를 방영한 5개 지상파 DMB TV 방송 가운데 KBS의 2채널과 한국 DMB의 두 채널은 모두 분기별로 60% 이내에서 1개 국가 제작물을 편성하여 법정 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단, 춘천 MBC의 지상파 DMB TV 방송인 MY MBC TV의 경우, 2사분기에 미국영화를 100% 편성함으로써 의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 분기마다 수입 영화의 제작국가를 살펴보면, 편성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폴란드, 스위스/영국, 남아공 등도 해당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가 많이 방영된 분기가 있었다.

<표 38> 지상파 DMB 사업자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	U KBS 스타	50 (미국)	39.2 (미국)	39.5 (미국)	31.5 (폴란드)
	U KBS 하트	50 (스위스/영국)	0	54.5 (남아공)	53.1 (미국)
춘천MBC	MY MBC TV	0	100 (미국)	0	0
한국DMB	QBS	50.9 (미국)	0	55 (미국)	43.9 (미국)
	QBS 플러스	-	-	55 (미국)	43.9 (미국)

(2) 애니메이션

분석 대상으로 포함된 대부분의 지상파 DMB TV 채널들은 2009년 중 수입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두 채널은 U KBS 스타와 U KBS 하트이며, U KBS 스타에서는 2009년 5, 6월에, U KBS 하트에서는 1월과 2월에 각각 수입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이 두 채널의 해당 분기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전체의 편성비율은 각각 27.6%와 38.6%로 나타났으며, 편성된 외국 애니메이션들의 제작 국가를 조사해 본 결과,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인, 50%(독일/미국), 52.9%(미국)의 비율이었다.

(3) 대중음악

2009년 8월에 개국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MTN DMB와, 연중 대중음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㉓ YTN을 제외한 주요 지상파 DMB 방송, MBC 지방계열사의 DMB 방송 및 지역민방 DMB 채널에서는 모두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100% 방송하였다. 따라서 수입 대중음악 및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모두 0으로 처리되었다.

6)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현황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에 적용되는 연간 의무편성비율은 영화의 경우 전체 영화 프로그램 편성 시간 중 25% 이상, 애니메이션은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시간 중 35% 이상, 대중음악의 경우 60% 이상이다.

해당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지상파 DMB 사업자로는 KBS의 U KBS 스타, U KBS 하트, MBC의 MY MBC TV, SBS의 SBS ④ TV, YTN의 ㉠ YTN, 한국 DMB의 QBS, QBS 플러스, U1 MEDIA의 U1 TV 등 8개 채널과, 6개 MBC 지방계열사(부산, 안동, 광주, 대전, 춘천, 제주)의 MY MBC TV, 6개 지역민방(KNN,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의 DMB 채널 등 22개 지상파 DMB TV 방송사업자이다. 이 가운데 MTN DMB의 경우 2009년 8월 3일 개국하여 2009년도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21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편성 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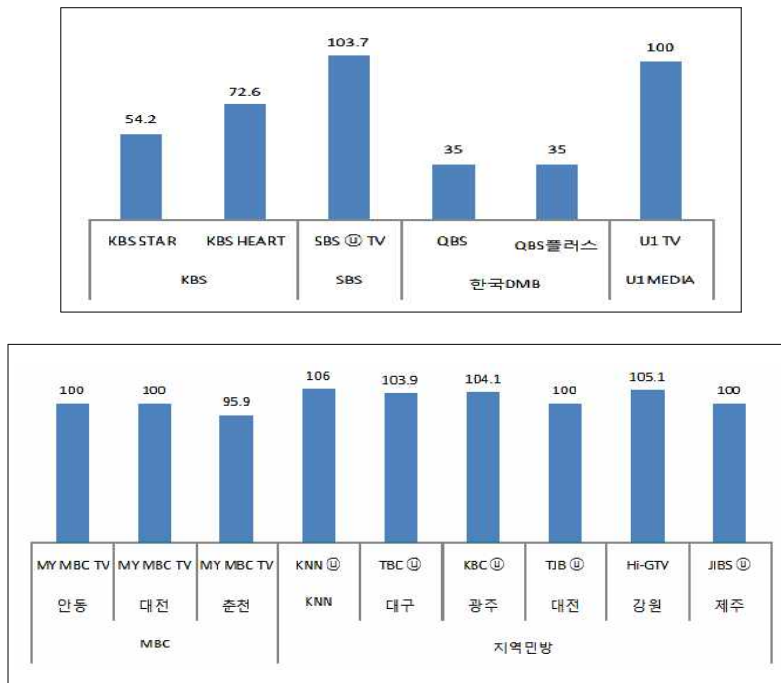
(1) 국내제작물의 연간 편성현황

연중 편성자료의 분석결과, MBC 본사의 MY MBC TV, ㉠ YTN, 부산·광주·제주 지역 MBC 지방계열사의 MY MBC TV, 한국DMB의 MBCNET 등 6개 채널이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 YTN은 영화를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하고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한 나머지 15개사는 모두 법정비율을 준수하였다. 이 가운데 연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채널은 KNN(106%)이었으며,¹⁶⁾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 DMB의 QBS와 QBS 플러스가 연간 평균 35%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2009년 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지상파 DMB TV 채널 가운데 U KBS 스타, U KBS 하트, SBS ④ TV, ㉠ YTN, U1 TV, 대전·춘천 지역 MBC 지방계열사의 MY MBC TV, 6개 지역민방의 지상파 DMB TV 등 총 13개 DMB TV 방송에서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35% 이상이라는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16) 현행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의무편성비율은 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과정에서 국내 제작 영화가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될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 즉 15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합이 100을 넘을 수 있다.

[그림 55] 지상파 DMB 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연간 편성비율
(단위: %)



보다 구체적으로, U KBS 스타와 U KBS 하트가 각각 91.2%, 61.4%의 비율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채널은 모두 연간 10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다.

한편, 국내 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과 관련해, 해당되는 21개 지상파 DMB TV 방송 가운데 2009년 중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은 ㉓ YTN을 제외한 20개 채널이 모두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100% 국내제작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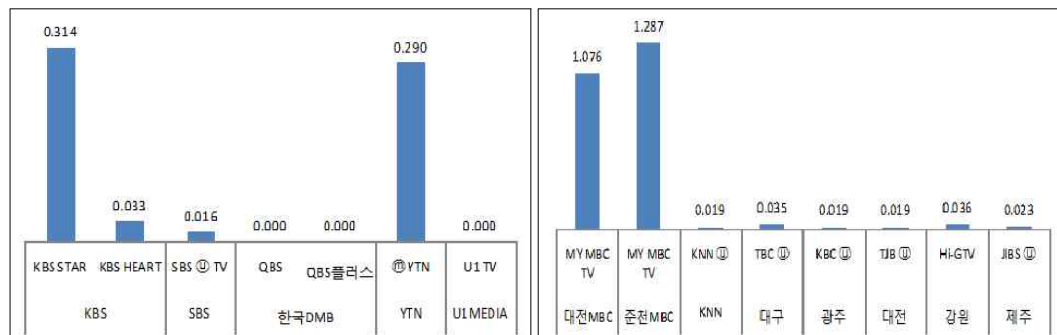
연간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편성비율은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중 0.1% 이상이다. 단, 동 의무편성비율은 2008년 12월 31일자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의 부칙(제2008-135호, 200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2009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22개 지상파 DMB 채널 가운데,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방송사업자는 KBS 스타, KBS 하트, SBS ① TV, QBS, QBS 플러스, U1 TV, ㉓ YTN, 대전 및 춘천 MBC

의 MY MBC TV, 6개 지역민방의 DMB 채널(KNN ㉠, TBC ㉠, KBC ㉠, TJB ㉠, Hi-GTV, JIBS ㉠) 등 15개 방송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정비율기준인 0.1%보다 낮은 비율로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까지 시행유예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로 간주되지 않으며, KBS 스타, ㉠ YTN, 대전 및 춘천 MBC의 MY MBC TV 등은 법정 기준인 0.1% 이상의 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그림 56] 지상파 DMB 사업자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연간 편성비율
(단위: %)



3. SO, 위성방송 사업자, PP의 항목별 편성 현황

1)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에 적용되는 의무편성비율은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편성시간 중 매분기 50% 이상이다.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이란 SO에서 지역방송채널 외에 운용하는 채널, 즉 다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지칭한다.

직사채널을 운용하는 법인의 경우 모두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법정비율 50%를 훨씬 상회하는 78~100%의 범위 내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J, HCN, CMB, Tbroad, 온미디어 등의 복수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이하 MSO]가 운용하는 일부 법인 및 일부 단독 SO들이 국내제작 프로그램

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9년 4사분기의 경우 총 26개 직사채널 운용 법인들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SO 직사채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계열		직사채널 운용 법인 수(전체 법인 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MSO	C&M	0(15)	0(15)	0(16)	0(16)	—	—	—	—
	CJ	10(15)	12(15)	12(15)	12(15)	70	100	100	100
	CMB ¹⁷⁾	16(20)	6(20)	8(12)	8(12)	94.3	80.7	78.2	81.0
	GS홈쇼핑	0(2)	0(2)	0(2)	0(2)	—	—	—	—
	HCN	2(10)	2(10)	2(10)	2(10)	98.6	94.0	100.0	99.8
	Tbroad	12(15)	12(15)	0(15)	0(15)	91.7	100	—	—
	온미디어	0(5)	0(5)	0(5)	0(5)	100	100	—	—
	큐릭스	0(8)	0(8)	0(8)	(8)	—	—	—	—
단독 SO		5(17)	5(18)	5(20)	4(20)	95.2	99.3	79.5	99.2

* 괄호 안은 해당 계열사의 전체 법인 수를 기록한 것이다. 직사채널 운용결과가 없는 경우 “-”로 표시하고 있으며, 한 개의 법인에서 두 개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위성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은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편성시간 중 매분기 50% 이상이다.

이 편성규제의 대상이 되는 채널은 총 5개의 위성방송채널로,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주)의 3 채널과 TU 계열의 2채널이 있다.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의 스카이레인보우의 경우 2009년 1월과 2월에 방송되지 않아 조사에 누락되었으며 11월 이후 방송이 중단됨에 따라 4사분기 자료 역시 누락되었다. 2008년 조사에 포함되었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플러스 역시 2009.01.01 데이터방송으로 변경되어 2009년도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SO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분기별 편성비율과 비교해 볼 때 위성방송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들 채널 가운데, TU Sports

17) CMB는 산하 8개 채널이 2009년 4월에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3사분기 이후 법인 수가 줄어들었다.

와 스카이레인보우가 상대적으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높게 편성하고 있으며, 키즈톡톡과 TU Entertainment는 각각 50.7~52.8%, 55.5~62.0%의 범위 내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0> 위성방송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키즈톡톡	50.7	51.9	52.6	52.8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스카이레인보우	-	88.3	85.1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레인보우HD	63.7	64.2	75.1	72.3
TU Sports	71.3	70.8	77.2	75.4
TU Entertainment	55.5	57.4	59.1	62.0

(3)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이하 PP]에 적용되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은 해당 채널 전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중 매분기 40% 이상이다. 단,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사업자는 분기별 편성비율이 아닌 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기별 편성비율이 40%가 넘더라도 의무편성비율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조사 기간 도중에 송출이 중단되었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널, 연간 송출내역이 없는 채널 등을 제외한 총 166개 채널 가운데 33개 채널이 송출기간 동안 100%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5개 홈쇼핑 채널(농수산, CJ, 롯데, 현대, GS 홈쇼핑)도 포함된다.

지상파 계열 PP의 연평균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스포츠 채널과 오락 채널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스포츠 전문채널인 MBC-ESPN(56.5%), SBS스포츠(57.3%), SBS골프(57.7%), KBS SKY스포츠(80.1%)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오락채널인 MBC 에브리원(96.9%), MBC Game(100%), KBS Joy(99.1%), KBS Prime(100%)이나, 드라마 재방영 채널인 KBS드라마(99.3%), SBS드

라미플러스(92.2%), MBC드라마넷(97.0%)의 경우,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외화 및 외국 드라마 시리즈물 편성비율이 높은 영화 채널 및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역시 연평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게는 26.5%에 이르는 등 해외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스타일(42.8%), 스토리온(42.1%), 올리브(72.7%), 동아TV(61.8%) 등 해외제작 리얼리티 프로그램 및 드라마 시리즈 방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 채널의 경우에도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그밖에, 종교 전문 채널의 경우 채널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분기마다 75%~ 98%의 범위 안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PP 전체의 연평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75.6%이다.

<표 4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가요TV	100	99.6	98.91	98.85	
국군방송	74.5	76.5	74.27	74.43	
국회방송	77.7	85.7	84.33	89	위성/케이블 동일
극동아트(구 ART TV)	81.6	80.4	78.83	73.4	
농수산홈쇼핑	100	100	100	100	
대교플러스	—	98.2	90.58	—	09. 04. 01방송시작
동아TV	65.2	70.1	57.09	54.97	
드라맥스	97.4	98.9	98.8	98.83	
디원	86.8	86.1	88.4	84.35	
롯데홈쇼핑	100	100	100	100	
리빙TV	66.1	72.6	69.9	75.93	
메디TV	99.4	99.8	99.67	97.5	
미드나잇채널	61.3	69.2	50.46	51.8	
바둑TV	100	100	100	99.93	
법률방송	62.4	58.2	70.97	78.83	
복지TV	95.9	93.7	93.1	98.4	
부동산TV	92.1	99	96.69	94.45	
북채널 ch35(TU미디어)	—	—	100	100	
북채널 ch50(TU미디어)	—	—	100	100	
불교TV	100	94.6	93.33	96.73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브레인TV	94.4	91.6	92.6	92.6	
비타민TV	—	60	79.83	86.07	09.04.01송출 재개
사이언스TV	43.8	48.6	44.07	42.97	
생활건강TV	97.9	100	100	99.97	
서울경제TV	56.3	59.6	67.02	78.46	
스파이스TV	50.2	53.3	56.37	62.67	
스피드스포츠(Fsports)	100	94.8	68.33	83.33	09.06.채널명 변경
실버아이	100	100	100	100	
실버TV	98.9	96.3	95.92	95.99	
아리랑TV	100	98.3	97.37	97.1	
애니맥스	38.8	43.6	41.97	44.57	
애니박스	37.6	34.5	32.27	34.93	
애니원	33.3	35.8	34.93	37.13	
어린이TV	70.4	75.3	76.94	69.42	
여행TV	—	—	100	100	
예술TV Arte	100	100	100	100	
온토마토TV	100	100	100	100	
올리브채널	73.9	73.7	71.5	71.5	
월드이벤트TV	100	100	100	100	
웨딩TV	—	—	100	100	09.06.01방송시작
웰빙TV	100	100			09.06.30송출중단
육아방송	88.5	88.5	92.76	91.98	
이데일리 TV	85.1	91.3	94.77	94.43	
이채널	100	100	100	100	
일자리 방송	82.2	96.7	99.1	97.73	
중화TV	40.6	40.3	40.43	40.4	
채널 J	40	41.7	41.63	40.89	
채널뷰	—	83.2	82.2	86.6	09.04.01방송시작
채널텐	80.4	76.3	73.82	82.97	
채널CGV	43.3	46.5	42	33.87	
채널CGV위성DMB	54.8	57.3	58.3	60.03	
챔프	34.4	34.2	32.63	35.5	
칭	44.2	40.8	40.36	43.4	
카툰네트워크(CN)	36.2	36.6	31.23	36.05	
코미디TV	100	100	100	100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쿠키TV	—	100	100	100	09. 02. 16 송출 시작/ 3월부터 입력
쿡TV플러스(QOOK TV)	75	77.4	73.23	78.28	메가플러스에서 채널명 변경(4월)
키즈톡톡	72.8	65.1	61.26	58.07	KT, SK브로드밴드
텔레노벨라	—	—	40.7	40.4	
투니버스	43.3	50.2	50.2	45.33	
패션앤	—	—	41.53	41.17	09.06.01방송시작
플라리스	71.8	70.7	69.37	70.77	
푸드TV	92	89.9	86.93	80	
한국경제TV	100	100	100	100	
한방건강TV	95.9	93.9	93.1	93.4	위성/케이블
현대홈쇼핑	100	100	100	100	
환경TV	40.1	40.3	40.65	40.27	
히어로 TV	—	25	25	25	4월 1일 방송시작
ABO	41	42	42.55	43.15	
AsiaN	43.5	45.6	47.07	43.17	cineon에서 채널명 변경 (09. 02. 20)
ATV	88.3	90.4	88.4	96.21	
Business&	54.9	56.7	53.73	57.27	
C3TV	95.7	—	—	—	
CAR TV	100	98.9	95.33	95.93	
Catch On	27.3	27.8	28.9	25.23	
Catch On plus(위성)	26.9	26.2	26	26.87	
CBS TV	97.2	96.8	97.27	96.13	
CGN TV	75.5	79.9	79	77.67	
CGV Plus	43.1	44.8	42.33	43.9	
cinema TV	45.9	46.9	—	—	
CJ오쇼핑	100	100	100	100	
CMC가족오락TV	98.3	98.4	98.23	98.07	
CNTV	68.1	71.2	79.03	84.03	
CRTV	100	100	100	100	
CTS 기독교TV	96	96.6	95.8	96.47	
E! Entertainment Television	55.9	58.7	51.97	72.5	4UTV에서 변경 (2009. 01. 01)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EBS 플러스 1	100	100	100	100	
EBS 플러스 2	99.5	99.4	99.67	100	
EBS English	79.6	92.7	91.43	90.73	
EBS U	100	100	100	100	
ELLE atTV	—	—	—	48	09. 12. 14.개국
ETN-TV	99.3	99.4	99.2	97.93	
FOOD N	70.8	71.4	71.7	71.1	
FOX	54.5	41.5	45	46.33	
FOXlife	64.6	53.9	55.2	54.77	
FSTV(한국레저뉴스방송)	95.3	96.2	96.93	96.63	
FTV	99.8	100	100	100	
FX	47.3	53	56.63	55.27	
goodtv	—	89.8	84.32	84.34	채널명 변경(5월)
GS홈쇼핑	100	100	100	100	
GTV	87.1	82.8	86.7	89.42	
HD ONE	43.3	42.3	45.7	41.79	
HOMEDRAMA	88.7	96.7	95.87	98.33	
INET TV	100	100	100	100	
IPSN	—	—	46.63	43.15	
J Golf	51.5	67	70.83	64.73	
JEI 재능TV	40.6	42.4	41.33	41.77	
JEI English TV	64.8	71.2	70.8	75.17	
KBS drama	98.4	99	99.83	100	
KBS Joy	98.8	99	100	98.7	
KBS Prime	100	100	100	100	
KBS sports	74.2	75.7	88.07	82.5	
KCN 무협	42.1	41.4	36.8	26.47	
KM	90.3	92.3	85.67	81.07	
KTV(위성/케이블 동일)	83.3	85.8	86	79.57	
M2	48.7	51.3	42.63	44.98	
MBC 드라마넷	96.6	95.4	95.97	100	
MBC Every1 DMB	100	100	100	100	
MBC game	100	100	100	100	
MBC life(구 엘리스TV)	45.9	46.4	59.57	97.87	MBC life로 변경 (09. 10. 05.)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MBC-ESPN	47.8	50.7	67.96	59.43	
MBCEvery1	95.1	94.8	97.77	99.8	
MBCNET	100	100	100	100	
MBN TV	98.4	98.9	98.9	98.5	
MGM	39.3	39.5	39.57	41.97	
Mnet	100	99	83.03	69.8	
mountainTV	78	78.6	79.8	79.8	
Mplex	70.8	44	45.63	33.13	
MTN(SKYLIFE CH512)	—	—	—	100	09. 10. 07송출시작
MTN(구 MCN)	99.2	99.8	99.87	100	
MTV	83	79	78.27	80.5	
National Geographic	42.1	41.4	40.93	41.33	
NICK	47.1	47.3	46.03	48.7	
OCN	36.5	37.7	38.8	27	
OCN Series	49.3	49.1	47.7	100	09. 01. 01송출시작
on game net	100	100	100	100	
On Style	42.8	44.1	40.2	44.17	
OUN	94.8	97.1	97.42	96.92	
PBC-TV(평화방송)	87.9	86.2	84.37	85	
POWERAUTO	—	43	46.64	60.26	09. 02. 09시험방송시작/ 2월말부터 정식방송
QTV	61.2	60.2	63.1	75	
REAL TV	90.9	92.3	96.73	96.27	
RTV	85.5	85	89.33	92.67	
SBN(구 생활경제TV))	100	100	100	78.67	09. 12. 07일 변경
SBS골프(위성/케이블)	62.6	62.1	55.17	50.77	
SBS드라마플러스	91.7	91	92.3	93.7	
SBS스포츠(위성/케이블)	71.2	62.1	47.83	48.17	
SCREEN	—	28.7	27.53	33.7	09. 04. 01방송시작
SKY HD	40.6	41.7	44.98	45.83	
SKY HD Movie	29.2	31.4	31.02	30.34	
SKY바둑	100	100	100	100	
SkyEN	42.2	41	41.77	41.27	09. 01. 01송출시작
STB상생방송	87.5	84.9	85.1	87.9	
Story On	44.2	49.6	49.17	25.2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STV(구 성공TV)	99.7	96	97.84	97.84	
Super Action.	38.7	40.5	44.4	30.7	
TBS TV	94.2	99	99.2	100	
tomatoTV	100	100	100	100	
TVB KOREA	45.4	45.9	42.93	45.41	
tvN DMB	100	100	100	100	
tvN(구KMTV)	72.7	85.2	92.13	94.5	
TVT	77.3	68	52.27	66.07	
Xports	56.6	72.6	61.93	58.2	
XTM	45.4	48.2	47.4	27.4	
Y-STAR	100	100	100	100	
YTN	96.9	97.5	97.77	98.17	

2)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SO, 위성방송, PP 가운데에서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PP에게만 적용되며, 의무편성비율은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방송시간의 80%이상이다.

앞서 <표 41>에 제시된 PP들을 대상으로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검토한 결과,¹⁸⁾ 대부분의 채널들이 매월 80% 이상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의무편성비율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었다.

단, XTM, ATV, 일자리방송의 일부 편성에 있어서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XTM의 경우 1월, 4월, 5월 편성비율이 법정 기준인 80%에 못 미치는 70%대에 머물러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4사분기에는 ATV와 일자리 방송이 각각 10~12월, 11~12월 동안 의무편성비율에 미달하는 비율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3)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SO, 위성방송, PP 가운데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편성하는 사업자들이며 각 분야별로 의무편성비

18) 지면 제약상 각 PP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비율표는 생략하기로 한다.

율은 매분기 60% 이내이다.

(1) 영화

매분기 50개 미만의 채널에서 외국 수입영화를 편성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외국 수입영화를 편성하는 채널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08년의 경우 분기별로 각각 49, 52, 54, 52개의 채널에서 외국수입 영화를 편성하였으며, SO의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분기별로 각각 54.9%, 55.6%, 53.5%, 50.1%, 위성방송의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분기별 37.3%, 52.3%, 42.0%, 39.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2009년의 경우 분기별로 47, 48, 35, 36개의 채널에서 수입 영화가 방송되었으며,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1개 국가 제작 수입 영화의 편성비율도 다소 감소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대부분 채널은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나, 4개 채널(예당아트, 채널 CGV, HOMEDRAMA, KTV)에서 특정 분기에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60% 넘게 편성함으로써 법정비율을 위반하였다. 이 4개 채널은 해당 분기에 모두 미국 영화를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수입 영화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구분	채널 수(미편성 채널)				외국영화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PP	36	37	32	34	51.0	50.1	51.2	49.9
SO	10	10(8)	2	1	53.2	49.3	49.1	47.2
위성방송	1	1	1	1	31.8	45.6	31.0	30.5
합계	47	48(8)	35	36	-	-	-	-

* 괄호 안은 전체 해당 채널 가운데 외국수입 영화를 편성하지 않은 채널수를 기록한 것이다.

전체 채널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분기별로 가장 편성비율이 높은 1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사분기는 미국에 이어 중국 > 홍콩 > 대만 > 일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2사분기에는 중국 > 홍콩 > 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영국의 순서, 3사분기는 미국, 홍콩에 이어 영국, 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가 각각 한 차례씩, 마지막으로 4사분기 미국, 중국·영국이 각 2개 채널에서, 이어 프랑스가 각각 1개 채널에서 높게 나타났다.

채널별로 종교채널의 경우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제작 영화의 비율이 높다거나, 무협·중화권 TV에서 홍콩 및 중국 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이 높은 특징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채널에서 미국 제작 영화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애니메이션

2009년 중 분기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채널의 수는 분기마다 17~25개였으며, 주로 PP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많이 편성하였다.

<표 43>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구분	채널 수				외국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PP	16	18	16	16	55.0	53.3	53.6	53.8
SO	8	0	0	0	52.8	0	0	0
위성방송	1	1	1	1	45.3	40.9	28.3	42.7
합계	25	19	17	17	—	—	—	—

이들 가운데 2009년 1, 2, 3사분기에는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이 없었으나, 4사분기에는 애니맥스 채널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76% 편성하여 법정비율을 위반하였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분기별로 비율이 높은 1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사분기의 경우, 일본 >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대만의 순이며, 2사분기에는 일본 >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대만, 3사분기의 경우 일본 > 미국 > 영국 > 캐나다, 중국, 4사분기는 일본 > 미국, 영국 > 대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우세하던 영화와는 달리,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산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중음악

음악 전문채널을 표방하며 외국 수입 대중음악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실상 MTV 1개 정도이다.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수입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제작 국가로는 2사분기에 Sky EN에서 이탈리아 제작물을 가장 많이 편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4> 수입 대중음악 편성채널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구분	채널 수(미편성 채널)				외국 음악프로그램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PP	4(3)	2	1	1	48.3	51.2	42.5	44.3

4)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1) SO

① 영화

영화의 경우 SO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은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25% 이상이다. 단, 종교 전문편성 사업자의 경우 4% 이상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무 편성비율이 적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가 없는 SO를 제외한 100개 SO 법인의 108개 채널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10개 채널이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편성하고 있었다.¹⁹⁾

영화를 방송한 10개 채널 가운데 (주)씨씨에스(ch.15)와 (주)한국케이블 TV충청방송(ch.6)을 제외한 4개 SO가 제공하는 ch 5와 ch 12들을 비교해 보면, 전체 편성시간 및 국내제작 영화 편성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SO들이 비슷한 편성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주)씨씨에스와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79.6%에서 82.4%, 64.7%에서 71.4%로 전체 영화 편성 시간 대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8개 채널은 10~15%정도로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이 감소하였다.

19) 2009년 6월말 현재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과 호남방송(2008. 9), 충북방송과 HCN충북방송(2008. 11), 대구중앙케이블티비 북부방송과 HCN금호방송(2009. 1), 관악케이블티브이 방송과 HCN(2009. 2)이 합병으로 인하여 편성 자료가 없음.

<표 45> SO의 연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방송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주)씨씨에스	CH.15	19,080	15,720	82.4
(주)씨엠비대전방송	CH.5	8,964	2,517	28.1
	CH.12	5,425	1,546	28.5
(주)씨엠비동대전방송	CH.5	8,964	2,517	28.1
	CH.12	5,425	1,546	28.5
(주)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CH.5	8,964	2,517	28.1
	CH.12	5,425	1,546	28.5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CH.6	43,980	31,380	71.4
(주)한씨엔	CH.5	8,964	2,517	28.1
	CH.12	5,425	1,546	28.5

②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과 관련하여 SO는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비 연간 35%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과 종교 전문편성 사업자에게는 이보다 낮은 8%, 4% 이상이라는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2009년 현재 6개의 SO가 운영하는 10개의 직사채널이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으며, 모두 국내제작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한국케이블TV 대전방송, (주)한씨엔, (주)씨엠비대전방송, 그리고 (주)씨엠비동대전방송의 4개 SO의 Ch5 와 Ch12 채널의 편성시간 및 편성비율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SO의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주)한국케이블TV대전방송	CH.5	4,532	1,914	42.2
	CH.12	3,674	1,408	38.3
(주)한씨엔	CH.5	4,532	1,914	42.2
	CH.12	3,674	1,408	38.3
(주)씨엠비대전방송	CH.5	4,532	1,914	42.2
	CH.12	3,674	1,408	38.3
(주)씨엠비동대전방송	CH.5	4,532	1,914	42.2
	CH.12	3,674	1,408	38.3
한국케이블TV남인천방송(주)	CH4	2,298	2,298	100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CH.6	11,520	11,520	100

③ 대중음악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의 경우, 연간 60% 이상의 의무편성비율이 적용된다. 2009년 현재 7개 SO의 7개 직사채널이 대중음악을 편성하고 있으며, 모두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100% 방송하고 있었다.

연간 대중음악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영화 및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방송사업자별로 방송시간 측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부분 독자적인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7> SO의 연간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

방송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주)씨씨에스	CH.15	52,990	52,990	100
(주)HCN충북방송	CH.22	2,300	2,300	100
(주)씨엠비한강케이블TV	CH. 5	14,670	14,670	100
아름방송(ABN)	CH. 5	5,190	5,190	100
한국케이블TV남인천방송(주)	CH. 4	17,508	17,508	100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CH.20	68,280	68,280	100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CH. 6	15,540	15,540	100

(2) 위성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역시 SO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서로 다른 의무편성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영화의 경우, 국내제작 영화를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25% 이상 편성해야 하며, 이 때 종교전문 사업자의 경우에는 4% 이상으로 의무편성 비율이 낮아진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35%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하며, 교육전문 사업자와 종교전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8%, 4% 이상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중음악은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제작 대중음악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위성방송 사업자로는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경우 TU ENTERTAINMENT, 애니메이션은 키즈톡톡과 TU ENTERTAINMENT 뿐이며, 대중음악 분야에는 해당 사업자가 없다.

해당 사업자들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모두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두 분

야의 프로그램 모두 전년도에 비해 전체 시간대비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8> 위성방송 사업자의 연간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분야	방송사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영화	TU Sports	—	—	—
	TU Entertainment	186,137	138,421	74.4
	SkyRainbow	—	—	—
	— 레인보우HD	—	—	—
	키즈톡톡	—	—	—
애니메이션	TU Sports	—	—	—
	TU Entertainment	2,341	2,341	100
	SkyRainbow	—	—	—
	— 레인보우HD	—	—	—
	키즈톡톡	197,060	56,980	28.9

‘—’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나타낸다.

(3) PP

① 영화

PP가 준수해야 하는 국내제작 영화의 연간 의무편성비율은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25% 이상이며, 종교 전문 사업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4% 이상의 비율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 해당되는 41개 PP 모두 법정 기준을 준수하였다. 41개 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평균 44.3%로, 특히 외국 수입영화를 많이 방영하는 영화 전문채널들의 경우 전체 영화편성 시간도 많을 뿐더러,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종교 전문 채널의 경우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영화편성 시간 자체가 다른 채널에 비해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이들 채널에서 방송된 수입 영화의 총 방송시간은 다른 채널들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표 49> PP의 연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ABO	336,793	88,637	26.3
AsiaN	194,517	49,528	25.5
Catch On plus	451,052	117,025	25.9
Catch On	478,681	126,758	26.5
CGV Plus	393,261	181,781	46.2
CNTV	84,960	28,440	33.5
CTS 기독교TV	4,930	920	18.7
ETN-TV	2,580	780	30.2
goodtv	6,380	5,200	82
HD ONE	173,569	54,498	31.4
HOMEDRAMA	20,400	5,280	25.9
KCN 무협	379,960	105,481	27.8
KTV	25,466	18,019	70.8
M2	404,237	128,638	31.8
mbc life	211,725	68,600	32.4
MGM	423,034	106,844	25.3
Mplex	336,815	124,836	37.1
OCN Series	197,401	196,148	99.4
OCN	346,494	93,640	27
On Style	122,658	57,328	46.7
PBC-TV(평화방송)	7,758	1,405	18.1
SCREEN	33,099	10,473	31.6
SKY HD Movie	167,874	49,984	29.8
Story On	263,455	69,615	26.4
Super Action.	370,796	96,148	25.9
TBS TV	8,190	8,190	100
tvN(구KMTV)	33,205	13,186	39.7
TVT	173,830	69,112	39.8
XTM	331,540	102,535	30.9
Y-STAR	1,760	1,760	100
극동Art TV	9,750	4,410	45.2
동아TV	23,967	6,912	28.8
미드나잇채널	411,945	239,815	58.2
복지TV	12,690	4,300	33.8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스페이스TV	367,010	230,550	62.8
실버아이	2,760	2,760	100
실버TV	6,900	6,900	100
올리브채널	44,934	32,499	72.3
중화TV	69,720	32,640	46.8
채널 J	10,320	5,400	52.3
채널텐	44,500	11,500	25.8
채널CGV	369,373	121,641	32.9
채널CGV위성DMB	466,276	253,791	54.4
히어로 TV	396,000	99,000	25

②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과 관련하여 PP 채널들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35%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단, 종교 전문 채널사업자에게는 4% 이상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 요구된다.

분석결과 2009년 중 총 19개의 PP 채널이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다른 채널들에 비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은 대략 35~40%의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제작물의 비중이 국내제작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0> PP의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ATV	18,660	17,310	92.8
CGN TV	1,302	1,302	100
EBS English	33,908	7,685	22.7
EBS U	12,480	12,480	100
goodtv	15,080	7,100	47
JEI 재능TV	461,950	191,860	41.5
JEI English TV	158,430	75,030	47.4
NICK	359,956	128,130	35.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PBC-TV(평화방송)	133	21	15.8
복지TV	4,830	4,830	100
애니맥스	450,432	157,694	35
애니박스	383,461	137,934	36
애니원	370,438	139,219	37.6
어린이TV	380,195	320,250	84.6
육아방송	6,923	3,538	51.1
중화TV	39,960	14,010	35.1
챔프	409,850	144,725	35.3
카툰네트워크(CN)	441,901	155,722	35.3
투니버스	410,215	143,720	35.1

③ 대중음악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PP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은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60% 이상이다.

총 38개의 대상 채널 가운데 의무편성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채널은 없었으며, 일자리방송, MTV, SkyEN의 3개 채널을 제외한 35개 채널이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모두 국내제작물로 편성하였다.

<표 51> PP의 연간 국내제작 대중음악 편성비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주)씨엠씨가족오락TV	58,080	58,080	100
ATV	31,710	31,710	100
CAR TV	20,526	20,526	100
E! Entertainment TV	11,040	11,040	100
ETN-TV	39,445	39,445	100
GTV	80	80	100
HD ONE	187	187	100
INET TV	244,692	244,692	100
KBS drama	240	240	100
KBS Joy	1,930	1,930	1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KBS Prime	25,980	25,980	100
KM	511,920	511,920	100
MBCNET	65,200	65,200	100
Mnet	292,290	292,290	100
MTV	423,011	329,869	77.9
SBS드라마플러스	4,570	4,570	100
SKY HD	5,723	5,723	100
SkyEN	19,465	19,080	98
STV	18,780	18,780	100
TBS TV	12,850	12,850	100
tu request(ch35)	525,600	525,600	100
tuchart(ch50)	331,200	331,200	100
Y-STAR	21,510	21,510	100
가요TV	383,810	383,810	100
국군방송	14,103	14,103	100
리빙TV	4,025	4,025	100
리얼TV	310	310	100
복지TV	100,960	100,960	100
실버아이	125,760	125,760	100
실버TV	141,540	141,540	100
아리랑TV	43,410	43,410	100
월드이벤트TV	396,084	396,084	100
일자리방송	21,773	14,225	65.3
채널 J	5,438	5,438	100
코미디TV	3,800	3,800	100
텔레노벨라	1,084	1,084	100
한국경제TV	120	120	100
환경TV	990	990	100

4. 2009년도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및 제재 현황

이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중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결과를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종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월간, 분기별, 연간 점검 항목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표 52> 법정의무편성비율 분야별 점검 내용

구분	점검 항목
월간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분기별	외주제작물,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물,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물, 국내제작물, 1개 국가 제작물
연간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2005년 이후 주요항목 위반건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9년 역시 2008년에 비해 위반 사례수가 줄어들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비율 위반 외에 국내제작, 외주제작 관련 위반 사례도 있었으며, 영화 및 외주 제작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지도 처분도 내려졌다(행정지도 8건, 과태료 부과 12건). 이와 달리, 2009년도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위반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관련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위반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행정지도 0건, 과태료 부과 12건).

1) 영화

2009년도에 발생한 영화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은 지상파 방송사 춘천 MBC의 DMB TV 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7건이다. 위반 내용은 모두 콘텐츠의 다양성과 관련된, 1개 국가 영화 편성비율에 대한 것으로, 전체 영화편성 시간 중에서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의무편성비율인 60% 이내를 초과하여 방송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당아트(2건), 채널CGV(2건), 홈드라마, KTV 채널과 춘천 MBC의 DMB TV 방송이 위반 사례로 보고되었으며, 위반 비율의 경중 및 일년 이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었다.

<표 53> 2009년 중 영화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법인명	채널명	조사단위	위반부문	위반비율 (실제 편성비율)	처분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예당아트	2009년 1/4분기	1개 국가영화	1.2% (60.7%, 미국)	과태료 250만원
씨제이미디어(주)	채널CGV	2009년 1/4분기	1개 국가영화	9.8% (65.9%, 미국)	과태료 500만원
(주)홈티브이방송	홈드라마	2009년 1/4분기	1개 국가영화	66.7% (100%, 미국)	과태료 1,500만원
춘천MBC(주)	춘천MBC DMB	2009년 2/4분기	1개 국가영화	66.7% (100%, 미국)	과태료 500만원
한국정책방송	KTV	2009년 2/4분기	1개 국가영화	33.2% (79.9%, 미국)	과태료 450만원
씨제이미디어(주)	채널CGV	2009년 2/4분기	1개 국가영화	4.2% (62.5%, 미국)	과태료 500만원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예당아트	2009년 3/4분기	1개 국가영화	7.7% (64.6%, 미국)	과태료 625만원

2) 애니메이션

영화와 마찬가지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하여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 시간 중에서 매분기 60% 이하로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2009년에 편성비율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건으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인 애니맥스에서 4사분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규정 비율인 대비 16% 초과하여 방송하였다(69.7%). 애니맥스의 경우 같은 사례로 2009년 3월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벌금이 가중되었다.

<표 54> 2009년 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법인명	채널명	조사단위	위반부문	위반비율 (실제 편성비율)	처분
주)애니맥스브로드 캐스팅코리아	애니맥스	2009년 4/4분기	1개 국가 애니메이션	16.0% (69.6%, 일본)	과태료 1,468만 5천원

3) 주된 방송분야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매월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8년에는 주된 방송분야의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9년도에는 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여덟 차례에 걸쳐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씨제이미디어의 XTM의 경우 1, 2사분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하여 총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일자리방송, ATV의 경우도 주된 방송분야의 편성비율을 두 세차례 위반하였다. 특히 ATV는 세 차례에 걸쳐 위반한 편성비율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표 55> 2009년 중 주된 방송분야 관련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법인명	채널명	조사단위	위반비율 (실제 편성비율)	처분
씨제이미디어(주)	XTM	2009년 1/4분기	3.8% (77%, 1월)	과태료 150만원
씨제이미디어(주)	XTM	2009년 2/4분기	9.8% (72.2%, 4월)	과태료 750만원
			7% (74.4%, 5월)	
(주)늘푸른 농업방송	ATV	2009년 4/4분기	24.6% (60.3%, 10월)	과태료 1,575만원
			36.1% (51.1%, 11월)	
			50.6% (39.5%, 12월)	
(주)일자리방송	일자리방송	2009년 4/4분기	3.4% (77.3%, 10월)	과태료 300만원
			1.3% (79.0%, 11월)	

Ⅲ.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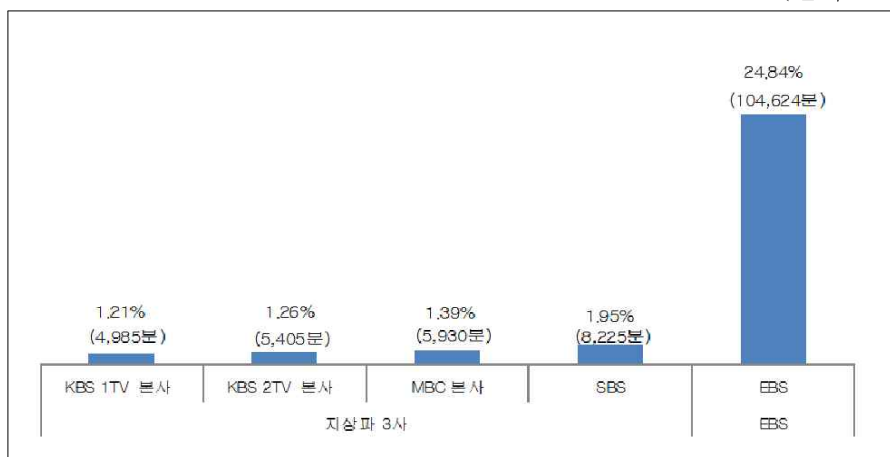
이 부분에서는 2009년도 보고서에 이어 국내 편성규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부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의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 방송사에서 방송통신 위원회로 보고하는 2009년 편성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1. 지상파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

1)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지상파 3사에서는 2009년 중 채널별로 적게는 4,985분(KBS 1TV)부터 많게는 8,225분(SBS)에 이르는 분량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SBS의 경우 KBS와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방송시간의 24.84%에 해당하는 104,624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EBS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방송인 EBS에서 연간 편성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일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4.8시간 정도에 해당한다.

[그림 57] 지상파 3사와 EBS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프로그램 타이틀수가 아닌 방송된 편수로 환산하면, 주요 지상파 3사는 2009년 중 채널별로 200~400편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구체적인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두 세편 정도 방송되는 특집 애니메이션이나 단발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30분 이하의 분량이었으며, 하루 평균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분량은 SBS가 23분으로 지상파 3사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세 채널은 15분 이하였다. 지상파 3사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7세 이상 또는 전체 대상 등급이었다.

방송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전체 편수에서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KBS1의 경우, 5분짜리 단편 프로그램이 전체 편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411편중 289편) 전체 방영 편수는 가장 많았으나, 실제 편성된 프로그램의 타이틀 수에서는 다른 채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KBS1에서 방송된 애니메이션의 편당 평균 방송시간은 약 12분, 1일 평균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역시 약 14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KBS1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들은 대체로 주중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오후 4시대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한 시간대에 30분짜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줄떠편성하고 있으나, KBS2와 MBC는 명절 또는 공휴일의 특집 편성을 제외하면 금요일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지 않았다. KBS1은 MBC, SBS와 달리 짧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매일 오전 10시대에 편성하고 있었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는 주말 아침 7~8시 대에도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다른 방송사와 다소 차별된 편성행태를 보였다.

2009년 중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 오후 6시부터 11시대의 애니메이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의 모두 주시청시간대에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시청시간대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EBS나 유료방송인 종합유선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채널, 또는 어린이 채널 등 다른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등의 등장으로 비지상파 채널을 통한 애니메이션 시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편성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전문 채널인 EBS의 경우 2009년 중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16개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타이틀을 편성하였다. 2009년 중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차지한 방송시간은 EBS 전체 애니메이션 방

송시간의 약 3.4%(14,100분)에 해당한다. 이들의 제작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4개 편성되었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가운데 유일하게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은 비키와 조니라는 1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수요일 8시대에 방송되었다.

<표 56> 지상파 3사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 비교

	KBS1	KBS2	MBC	SBS
정규편성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타이틀수	10	9	10	9
연간 방영 애니메이션 총편수 (재방 포함)	411	205	198	269
특집/단발성 프로그램수	3	6	2	2
편당 평균 방송시간(분)	12.1	26.4	29.9	30.6
1일 평균 방송시간(분)	13.7	14.8	16.2	22.6
주요 편성시간대	월~일 오전 10시대 목요일 오후 4시대	월~목 오후 4시대	월~목 오후 4시대	월~금 오후 4시대

한편, 지역 지상파 방송국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KBS와 MBC의 지역방송국과 지방계열사는 본사와 같은 분량과 비율로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어서 2009년 중 KBS 1TV 지역방송국의 경우 4,985분(1.21%), KBS 2TV 지역방송국의 경우 5,405분(1.26%), 그리고 MBC 지방계열사의 경우 5,930분(1.39%) 동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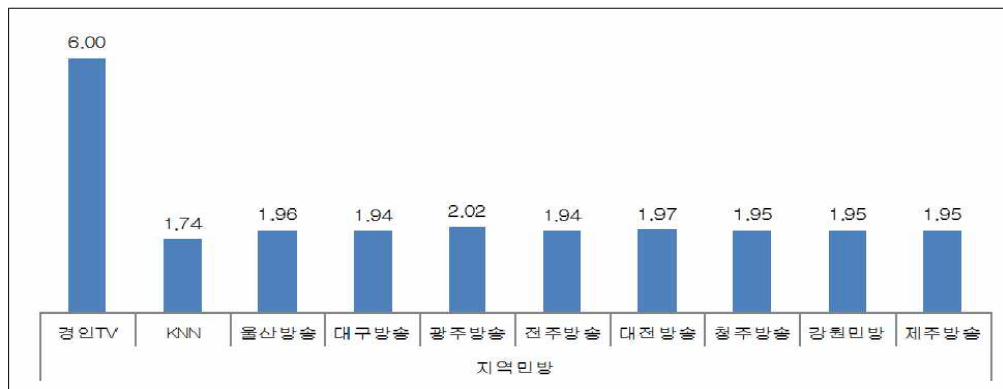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경인 TV를 제외하고 대체로 SBS의 수준과 동일하거나(8,225분) 비슷한 수준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앞서 지상파 TV 방송의 편성 현황 분석에서도 서술된 것처럼 경인 TV는 다른 지역민방과 다소 차별되는 편성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26,110분이라는 월등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일일 방송시간으로 환산하면 이는 매일 약 1시간이 조금 넘는 분량이다.

한편, 지상파 DMB TV의 경우 채널에 따라 연중 80분에서 5,930분까지 큰 편차를 보이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SBS와 지역민방의 DMB 방송이 비교적 적은 분량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가장 많이 방송한 채널은 대전과 춘천

두 지역의 MY MBC TV이다. 제주방송의 JIBS ㉔의 경우 연중 편성 시간은 80분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일 적게 방송한 사업자 가운데 하나이지만, DMB TV의 연중 방송시간 자체가 다른 채널에 비해 적어서 애니메이션의 총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다른 지상파 DMB TV의 연중 총 방송시간은 407,323~527,040분이다.

[그림 58] 지역민방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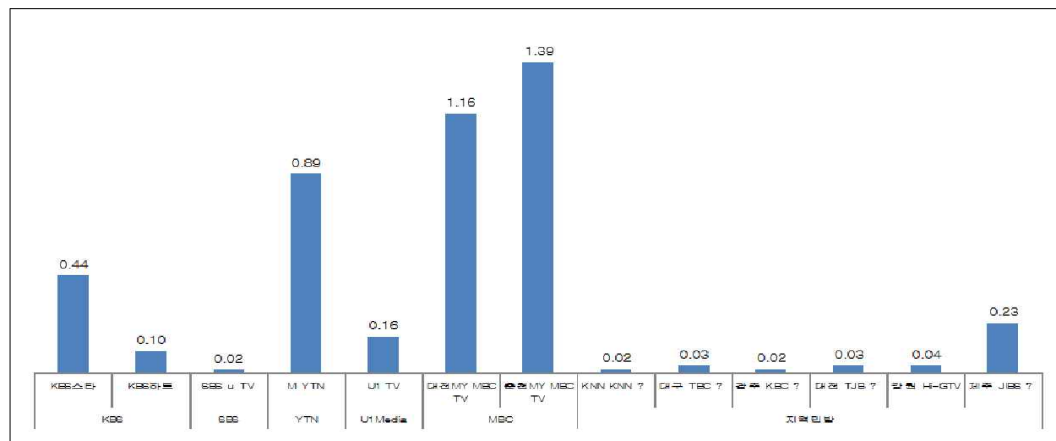
(단위: %)



MBC 본사의 MY MBC TV, SBS ㉔ TV, 한국 DMB의 세 채널(QBS, QBS플러스, MBC NET), YTN의 M YTN, U1 Media의 U1 TV, MTN DMB, 그리고 4개 지역(부산, 안동, 광주, 제주) MY MBC TV는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59] 지상파 DMB 사업자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2)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추이

방송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상파 방송사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하며, 교육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정 비율은 0.3%로 낮아진다.

2006년 이후 지상파 3사와 EBS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KBS2와 SBS 모두 2007년 이후 2008, 2009년까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EBS는 의무 편성비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0.41%(1,638분)에서 2007년 0.56%(2,249분)에서 2008년에 1.79%(7,536분)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 역시 1.76%(7,395분)을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모두 비주 시청시간대에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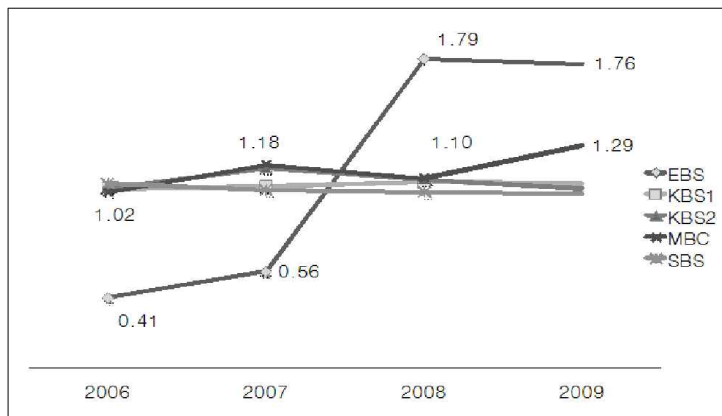
<표 57> 주요 지상파 TV의 연도별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단위: 분)

방송사	2006	2007	2008	2009
KBS1	4,314	4,395	4,457	4,400
KBS2	4,420	4,983	4,563	4,465
MBC	4,260	5,045	4,575	5,480
SBS	4,500	4,440	4,250	4,265
EBS	1,638	2,249	7,536	7,395

[그림 60] 주요 지상파 TV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추이

(단위: %)



이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 대상인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일반적인 주시청시간대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5~8시, 주말 또는 공휴일 오전 7시 30분에서 11시, 주말 또는 공휴일 오후 2~8시를 어린이 시간대로 상정하고 이 시간 중 국내 제작물 편성현황을 살펴보았다.²⁰⁾

그 결과, KBS 2TV는 5분짜리 국내 제작물 1개를 주중 오후 어린이 시간대에 10편(연중 총 50분) 편성하였으며, KBS 1TV는 주말오전과 오후 어린이 시간대에 4개의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연중 총 655분 동안 방송하였다. 재방송된 150분 분량의 국내 제작물까지 고려한다면 KBS 1TV에서는 어린이 시간대에 연중 855분을 국내 제작물의 편성에 할애한 셈이다. SBS의 경우는 2009년 중 어린이 시간대에 방송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으며, EBS의 경우 재방송을 포함하여 모두 28개의 국내 제작물이 어린이 시간대에 편성되었으나,²¹⁾ 주말오후의 어린이 시간대에는 3월에 편성된 비키와 조니의 재방송 1개 밖에 없었다.

2.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편성현황²²⁾

현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어린이 채널과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방송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채널사용사업자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송하는 9개 채널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편성 분석을 위하여 무작위로 2009년의 한 주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9년 7월 6일~12일까지의 1주일이 채택되었다. 분석 대상은 애니맥스, 애니박스, 애니원, 챔프, 카툰네트워크, 투니버스의 전문편성 애니메이션 채널 6개와 재능TV, 대교

20) 이 보고서에서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시청가능한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5~8시, 주말 또는 공휴일 오전 7시 30분에서 11시, 주말 또는 공휴일 오후 2~8시를 지칭하며,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와 다르다.

21) 다른 시즌의 프로그램, 영어판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면 EBS에서 2009년 중 어린이 시간대에 편성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타이틀 수는 15개이다. MBC의 경우는 자료의 한계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22) 보고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이라고 하면 전문편성을 행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고 있는 어린이/교육 채널도 포함하여 지칭한다.

어린이TV, NICK의 3개 어린이 채널로, 총 9채널이 포함되었다. 이들 채널은 2009년 중 적어도 약 35만분 이상의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매일 약 16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표 58>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2009년)

방송채널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JEI 재능TV	461,950	191,860	41.5
애니맥스	450,432	157,694	35
카툰네트워크(CN)	441,901	155,722	35.3
투니버스	410,215	143,720	35.1
챔프	409,850	144,725	35.3
애니박스	383,461	137,934	36
대교어린이TV	380,195	320,250	84.6
애니원	370,438	139,219	37.6
NICK	359,956	128,130	35.6

각 채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편성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각 채널마다 시청등급 및 프로그램 분류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동일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청등급 또는 프로그램 분야가 적용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채널별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시청등급을 6개로 다시 정하고(유아,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전체 대상) 편성된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재분류하였다. 서로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이한 시청등급이 적용된 경우, 보다 엄격한 시청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두 채널에서 각각 12세 이상, 15세 이상으로 분류한 경우, 분석 시에는 15세 이상으로 기입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기간 동안 9개 채널에서 방송된 전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타이틀 376개에 대한 시청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2세 이상(15세 이상, 19세 이상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아서 어린이 대상의 세 채널을 제외한 나

머지 여섯 채널들은 공식적으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아와 12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²³⁾

<표 59>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시청등급별 편성비율
(2009년 7월 6일~7월 12일)

시청등급	프로그램 타이틀수	방송시간(분)	전체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112	27,530	30.4
7세 이상	99	28,085	31.0
12세 이상	24	6,195	6.8
15세 이상	35	5,520	6.1
19세 이상	7	960	1.1
전체 대상	99	22,340	24.6
합계	376	90,630	100

프로그램 분야의 경우도 분석 대상 채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간의 협의를 거쳐 9개 채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분야를 6개로(교육/교양, 명랑/코믹, 모험/액션/스포츠, 순정/학원, 추리/미스터리, SF/메카/로봇) 재분류하여 적용시켰다.

그 결과 나타나는 9개 채널 전체의 프로그램 분야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명랑/코믹물이 절대 다수로 편성되었으며(205개, 주간 방송시간 기준 56.4%), 그 다음으로는 모험/액션/스포츠 분야가 많이 방송되었다(101개, 방송시간 기준 27.5%).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숫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 측면에서도 이 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1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 내 프로그램 장르상의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교육/교양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아니며, SF/메카/로봇 장르 프로그램 가운데 특촬물²⁴⁾을 제외한다면(8개, 2,025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특정 장르 집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23) 9개 채널에서 편성된 376개의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채널간, 또는 시즌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프로그램 타이틀 수는 이보다 적다. 중복 편성에 관한 분석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24) 특촬물이란, 특수촬영물(特殊撮影物)의 약자로, 넓은 의미로는 특수촬영기법이 사용된 모든 영상물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히어로가 함께 싸우는 전대(戰隊)물, 또는 괴수영화 같은 일부 장르에 한정된다. 또한, 이 때 특수효과는 디지털 보다는 아날로그적인 특수효과를 가리킨다.

<표 60>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분류별 편성비율
(2009년 7월 6일~7월 12일)

분야	프로그램 타이틀수	방송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교육/교양	20	4,980	5.5
명랑/코믹	205	51,155	56.4
모험/액션/스포츠	101	24,925	27.5
순정/학원	19	2,295	2.5
추리/미스터리	6	1,620	1.8
SF/메카/로봇	24	5,535	6.1
기타	1	120	0.1
합계	376	90,630	100

분석 대상 일주일동안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의 세 국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약 90%를 차지하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수로는 일본이 제일 높게 나타났지만(한국 130개, 일본 142개) 편성된 방송시간 상으로는 한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한국 32,940분, 일본 29,060분). 분석 대상 기간 동안 한·일 합작물을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전체 방송시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2개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미국 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20%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외 국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비교적 소수를 차지한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 국가 분류상의 문제로써, 여러 국가가 합작하는 경우, 또 두 국가의 합작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군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한 국가 단독 제작으로 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이 제작국가 구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국내 방송시 더빙을 하여 방송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표기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어서 애니메이션 제작 국가의 분류 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후로는 앞서 제시된 9개 채널의 편성 내역을 프로그램 장르별, 시청등급별, 그리고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표 61>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제작국가별 분포
(2009년 7월 6일~7월 12일)

제작국가	프로그램 타이틀수	방송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네덜란드	1	30	.0
대만	2	1,325	1.5
독일	1	210	0.2
미국	62	18,250	20.1
스페인	1	60	.1
영국	8	1,155	1.3
이탈리아	2	210	.2
일본	142	29,060	32.1
일본/미국	2	300	.3
중국	1	240	.3
체코	1	150	.2
캐나다	7	2,880	3.1
캐나다/룩셈부르크	1	150	.2
프랑스	4	510	.6
한국	130	32,940	36.3
한국/일본	6	580	.6
한국/프랑스	3	2,340	2.6
호주	2	240	.3
합계	376	90,630	100

1) JEI 재능TV

JEI 재능TV는 재능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로서, 재능교육에서도 이 채널 외에 영어 전문 채널인 JEI English TV도 운영하고 있다. JEI 재능 TV는 공식적으로는 교육 채널을 표방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율이 전체 방송시간의 절반 이상으로, 앞서 표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2009년에는 전문편성 애니메이션 채널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인 7월 6~12일의 일주일 동안 JEI 재능TV에서는 마루코는 아홉 살, 신기한 스쿨버스, 원피스, 톰과 제리 등을 포함하는 총 41개 프로그램을 9,990분(249편) 동안 편성하였다. 이 가운데 3개의 교육/교양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형식이 아니었다(7편, 420분). 이들을 제외하면 순수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만의 편성시간은 9,570분

으로, 주간 전체 방송시간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험/액션/프로그램(24개)과 명랑/코믹 프로그램(12개)이 양분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분야로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아닌 3개의 교육/교양 프로그램과 학원/순정물 1개, SF/메카/로봇물 1개가 있다. 방송시간 대비 편성 비율에서도 모험/액션 분야가 58%, 명랑/코믹 분야가 35%이고, 비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교육/교양물과 나머지 두 장르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주일 전체 방송시간의 7.5%에 불과하다.

<표 62> JEI 재능TV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 타이틀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교육/교양	3	420	4.2
명랑/코믹	24	5,790	58.0
모험/액션/스포츠	12	3,450	34.5
학원/순정	1	120	1.2
SF/메카/로봇	1	210	2.1
총합계	41	9,990	100

같은 기간 동안 JEI 재능TV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채널의 성격상 유아, 어린이, 학부모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또는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시청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은 전혀 방송하지 않고 있다. 12세 이상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도 1개에 불과하다. 전체 대상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의 상당수가 대부분 유아부터 시청가능한 프로그램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린이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63> JEI 재능TV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 타이틀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7	1,920	19.2
7세 이상	14	2,910	29.1
12세 이상	1	1,110	11.1
전체 대상	19	4,050	40.5
합계	41	9,990	100

JEI 재능TV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수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17개, 전체 방송시간 대비 32%) 실제 방송분량에서는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개, 전체 방송시간 대비 37%), 이 두 국가 외에 미국이 6개 프로그램의 제작국이었으며(전체 방송시간 대비 16%),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은 한 개씩 뿐이다.

<표 64> JEI 재능TV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 타이틀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독일	1	210	2.1
미국	6	1,590	15.9
영국	1	150	1.5
일본	11	3,660	36.6
중국	1	240	2.4
체코	1	150	1.5
프랑스	1	150	1.5
한국	17	3,150	31.5
한불합작	1	150	1.5
한일합작	1	540	5.4
합계	41	9,990	100

2) NICK

Nick 채널은 어린이 대상 오락 전문 채널인 미국의 Nickelodeon을 MTV Asia와 온미디어의 합작 법인인 온 뮤직 네트워크에서 2007년에 국내 법인으로 출범시키면서 방송을 시작하였다.²⁵⁾ 초기에는 온미디어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 계열 PP에서는 제외된 상태로, 씨앤엠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다. Nick에서 방영하는 대표적인 시리즈물로는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스폰지밥, 마다가스카의 펭귄 등이 있으며 국내 프로그램인 뽀롱뽀롱 뽀로로, 쿵야쿵야 등도 편성하고 있다.

25) 온미디어는 1995년 오리온의 계열사로 출발하여 여러 차례의 인수합병을 거친 뒤 2000년에 설립되었다. 온미디어는 온게임넷, OCN, 슈퍼액션, 투니버스, 온스타일, 바둑TV 등 다양한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는 국내 최대의 케이블 업체였으나 2009년 12월 24일 CJ미디어에 인수되었다.

Nick 채널은 애니메이션 외에도 코미디, 버라이어티, 게임, 교육,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표방하고 있으나, 분석 기간인 7월 6일~12일의 일주일간 방영한 전체 29개 프로그램들 가운데 4개를 제외한 25개의 프로그램이 애니메이션이었다. 방송 시간 측면에서는 전체 방송시간의 92.5%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분야별 구분을 적용하여 보면 앞서 재능TV의 경우에서처럼 명랑/코믹 분야와 모험/액션/스포츠 분야의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여 전체 방송시간 대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의 프로그램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순정/학원물은 분석 기간 동안 방송되지 않았다.

<표 65> NICK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명랑/코믹	15	6,720	66.7
모험/액션/스포츠	11	2,370	23.5
교양/교육	1	420	4.2
추리/미스터리	1	300	3.0
SF/메카/로봇	1	270	2.7
합계	29	10,080	100

Nick 채널은 공식적으로 4세에서 14까지의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닉툰/틴닉/닉주니어 등 타겟에 맞춘 편성시간대를 설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시청 등급별로 분석 기간 동안에 방송된 29개의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보면, 이러한 방침에 부합하도록 15세 이상, 19세 이상 등급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고 있어서, 채널이 설정하고 있는 시청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편성하고 있었다.

<표 66> NICK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5	2,130	21.1
7세 이상	16	5,520	54.8
12세 이상	1	330	3.3
전체 대상	7	2,100	20.8
합계	29	10,080	100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채널 성격상 미국과 캐나다 제작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19개 프로그램, 방송시간 대비 67%), 그 다음으로는 국내 제작물이 높은 비중으로 편성되고 있다(6개 프로그램, 28%). 분석 기간 동안 다른 채널과 달리, 일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역시 영어권인 호주 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유럽 국가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제작 프로그램이 1개씩 방송되었다.

<표 67> NICK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미국	16	4,500	44.6
스페인	1	60	.6
캐나다	3	2,280	22.6
프랑스	1	120	1.2
한국	6	2,865	28.4
한불합작	1	75	.7
호주	1	180	1.8
합계	29	10,080	100

3) 대교 어린이TV

대교 어린이TV는 대교그룹의 (주)대교어린이TV가 운영하는 어린이 대상 채널이다. 본래 1993년에 (주)대교방송으로 설립되어 1995년 3월부터 본방송을 개시하였으며, 1997년 9월에 (주)대교로 흡수 합병되었다. 대교 어린이TV에서 방송하는 대표적인 시리즈물로는 초성함대 세이저X, 메타제트. 보거스는 내친구, 듀얼 레전드, 유희왕 등이 있으며 국내 제작 프로그램인 내친구 우비소년, 뽀롱뽀롱 뽀로로 등이 있다.

분석 기간 1주일 동안 모두 39개의 프로그램이 10,080분에 걸쳐 방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촬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애니메이션은 모두 37개 프로그램(289편)으로, 전체 방송시간 대비 89%의 비율을 차지한다.

2009년 7월 6일~12일의 일주일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명랑/코믹 프로그램이 21개로, 방송시간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교양 프로그램이 39%, 모험/액션 프로그램이 7% 정도의 비율로 편성되었다. 대교 어린이TV는 분석

의 대상이 된 나머지 채널과는 달리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비교적 많이 편성하여 해당 주간에 14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특징이 있으며 순정/학원물과 추리/미스터리물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표 68> 대교 어린이TV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교육/교양	14	3,915	38.8
명랑/코믹	21	4,275	42.4
모험/액션/스포츠	2	795	7.9
SF/메카/로봇	2	1,095	10.9
합계	39	10,080	100

대교 어린이TV는 주시청층이 어린이와 학부모이며, 분석 기간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19세 이상 등급이 없어서 시청등급의 측면에서는 타겟 시청층에 비교적 충실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대상으로 분류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유아 또는 7세 이상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유아 또는 7세 이상 프로그램의 비율이 실제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표 69> 대교 어린이TV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8	2,225	22.1
7세 이상	7	2,230	22.1
12세 이상	1	555	5.5
전체 대상	23	5,070	50.3
합계	39	10,080	100

대교 어린이 TV에서 일주일동안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분석 기간동안 방송된 39개 프로그램 가운데 29개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방송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체 방송시간의 약 7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다음으로는 역시 일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5개로 많았으며(약 19%), 다른 국가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한불 합작과 한일 합작 프로그램이 1개씩 있었다.

<표 70> 대교 어린이TV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네덜란드	1	30	0.3
대만	1	575	5.7
영국	1	105	1.0
일본	5	1,945	19.3
한국	29	7,010	69.5
한불합작	1	355	3.5
호주	1	60	0.6
합계	39	10,080	100

4) 애니맥스

애니맥스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과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 인터내셔널이 합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다. 2006년 4월에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국내 방송을 시작한 이후, IPTV(KT의 쿡TV, SK 브로드밴드의 BTB),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남미에서 방송되고 있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채널로, 개국초기에는 기존 애니메이션의 재방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이후 일본계 회사 소유라는 특징을 살려 기간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 부분을 독점 방영하는 한편, 인기 프로그램의 방영권을 선점하고 있으며, 다른 채널에서 방영권이 만료된 인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편성하고 있다.

분석 기간 동안 애니맥스에서는 40개(217편)의 프로그램을 10,080분 동안 방송하였으며, 이전에 소개된 채널과 달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100% 방영하였다. 대표적인 시리즈물로는 공룡킹 어드벤처, 슈팅 바쿠간, 스포츠 판다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분야별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모험/액션/스포츠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방송되었고(20개, 방송시간 대비 57%), 그 다음으로는 명랑/코믹(11개, 31%)프로그램이 주로 방송되었다. 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12.5% 정도이며, 분석 기간 동안 교육/교양 프로그램은 한 편도 없었다.

<표 71> 애니맥스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명랑/코믹	11	3,110	30.9
모험/액션/스포츠	20	5,710	56.6
순정/학원	3	270	2.7
추리/미스터리	2	480	4.8
SF/메카	3	390	3.8
기타	1	120	1.2
합계	40	10,080	100

애니맥스는 유아와 어린이 뿐만 아니라 20대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애니메이션 방송을 표방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 애프터스쿨, 맥스 파워, 맥스 매니아로 나누어 대상층을 달리하여 편성하고 있다. 그 결과, 애니맥스에서는 분석 기간 동안 앞서 소개된 다른 채널과 달리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의 프로그램이 17개나 방송되었으며 이 세 등급의 프로그램들이 차지하는 시간은 주간 방송시간 대비 약 35% 정도였다. 앞서 소개된 채널과 달리 유아 등급의 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40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시청등급은 7세 이상으로, 11개의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시간 대비 41%의 비율로 방송되었다.

<표 72> 애니맥스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4	740	7.3
7세 이상	11	4,120	40.9
12세 이상	5	1,230	12.2
15세 이상	11	1,890	18.8
19세 이상	1	390	3.9
전체 대상	8	1,710	17.0
합계	40	10,080	100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채널의 성격상 일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방송되었다. 일주일간 방송된 프로그램 40개 가운데 일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23개로, 방송시간으로 환산하면 5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일본 다음으

로는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10개로, 주간 방송시간 대비 22%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도 소수 방송되었다.

<표 73> 애니맥스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대만	1	750	7.4
미국	2	690	6.8
일본	23	5,710	56.6
캐나다	2	420	4.2
캐나다/룩셈부르트	1	150	1.5
한국	10	2,210	21.9
한일합작	1	150	1.5
합계	40	10,080	100

5) 애니박스

애니박스는 대원미디어에서 운영하는 OVA²⁶⁾ 및 극장판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2006년 8월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한 후 2006년 9월 개국했다. 현재 위성방송 및 일부 케이블TV에서 방송 중이며 2007년부터는 위성 DMB방송인 TU에서도 24시간 방송을 송출중이다. 애니박스의 대표 시리즈물로는 홍길동 어드벤처, 이누야샤, 가면라이더, 짱구는 못말려, 파워레인저, 태극천자문 등이 있다.

분석 기간중 방송된 47개의 프로그램 중 순수 애니메이션은 44개로, 일주일 채널편성시간 10,080분 중 96.7%에 해당하는 9,750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방송된 비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3개의 모험/액션/스포츠 분야의 특촬물로, 전체 방송시간의 3.3% (3300분) 정도 편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험/액션/스포츠 프로그램이 47개 중 18개를 차지하며 프로그램 숫자 면에서는 가장 많았으나, 방송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체 방송시간의 52%를 차지한 명랑/코믹 프로그램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6) OVA란 Original Video Animation의 약자로, 원작(만화, 소설, 고전 등)을 극장판과 달리 판매를 목적으로 VHS나 DVD용으로 만들어 제작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TV에서 방영되기도 한다. TV용 애니메이션보다 시간과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OVA로 출시되는 애니메이션은 TV용보다 길고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많다.

교육/교양 프로그램과 추리/미스터리 프로그램은 분석 기간중 방송되지 않았다.

<표 74> 애니박스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명량/코믹	15	5,190	51.5
모험/액션/스포츠	18	2,280	22.6
순정/학원	7	570	5.7
SF/메카/로봇	7	2,040	20.3
합계	47	10,080	100

애니박스는 원래 영화 채널을 표방했기 때문에 TV 시리즈보다는 극장판이나 OVA 위주로 편성하고 있으며, 주시청층도 청소년 이상으로 삼았다. 실제로, 분석 기간 중 편성된 프로그램들의 시청등급을 살펴보면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의 세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20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23.8% 해당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가장 비율이 높은 시청등급은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서(21개 프로그램, 주간 방송시간의 60% 이상), 채널의 특성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75> 애니박스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21	6,060	60.1
7세 이상	5	1,230	12.2
12세 이상	4	660	6.5
15세 이상	10	1,170	11.6
19세 이상	6	570	5.7
전체 대상	1	390	3.9
합계	47	10,080	100

한편, 분석 기간 중 애니박스에서 방송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이 28개 프로그램의 제작국으로 전체 방송시간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6개가 22%의 방송 시간 동안에 편성되었다. 한일합작까지 고려한다면 일본 제작물의 비중이 더 높아지며, 이에 반해 국내 제작은 1개, 방송 시간대비 1.5%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들에서 제작된 프로그

램은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 국가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표 76> 애니박스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미국	6	2,190	21.7
영국	2	300	3.0
일본	28	3,690	36.6
한국	1	150	1.5
한일합작	10	3,750	37.2
합계	47	10,080	100

6) 애니원

애니원(ANIONE)은 애니박스와 함께 대원미디어 계열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다. 2002년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을 개시하였으며, 대원미디어에서 배급하는 애니메이션을 독점으로 방송하고 있다. 2006년 대원미디어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CJ 계열의 챔프 TV 채널이 생기면서 매니아 전용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대상의 챔프와 크게 차별되지 않고 있으며,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애니박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다. 2004년에는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애니원이 송출되었으나, 챔프 TV의 신설 이후 2005년 중반부터 스카이라이프와 IPTV에서만 송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리즈물로는 도라에몽, 뚜바뚜바 눈보리, 이누야샤 등이 있다.

분석 기간 동안 애니원에서는 총 36개의 프로그램들이 10,080분에 걸쳐 방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촬물을 제외한 순수 애니메이션은 34개로, 방송시간 대비 약 95%의 비율(9,600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명랑/코믹물이 가장 많았으며(23개, 방송시간 대비 63%), 그 다음으로는 모험/액션 프로그램이 상당한 비중으로 방송되었다(7개, 방송시간 대비 27%). 교육/교양과 순정/학원물 1편씩을 제외하고 추리/미스터리물은 편성되지 않았다.

<표 77> 애니원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교육/교양	1	150	1.5
명랑/코믹	23	6,300	62.5
모험/액션/스포츠	7	2,670	26.5
순정/학원	1	90	.9
SF/메카/로봇	4	870	8.7
합계	36	10,080	100

해당 기간에 편성된 프로그램들의 시청등급을 살펴보면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급의 프로그램이 5개 방송되었다. 이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9.3%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시청 등급은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체 36개 가운데 16개가 해당된다. 방송시간으로 환산하면 55%의 프로그램이 이 등급에 속한다. 전체 등급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유아들이 시청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8> 애니원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16	5,580	55.4
7세 이상	7	1,410	14.0
12세 이상	1	330	3.3
15세 이상	4	600	6.0
전체 대상	8	2,160	21.4
합계	36	10,080	100

애니원에서 분석 기간동안 편성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역시 일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아서 전체 36개 프로그램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19개의 프로그램이 주간 방송시간 대비 45%(4,530분)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그 다음으로 많아서 모두 11개의 프로그램이 3,030분에 걸쳐 방송되었다. 이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30%의 비율이다. 두 국가 외에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4개, 미일합작, 한일합작물이 2개 방송되었다.

<표 79> 애니원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미국	3	1,260	12.5
영국	1	270	2.7
일본	19	4,530	44.9
미일합작	1	150	1.5
한국	11	3,030	30.1
한일합작	1	840	8.3
합계	36	10,080	100

7) 챔프

챔프 TV(CHAMP TV)는 애니원이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방송할 수 있게 되자 설립된 CJ 미디어 산하의 케이블TV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다. 운영은 CJ미디어에서 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수급은 대원미디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애니원/애니박스 프로그램이 챔프 TV를 통해서도 방영된다. 단, 챔프 TV측의 자체 결정에 따라 일부 작품은 방송되지 않거나 투니버스 등으로 케이블TV 판권이 넘어가기도 한다. 챔프 TV에서 방송된 대표적인 시리즈물로는 도라에몽, 못말리는 3공주, 짜장소녀 뿌까 등이 있으며 이중 못말리는 3공주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720분이 방송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총 55개(215편)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SF/메카/로봇 분야의 특촬물 1개를 제외한 54개가 순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분석기간 일주 동안 전체 편성시간의 99%에 달하는 9,960분을 차지하였다.

<표 80> 챔프TV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명랑/코믹	37	7,480	74.2
모험/액션/스포츠	10	1,820	18.1
순정/학원	3	240	2.4
SF/메카/로봇	5	540	5.4
합계	55	10,080	100

일주일동안 편성된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명랑/코믹 프로그램이 주간

방송시간 대비 74%에 달하는 7,480분 동안 방송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모험/액션/스포츠 분야의 프로그램이 1,820분 동안(18%) 방송되었다. 이 두 분야 프로그램들은 주간 총 방송시간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로는 SF/메카/로봇과 순정/학원물이 약 8%를 차지하여 프로그램 분야가 상대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프로그램들의 시청등급을 살펴보면 챔프 TV의 경우 전체 대상은 3개(7%)에 불과하며, 40개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주간 방송시간의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대상 프로그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전체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세 이상 등급의 프로그램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12세 이상,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약 10% 정도 편성하고 있었다.

<표 81> 챔프TV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유아	40	7,450	73.9
7세 이상	7	990	9.8
12세 이상	1	120	1.2
15세 이상	4	840	8.3
전체 대상	3	680	6.7
합계	55	10,080	100

챔프 TV에서 분석 기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과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주간 방송시간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숫자로는 일본이

<표 82> 챔프TV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미국	7	1,020	10.1
영국	1	150	1.5
이탈리아	1	90	.9
일본	24	4,110	40.8
프랑스	1	120	1.2
한국	20	4,290	42.6
한일합작	1	300	3.0
합계	55	10,080	100

가장 높았으나 실제 방송시간으로 환산하면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국내 제작물 약 43%, 일본 제작물 약 41%).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시간 대비 1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다.

8) 카툰 네트워크(CN)

카툰 네트워크(CN:Cartoon Network)는 미국의 터너사에서 설립한 애니메이션 전문 TV 방송국으로, 전세계적으로 20여개 국가 또는 권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11월 중앙일보의 방송법인인 중앙방송이 CN과 사업 파트너를 맺은 뒤 국내 법인으로써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채널 방송 사업자로 설립되었다.

이 채널에서 주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터너사에서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각국의 사정에 맞춰 제작한 현지 애니메이션, 혹은 일본에서 판권을 가져온 작품들이다. CN 한국 지사의 설립 이전에는 투니버스에서 시간대를 할애하여 CN의 일부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기도 했으나, 지나친 프로그램 재방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고, 2006년에 독자 채널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 채널에서 방송되는 대표적인 시리즈물로는 키테레츠 대백과, 톰과 제리, 파워퍼프걸, 뽀롱뽀롱 뽀로로 등이 있다.

<표 83> CN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교육/교양	1	75	0.7
명랑/코믹	24	4,670	46.3
모험/액션/스포츠	11	4,540	45.0
순정/학원	2	675	6.7
SF/메카/로봇	1	120	1.2
합계	39	10,080	100

분석 대상 일주일 동안 카툰 네트워크에서는 39개(265편)의 프로그램이 10,080분 동안 방송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특촬물이나 비애니메이션 교육/교양물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분야로 살펴본 카툰 네트워크의 편성 형태는 명랑/코믹물과 모험/액션/스포츠물이 양분하는 구도로, 두 분야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간 방송시

간 전체의 91%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 외로는 순정/학원물이 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추리/미스터리물은 편성되지 않았다.

시청 대상 등급을 살펴보면, 7세 이상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도 약 31%의 방송시간을 차지한다. 15세 이상은 1개 프로그램이 90분 동안 편성된 것이 유일하며 19세 이상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전체 대상이 비교적 어린 시청자들까지 시청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 84> CN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대비 편성비율(%)
유아	4	465	4.6
7세 이상	19	6,450	64.0
15세 이상	1	90	0.9
전체 대상	15	3,075	30.5
합계	39	10,080	100

분석 기간동안 CN에서 방송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앞서 제시된 채널들과는 달리 채널 성격상 미국 제작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주일동안 방송된 39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14개가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주간 방송시간의 4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제작물이 12개 편성되어 방송 시간 상으로는 32%를 차

<표 85> CN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미국	14	4,540	45.0
영국	1	120	1.2
이탈리아	1	120	1.2
일본	7	1,380	13.7
캐나다	1	60	0.6
프랑스	1	120	1.2
한국	12	3,230	32.0
한일합작	2	510	5.1
합계	37	9,570	94.9

지하고 있다. 방송편수를 보았을 때 국내 제작물이 127편, 미국 제작물이 71편으로, 국내 제작물이 가장 빈번하게 편성되었으나 전체 방송시간으로는 미국 제작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 제작물은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의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도 7개가 1,330분 동안 방송되었으며 (방송시간 대비 13.7%), 그 외 국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소수를 차지한다.

9) 투니버스

투니버스(Tooniverse)는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 전문 편성을 표방한 케이블 채널이다. 1995년 12월에 정식으로 방송이 시작되었고 케이블 TV 시청점유율 순위에서도 꾸준히 5위 이내에 들었던 온미디어의 주력 채널이었다. 투니버스를 방송하던 (주)투니버스(또는 (주)오리온카툰네트워크)는 온미디어의 브랜드로 변경했으며 온미디어는 2009년 12월 CJ미디어에 인수되었다. 챔프는 다양한 인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청률 역시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분석 기간 중 방송된 대표적 시리즈물로 자니 테스트, 아기공룡 둘리, 개구리 중사 케로로 등이 있다.

분석 기간 중 투니버스에서는 50개(178편)의 프로그램이 10,080분에 걸쳐 방송되었으며, 예외없이 모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명랑/코믹물이 35개로 주간 방송시간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모험/액션/스포츠물이 많이 방송되었다. 투니버스에서는 다른 채널에서 흔하지 않은 순정/학원물도 약 3% 정도 편성되었으며 명탐정 코난을 포함하는 추리/미스터리물도 8% 정도 방송되었으나, SF/로봇/메카물은 분석 기간 동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표 86> 투니버스 편성 프로그램의 분야별 분포

분야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명랑/코믹	35	7,620	75.6
모험/액션/스포츠	10	1,290	12.8
순정/학원	2	330	3.3
추리/미스터리	3	840	8.3
합계	50	10,080	100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통해 투니버스의 타겟 시청층을 살펴보면, 비록 19

세 이상 프로그램은 없으나 12세 이상, 15세 이상까지 상당한 비중으로 편성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 기간 동안 12세 이상, 15세 이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로는 15개, 방송시간으로는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87> 투니버스 편성 프로그램의 시청등급별 분포

시청등급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대비 편성비율(%)
유아	7	960	9.5
7세 이상	13	3,225	32.0
12세 이상	10	1,860	18.5
15세 이상	5	930	9.2
전체 대상	15	3,105	30.8
합계	50	10,080	100

투니버스에서 분석 기간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들의 제작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개 가운데 일본이 25개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방송시간 대비 40%), 다음으로는 한국(15개, 34%), 미국(8개, 24%)의 순서이다.

<표 88> 투니버스 편성 프로그램의 제작국가별 분포

제작국가	프로그램수	편성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미국	8	2,460	24.4
영국	1	60	0.6
일본	25	4,035	40.0
캐나다	1	120	1.2
한국	15	3,405	33.8
합계	50	10,080	100

10) 프로그램 중복편성 현황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들이 흔히 받는 비난 중의 하나는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요일에 같은 채널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채널에서 중복 편성한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인 9개 채널의 주간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시즌, 또는 극장판과 OVA, 텔레비전용이라는 미묘한 버전 차이를 가

지고 같은 채널내는 물론 여러 채널에 걸쳐서 중복편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입 애니메이션 중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인 도라에몽은 시즌 7까지의 TV용 프로그램은 물론, 이와 별도로 극장판, 또는 신도라에몽이라는 타이틀로 분석 기간 동안 두 채널에서 11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국내 제작물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우는 카툰 네트워크를 제외한 8개 채널에서 시즌 1, 2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으며 재능TV에서는 영어판까지 편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버전 차이를 이용한 중복편성의 경우의 수는 2부터 11까지 있었으며, 버전차를 이용한 중복편성에 의한 방송시간은 9개 채널 전체 방송시간 대비 약 31%의 (28,455분) 분량에 이르고 있었다.

<표 89>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버전차이 중복편성 현황

버전차이 중복편성 경우의 수	중복된 방송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중복편성 비율(%)
2	13,665	15.1
3	4,385	4.8
4	4,345	4.8
6	1,230	1.4
7	1,860	2.1
11	2,970	3.3
합계	28,455	31.5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버전별 차이는 있되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이 여러 채널에서 방송되는 채널간 중복편성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많게는 8채널에 걸쳐 중복 편성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국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우 분석 기간 일주일 동안 카툰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채널 모두에서 편성되고 있었다. 이처럼 2개 이상의 채널에 걸쳐 중복편성 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총 방송시간은 9개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비 약 51%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중복편성 관행은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는 채널들이 소수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편성 관행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채널간 프로그램 다양성의 문제를 재고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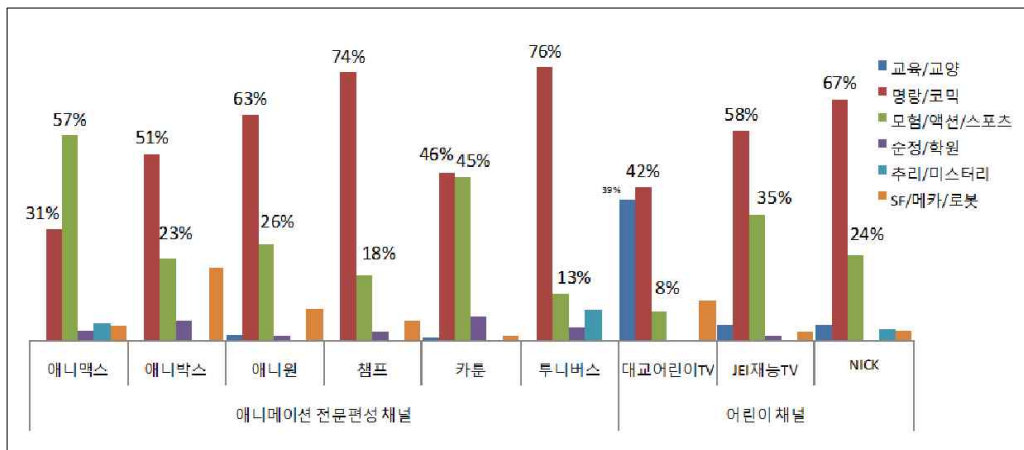
<표 90>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채널간 중복편성 현황

채널간 중복편성 경우의 수	중복된 방송시간(분)	방송시간 대비 중복편성 비율(%)
2	14,390	15.9
3	14,210	15.7
4	8,455	9.3
5	3,460	3.8
6	1,860	2.1
8	3,415	3.8
합계	45,790	50.6

11) 채널간 비교 및 국내 제작물 편성 시간대 분석

분석 대상이 된 9개 채널은 편성 특성상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채널과 어린이 대상 채널로 나눌 수 있지만, 채널별로 편성 행태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또는 어린이 대상 채널의 특성을 뚜렷이 구분하여 특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NICK 채널의 경우 어린이 채널로, 비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을 일부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시청 대상 등급이나 프로그램 분야의 측면에서 애니메이션 전문 편성 채널과 흡사한 편성 형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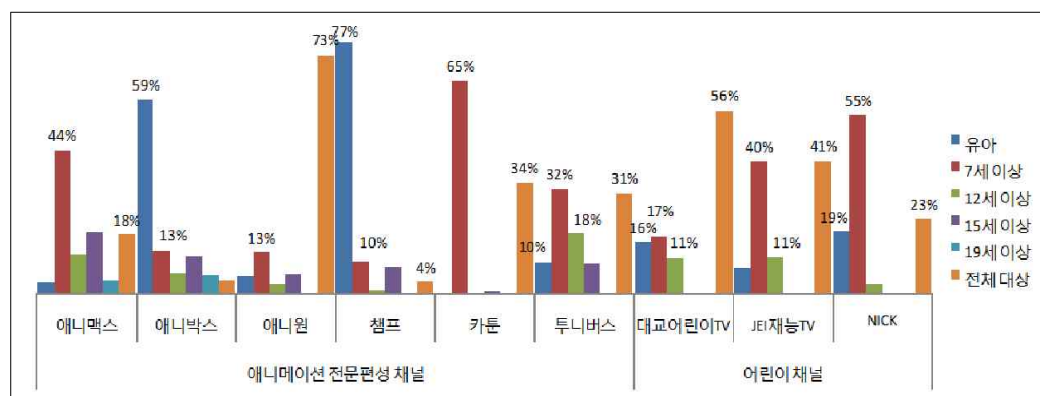
[그림 61]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분야 분포 비교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 채널들은 대체로 교양/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모험/액션/스포츠물과 명랑/코믹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어린이 채널인 대교 어린이TV는 앞의 두 채널에서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교육/교양물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방송되고 있어서 독자적인 편성 형태가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으나, JEI 재능TV의 경우 교육/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당히 낮고, 명랑/코믹 및 모험/액션/스포츠 물의 비중이 높아서 외견상으로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는 NICK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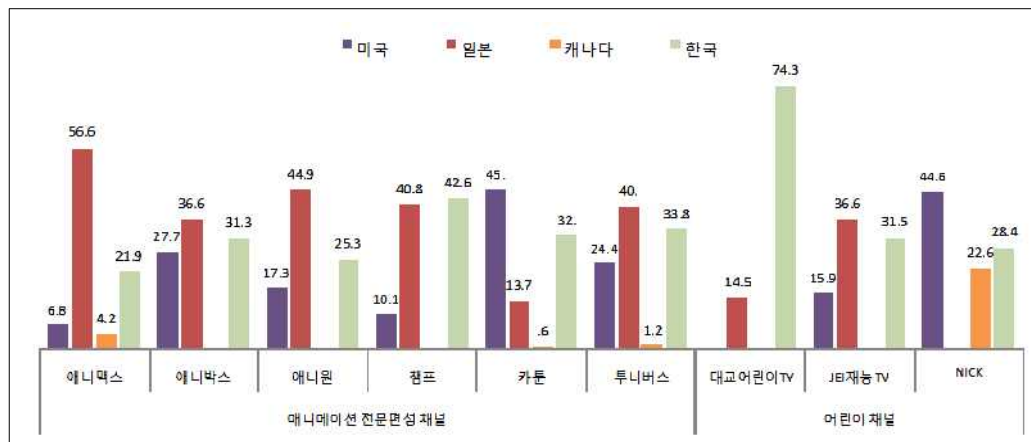
시청 대상 등급 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애니맥스와 챔프가 유아나 7세 이상 대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 채널인 대교 어린이 TV의 경우 오히려 유아보다는 전체 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유아가 시청가능한 프로그램의 일부도 전체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JEI 재능TV 역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7세 이상과 전체 대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어린이 채널의 경우 15세 이상과 19세 이상의 프로그램은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2]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시청 대상 등급 분포 비교



한편, 프로그램의 제작 국가별 분포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제작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채널인 대교 어린이 TV가 가장 높은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을 보인다. 애니메이션 채널의 경우 많은 채널에서 전반적으로 일본 제작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채널 특성상 NICK과 카툰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63]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의 제작 국가 분포 비교



앞서 지상파 3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 분석에서 주시청시간대에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연중 전혀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들의 경우 채널 특성상 당연히 주시청시간대에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 일주일동안 5시 이후부터 주시청시간대를 포함하는 7시~10시 대에는 오히려 가장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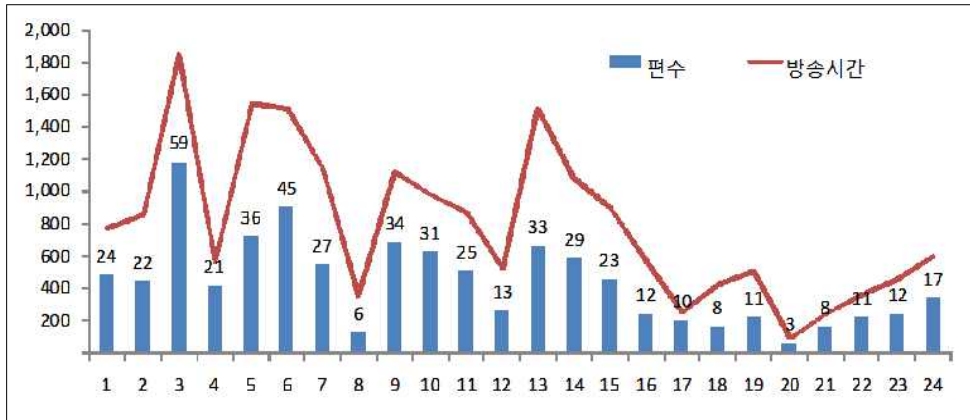
분석 기간동안 9개 애니메이션 주편성 채널에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을 시간대 별로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어린이들의 시청이 거의 불가능한 새벽 3시대, 5~6시대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이 편성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 1시대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주중오전), 평일 오후 5~8시(주중오후), 주말/공휴일 오전 7시 30분~11시(주말오전), 주말/공휴일 오후 2~8시(주말오후)를 기준으로 9개 채널의 국내 제작물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주중 오전 어린이 시간대에는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30% 정도가 국내 제작물인 반면, 주중 오후 어린이 시간대에는 국내 제작물의 비율이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주말 오전 어린이 시간대에는 국내 제작물이 해당 시간대 전체 방송시간의 16%에 불과하며, 주말 오후 어린이 시간대 역시 21% 정도에 해당하여, 일본 제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주말 오후 어린이 시간대에 편성된 일본 제작물의 비중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50%에 달하고 있었으며, 주중 오후 어린이 시간대에는 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일본 제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64]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 시간대별 분포

(단위: 분)



채널별로 국내 제작물의 어린이 시간대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채널의 경우 애니맥스, 챔프, 카툰 네트워크, 투니버스의 4개 채널에서는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애니원과 애니박스에서는 동시간대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표 91> 어린이 시청시간대 국내 제작물 편성현황

(단위: 분)

	애니맥스	챔프	카툰 네트워크	투니버스	대교 어린이TV	JEI 재능TV	NICK
주중오전 (평일 7시~9시)	185		120	240	165	150	150
주중오후 (평일 17~20시)		240	120	210	180		
주말오전 (주말/공휴일 7시30분~11시)	120			165	240		
주말오후 (주말/공휴일 14시~20시)	120	180			270		
채널별 주간 방송시간 대비 편성비율	4.2%	4.2%	2.4%	6.1%	8.5%	1.5%	1.5%

어린이 채널로 분류된 대교어린이TV는 한·불 합작물까지 포함시키면 주간 전체 방송시간의 9%에 해당하는 분량의 국내 제작물을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하고 있었으나 JEI 재능TV나 NICK의 경우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채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제작물을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편성하고 있었다.

부록 I . 애니메이션 이용행태 조사

이 부분에서는 201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중 어린이·청소년의 애니메이션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1. 애니메이션 이용행태 관련 설문문항

<면접원: 다음 페이지는 문25번에서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설문을 진행해 주세요.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가구 설문 종료>

문 27. 가정에서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애니메이션(만화)을 시청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무엇입니까?

① 지상파TV(KBS, MBC, SBS, EBS) ② 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애니박스 등)

☞ 면접원: 문28번을 응답하기 전에 자녀의 연령을 적어주세요.

문 28. 가정에서 어린이가 애니메이션(만화)을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복수응답)

[평일]

정오														자정						
자녀 연령	오 전						오 후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6:59	7:59	8:59	9:59	10:59	11:59	12:59	1:59	2:59	3:59	4:59	5:59	6:59	7:59	8:59	9:59	10:59	11:59		
() 세																				
() 세																				
() 세																				

[주말: 토·일·공휴일]

정오

자정

	오 전						오 후											
자녀 연령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6:59	7:59	8:59	9:59	10:59	11:59	12:59	1:59	2:59	3:59	4:59	5:59	6:59	7:59	8:59	9:59	10:59	11:59
() 세																		
() 세																		
() 세																		

문 29. 만약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지상파TV에서 방영한다면, 가정에서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평일]

정오

자정

	오 전						오 후											
자녀 연령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6:59	7:59	8:59	9:59	10:59	11:59	12:59	1:59	2:59	3:59	4:59	5:59	6:59	7:59	8:59	9:59	10:59	11:59
() 세																		
() 세																		
() 세																		

[주말: 토·일·공휴일]

정오

자정

	오 전						오 후											
자녀 연령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6:59	7:59	8:59	9:59	10:59	11:59	12:59	1:59	2:59	3:59	4:59	5:59	6:59	7:59	8:59	9:59	10:59	11:59
() 세																		
() 세																		
() 세																		

2. 애니메이션 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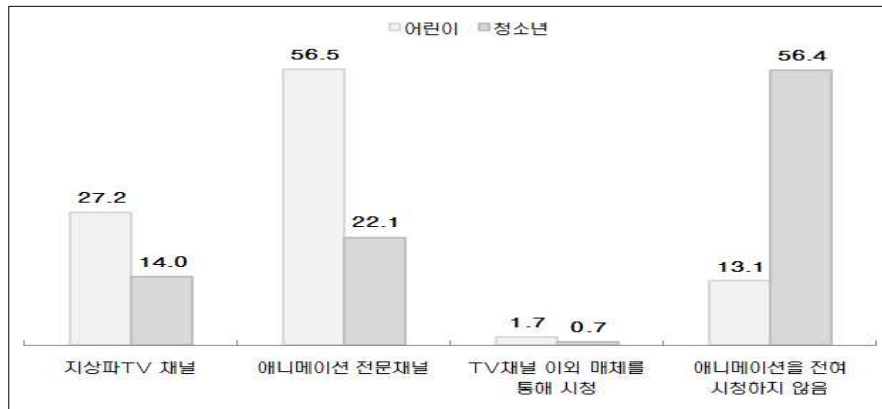
7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²⁷⁾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들의 애니메이션 시청행태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자녀들이 애니메이션을 주로 시청하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의

27) 어린이: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애니메이션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5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부록 그림 1-1] 자녀의 애니메이션 주 시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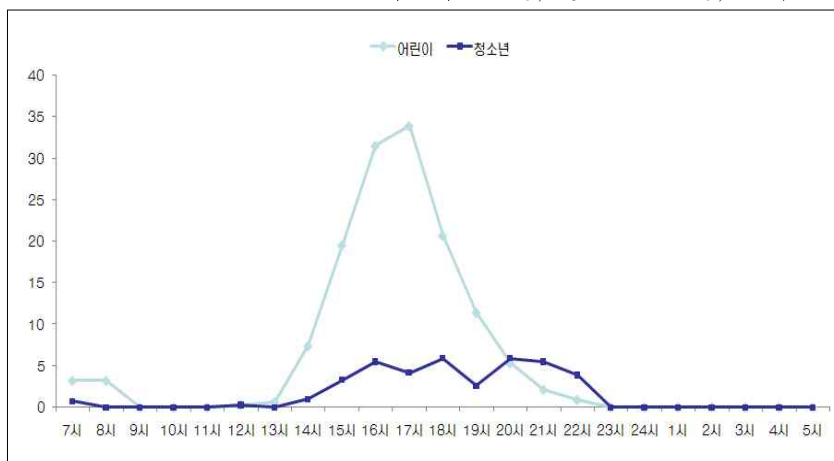
(N=만 7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 973명, 단위: %)



주중 애니메이션 시청 시간대를 살펴보면 어린이는 17시~19시에 20% 이상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저녁 시간에 상대적으로 시청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시간대 별 시청 비율이 5%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주말 시청의 경우에는 주중에 비해 어린이의 9시~11시 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17시~19시의 시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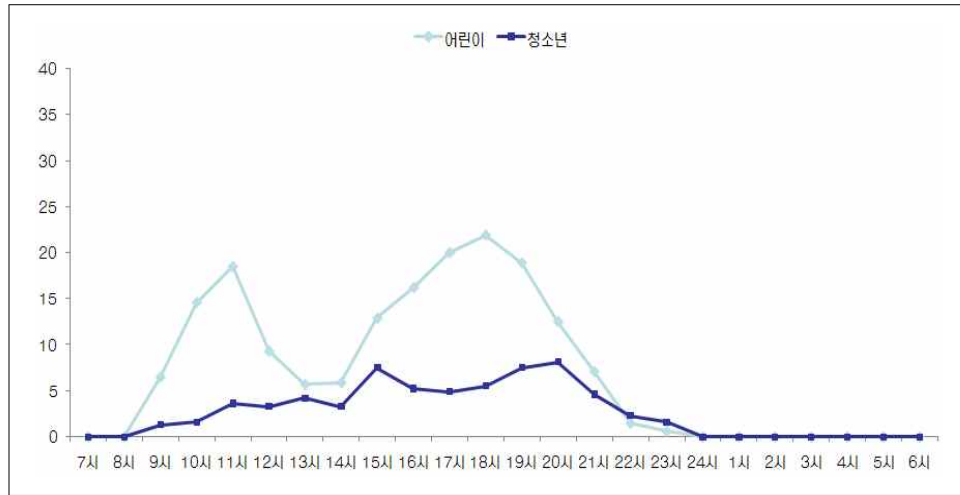
[부록 그림 1-2] 애니메이션 주 시청 시간대(주중)

(N=어린이 666명, 청소년 307명, 단위: %)



[부록 그림 1-3] 애니메이션 주 시청 시간대(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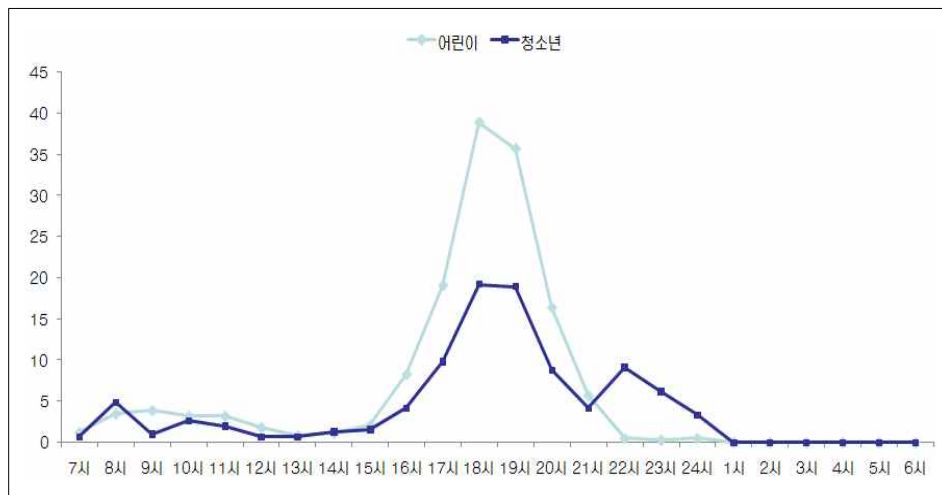
(N=어린이 666명, 청소년 307명, 단위: %)



자녀의 희망 시청 시간대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살펴보면, 주중의 경우에는 17시~19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정도로 가장 높다.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어린이에 비해 22시~23시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주말 희망 시청 시간대는 어린이는 주중에 비해 10시~11시의 비율이 높고, 16시~18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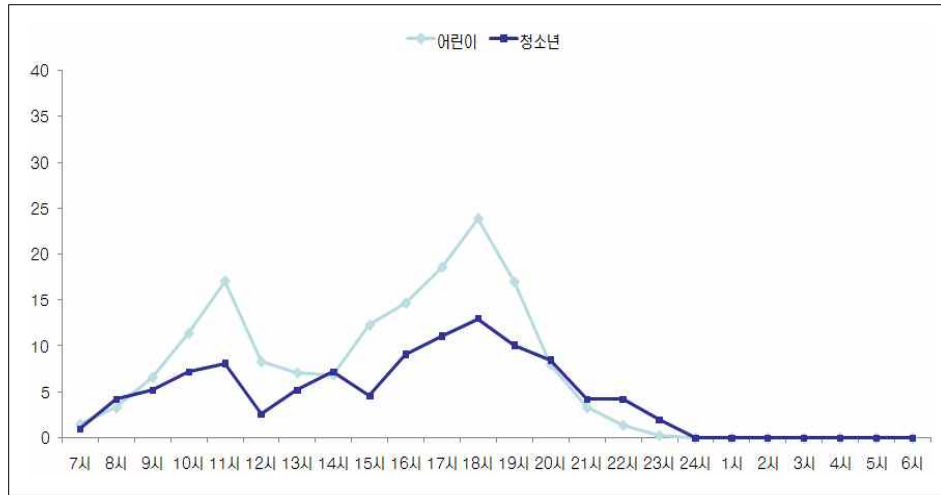
[부록 그림 1-4] 애니메이션 희망 시청 시간대(주중)

(N=어린이 666명, 청소년 307명, 단위: %)



[부록 그림 1-5] 애니메이션 희망 시청 시간대(주말)

(N=어린이 666명, 청소년 307명, 단위: %)



3. 애니메이션 이용행태 조사결과표

<부록 표 1-1>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문 27]

(단위: %)

	사례수 (명)	지상파 TV채널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TV채널 이외 매체를 통해 시청	애니메이션을 전혀 시청 하지 않음	무응답	계
전체	(949)	22.9	45.4	1.3	27.2	3.3	100
어린이 (7세~12세)	(660)	27.1	56.4	1.7	13.2	1.7	100
청소년 (13세~18세)	(289)	13.1	20.4	0.3	59.2	6.9	100

<부록 표 1-2> 애니메이션 주 시청 시간대(주중) [문 28]

(단위: %)

	7~ 8시	8~ 9시	12~ 13시	13~ 14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시청 안함	계
■ 전 체 ■	2.4	2.2	0.3	0.4	5.5	14.3	23.1	24	15.2	8.4	5.3	3.2	1.9	9.6	115.8
어린이 (7세~12세)	3.2	3.2	0.3	0.6	7.4	19.7	31.7	33.3	20	11.5	5.3	2.1	0.9	6.4	145.6
청소년 (13세~18세)	0.7	—	0.3	—	1	2.1	3.5	2.8	4.2	1.4	5.2	5.5	4.2	17	47.8

<부록 표 1-3> 애니메이션 주 시청 시간대(주말) [문 28]

(단위: %)

	사례수 (명)	8~ 9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시청 안함	계
■ 전 체 ■	(949)	4.8	10.7	13.6	7.3	5	5	11.1	12.6	15.1	16.4	15.1	10.7	6.1	1.7	0.9	10.4	146.6
어린이 (7세~12세)	(660)	6.5	14.7	18.2	8.9	5.5	5.9	13	16.1	19.8	21.8	19.1	12.3	6.8	1.5	0.6	9.8	180.6
청소년 (13세~18세)	(289)	1	1.7	3.1	3.5	3.8	2.8	6.6	4.8	4.2	4.2	5.9	7.3	4.5	2.1	1.7	11.8	68.9

<부록 표 1-4> 애니메이션 지상파TV 시청 희망 시간대(주중) [문 29]

(단위: %)

	사례수 (명)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 전 체 ■	(949)	0.8	3.7	2.8	3.1	2.8	1.5	0.6	1.1	1.9	6.8
어린이 (7세~12세)	(660)	0.9	3.2	3.6	3.2	3.2	1.8	0.8	1.1	2.1	8.3
청소년 (13세~18세)	(289)	0.7	4.8	1	2.8	2.1	0.7	0.3	1	1.4	3.5

	사례수 (명)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시청 안함	계
■ 전 체 ■	(949)	16.1	32.6	29.9	13.9	5.3	3.1	2.2	1.4	18.2	147.8
어린이 (7세~12세)	(660)	18.9	38.9	35.5	16.2	5.8	0.5	0.3	0.5	10.5	155.2
청소년 (13세~18세)	(289)	9.7	18	17.3	8.7	4.2	9	6.6	3.5	36	131.1

<부록 표 1-5> 애니메이션 지상파시청 희망 시간대(주중) [문 29]

(단위: %)

	사례수 (명)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 전 체 ■	(949)	1.3	3.5	6.2	10.1	14.2	6.4	6.3	6.8	9.9	12.6
어린이 (7세~12세)	(660)	1.4	3.2	6.5	11.4	17.1	8.3	7.1	7	12.4	14.5
청소년 (13세~18세)	(289)	1	4.2	5.5	7.3	7.6	2.1	4.5	6.6	4.2	8.3

	사례수 (명)	16시~17시	17시~18시	18시~19시	19시~20시	20시~21시	21시~22시	22시~23시	시청 안함	계
■ 전 체 ■	(949)	15.7	19.8	15	8.2	3.6	2.3	0.8	18.2	161.1
어린이 (7세~12세)	(660)	18.2	23.5	17.1	8	3.3	1.4	0.3	10.9	171.7
청소년 (13세~18세)	(289)	10	11.4	10	8.7	4.2	4.5	2.1	34.9	137

부록 Ⅱ. 편성규제 관련 조항

이 부분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과 관련된 법령, 특히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분과,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를 게재한다.

1. 방송법[시행 2010. 6. 8] [법률 제1036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3. 22, 2006. 10. 27, 2007. 1. 26>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다.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

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

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

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6. 10. 27, 2008. 2. 29>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31]

[시행일: 2010. 8. 1] 제69조의2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 3. 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법률 제8301호(2007. 1. 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6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 (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5. 18, 2009. 7. 31>

1. 방송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 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2006헌마352, 2008. 11. 27, 방송법 제73조제5항(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8, 2007. 7. 27, 2008. 2. 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 1. 26>)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 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③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 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26]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들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26]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26]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78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0, 2004. 3.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 4. 20,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28>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08. 2. 29>

⑤삭제 <2007. 7. 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4. 20, 2006. 10. 27, 2007. 7. 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7>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 2. 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 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9. 7.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 등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방송법 시행령[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 5 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법 제6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⑥법 제69조 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⑦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1. 영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

송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 9. 17, 2008. 2. 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

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7>

②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2, 2008. 12. 31, 2010. 1.26>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대해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해당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데이터 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 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 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 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 방송채널 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 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 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 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 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 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1.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 8. 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⑤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7>

⑥법 제73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7, 2008. 2.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광고물

[2006헌마352, 2008. 11. 27,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2호
개정 2008. 12.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방송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②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③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 나.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②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 ③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 ④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

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 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 및 예술영화의 인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제1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0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제75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8-72호, 2008. 5. 19)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제2008-135호, 2008. 12. 31.)

-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 ③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 ④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3호(2008. 5. 19)는 폐지한다.

부 칙(제2009-27호, 2009. 11. 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1. 공통기준

- 가. 각 분야별 점수의 합계가 20점 이상(가산점을 포함)인 제작물
나. 제작과정에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와는 별도로 2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이차원(2D) 애니메이션

- ① 프로듀서: 2점, ② 기획 착안: 2점, ③ 지적 재산권: 1점, ④ 수익분배권: 1점, ⑤ 시나리오: 2점, ⑥ 모델(캐릭터) 디자인: 2점, ⑦ 총감독: 2점, ⑧ 스토리보드: 2점, ⑨ 배경 디자인: 2점, ⑩ 배경 제작(컬러): 2점, ⑪ 레이아웃(기본 구도) 제작: 1점, ⑫ 원화 제작: 2점, ⑬ 동화 제작: 2점, ⑭ 선·채화: 1점, ⑮ 촬영: 1점, ⑯ 영상 편집: 1점, ⑰ 주제가 작사·작곡: 1점, ⑱ 성우 녹음: 1점, ⑲ 효과 음악: 1점, ⑳ 음향효과·믹싱: 1점

3. 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 제작물

- ① 프로듀서: 2점, ② 기획 착안: 2점, ③ 지적 재산권: 1점, ④ 수익 분배권: 1점, ⑤ 시나리오: 2점, ⑥ 기본 디자인: 2점(캐릭터-1점, 배경-1점), ⑦ 매핑/텍스처링: 1점, ⑧ 모델링: 4점(캐릭터-2점, 배경-2점), ⑨ 총감독: 2점, ⑩ 스토리보드: 2점, ⑪ 애니메이션: 2점, ⑫ 비주얼 이펙트/합성: 2점, ⑬ 영상 편집: 1점, ⑭ 렌더링: 2점, ⑮ 주제가 작사/작곡: 1점, ⑯ 성우 녹음: 1점, ⑰ 효과음악: 1점, ⑱ 음향효과·믹싱: 1점

4.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물

- ① 프로듀서: 2점, ② 기획 착안: 2점, ③ 지적 재산권: 1점, ④ 수익 분배권: 1점, ⑤

시나리오: 2점, ⑥ 기본 디자인: 2점(모델 디자인-1점, 배경 디자인-1점), ⑦ 스토리보드: 2점, ⑧ 모델 제작: 4점(캐릭터 제작-2점, 세트 제작-2점), ⑨ 총감독: 2점, ⑩ 미술 감독: 1점, ⑪ 조명: 1점, ⑫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2점, ⑬ 촬영: 2점, ⑭ 영상 편집: 1점, ⑮ FX/합성: 1점, ⑯ 주제가 작사·작곡: 1점, ⑰ 성우 녹음: 1점, ⑱ 효과음악: 1점, ㉑ 음향효과·믹싱: 1점

[별지 서식 제1호]

()년 ()분기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방송실시결과

1. 사업자 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초허가일(재허가일)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2. 전체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분) [B]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적용	HD방송시간(분) [D]				
	HD방송비율 [E=D/A]				
주시청 시간대	총 주시청시간(분) [F]				
	HD방송시간 [G]				
	HD방송비율 [H=G/F]				

3. 방송분야별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가. 드라마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드라마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분) [B]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적용	HD방송시간(분) [D]				
	HD방송비율 [E=D/A]				

나. 스포츠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스포츠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분) [B]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적용	HD방송시간(분) [D]				
	HD방송비율 [E=D/A]				

다. 다큐멘터리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다큐멘터리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분) [B]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적용	HD방송시간(분) [D]				
	HD방송비율 [E=D/A]				

라. 만 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 교육용 방송프로그램(한국교육방송공사 한)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유아·어린이 교육용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분) [B]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적용	HD방송시간(분) [D]				
	HD방송비율 [E=D/A]				

마.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동 고시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한)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자체제작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분) [B]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적용	HD방송시간(분) [D]				
	HD방송비율 [E=D/A]				

< 작성방법 >

- ① 전체방송: 해당기간 전체 방송시간의 총합임.
- ② 가중치 미적용 HD방송시간: HD프로그램의 해당기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③ 가중치 미적용 HD방송비율: 전체방송시간 대비 HD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
- ④ 가중치적용 HD방송시간: 드라마, 스포츠, 다큐멘터리, 주시청시간대, 만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한국교육방송공사 한), 자체 제작한 HD프로그램(동 고시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 한)에 대해 실제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산정한 방송시간 합계임
- ⑤ 가중치적용 HD방송비율: 전체 방송시간 대비 가중치를 적용한 HD방송시간 비율
- ⑥ 총 주시청시간: 해당기간동안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의 총합임
※ 주시청시간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⑦ 주시청시간대 HD방송시간: 주시청시간대 HD프로그램의 해당기간 방송시간 합계임.
- ⑧ 주시청시간대 HD방송 비율: 주시청 시간대 전체방송시간 대비 주시청시간대 HD방송시간 비율
- ⑨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서식 제3호]

제작참여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작품명:

본인은 위 작품의 제작과정 중 ()부분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확인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사무실(-)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사무실(-)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사무실(-)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사무실(-)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사무실(-)

부록 III. 해외 주요국의 편성정책

이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지상파TV 방송에 대한 편성정책을 소개한다.²⁸⁾ 편성정책은 문화적 산업적 요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EU의 디렉티브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정책, 영국의 편성정책, 그리고 호주의 편성정책을 정리한다.

1. EU 사례

1) 디렉티브의 개요

유럽연합은 통합된 유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유럽 내의 텔레비전 관련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TV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s)이며, 이를 최근의 네트워크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계승하고 있는 것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이다.

1989년 10월 3일에 공표된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은 유럽 회원국 내에서 자본이나 상품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재정비하여 텔레비전 관련 경제적 활동의 법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다. 1989년 지침의 등장은 유럽 내의 위성방송의 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텔레비전서비스의 국경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유럽 내에서는 자유로이 유통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에서는 방송사에 대한 정의(article 2),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자유(article 3)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지침은 1989년도의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므로, 이후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발전상황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즉,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일방향적인 텔레비전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텔레비전서비스의 공급, 주문형 콘텐츠(VoD)와 같은 다양한 전송형태의 서비스에

28) 이 부분은 2008년도 편성현황 보고서에 부록 I로 게재되었던 내용이다.

대한 고려는 없다. 즉,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유럽국가간의 규제 차이는 서비스의 유럽 내 유통을 저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지침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 지침은 2007년 12월부터 기존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대체하였다. 또한 이 지침은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2009년까지 자국의 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새로운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일방향적인 시청각서비스뿐 아니라 양방향성의 서비스도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규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country of origin)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지침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유럽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한 편성쿼터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일방향성을 가진 것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양방향성의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디렉티브 상의 편성정책

EU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지침 중 편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유럽산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와 독립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쿼터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은 모두 일방향성 시청각서비스인 리니어서비스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서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시간의 많은 부분(a majority proportion)을 유럽산 제작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²⁹⁾ 지침에서의 방송사업자란 선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또한 이 조항에서의 방송시간이란 뉴스, 스포츠 이벤트, 광고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뜻한다. 지침은 또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시간의 10% 이상, 혹은 프로그램 제작예산의 10% 이상을 독립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유럽산 프로그램에 할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⁰⁾ 이 규정에서도 방송사업자는 리

29) 시청각미디어서비스디렉티브(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2009년 proposal codified version)의 16조 1항은 다음과 같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where practicable and by appropriate means, that broadcasters reserve for European works a majority proportion of their transmission time, excluding the time appointed to news, sports events, games, advertising, teletext services and teleshopping. This proportion, having regard to the broadcaster’s informational, educati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responsibilities to its viewing public, should be achieved progressively, on the basis of suitable criteria.”

30) 시청각미디어서비스디렉티브(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2009년 proposal codified version)의 17조는 다음과 같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where practicable and

니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방송시간의 개념도 뉴스 등을 제외한 시간을 뜻한다. 또한 이 10% 라는 수치에는 적절한 양의 신규 제작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U의 모든 지침들이 그러하듯이, 편성에 관한 지침은 회원국의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입법화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EU 국가들의 디렉티브 이행 상황

EU는 2년마다 회원국의 유럽산 프로그램과 독립제작물의 편성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다.³¹⁾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³²⁾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대한 편성현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표 3-1> 프로그램 쿼터 이행 현황

	2003	2004	2005	2006
대상채널 수	584	765	949	1,096
유럽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균	65.18%	63.32%	63.25%	65.05%
독립제작된 유럽산 프로그램 비율 평균	31.39%	31.5%	36.44%	37.59%
독립제작된 유럽산 프로그램 중 신규제작물 비율 평균	71.66%	69.09%	68.65%	66.75%

자료: EU(2008)

먼저 편성쿼터 적용 대상이 되는 채널의 수는 2003년 584개에서 2006년에는 1,096개로

by appropriate means, that broadcasters reserve at least 10% of their transmission time, excluding the time appointed to news, sports events, games, advertising, teletext services and teleshopping, or alternately, at the discretion of the Member State, at least 10% of their programming budget, for European works created by producers who are independent of broadcasters. This proportion, having regard to broadcasters' informational, educati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responsibilities to its viewing public, should be achieved progressively, on the basis of suitable criteria; it must be achieved by earmarking an adequate proportion for recent works, that is to say works transmitted within five years of their production.”

31) 실제의 데이터 집계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쿼터 이행 현황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자의 제출 자료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32) Eighth Communic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4 and 5 of Directive 89/552/EEC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as amended by Directive 97/36/EC, for the period 2005.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EU에 편입된 회원국 수의 증가뿐 아니라 유럽 시청각산업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유럽산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2003년~2006년 기간 중 평균적으로 약 65%대에 머물고 있으며, 독립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유럽산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은 2003년 31.39%에서 2006년 37.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독립제작사 제작의 프로그램 중 신규프로그램의 비중은 약 60% 중반에 머물고 있다.

2. 영국 사례

1) 주요 편성정책

영국의 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요한 편성쿼터는 크게 EU의 지침에 의한 유럽산 프로그램 쿼터, 원 제작물(original productions) 쿼터, 외주제작물 쿼터 등이 있다.³³⁾ 이 중에서 유럽산 프로그램 쿼터는 위에서 설명된 EU의 지침에서 명시하는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리니어서비스, 즉 텔레비전, 케이블,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의 원 제작물 쿼터 규정에서 정의되는 원제작물이란 외부에서 단순 구매된 프로그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방송사가 자체제작하거나 독립제작사에 의뢰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 규정은 모든 공영방송사(PSB: public service broad caster)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방송사별로 부과되는 쿼터의 수준은 상이하다. 이 원작물 쿼터는 방송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쿼터비율과 주시청시간대에 대한 쿼터비율이 상이하다. 주시청시간대는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으로 정의되나, BBC 3과 4의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정의된다.³⁴⁾ 영국의 외주제작물 쿼터제는 최초 1990년 방송법에 의해서 25%로 설정되었으며, 현재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서 모든 공영방송사에 대해 25%로 설정되어 있다.

2) 편성정책의 이행 상황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2009년 8월에 발간된 커뮤니케이션시장백서³⁵⁾에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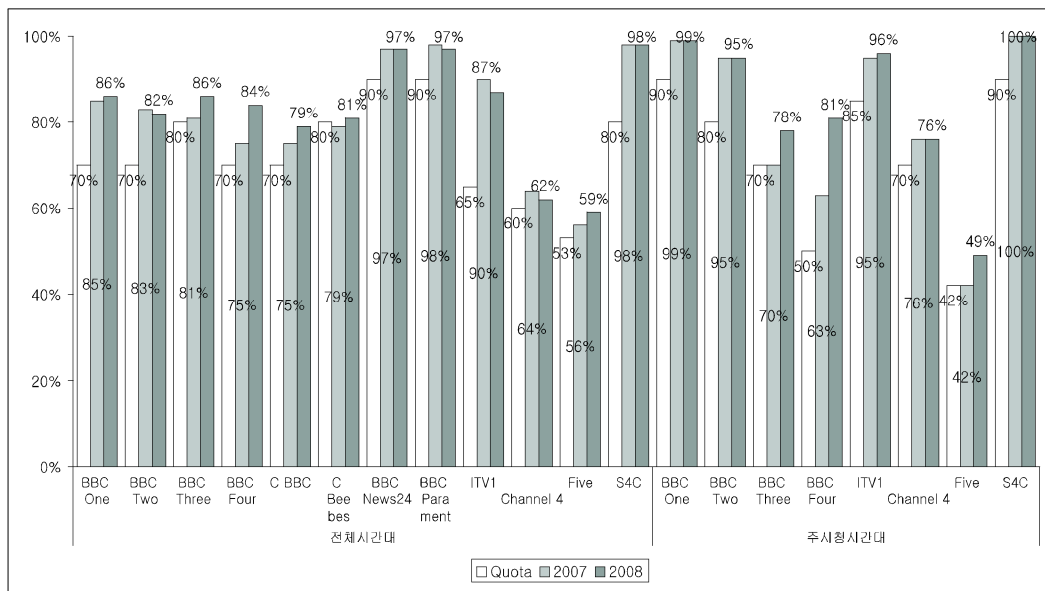
33) 이외에도 런던이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제작물에 대한 쿼터, 보도에 관한 사항,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쿼터, 자막 방송 등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한 제도들이 있다.

34) 영국의 2003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르면, OFCOM은 개별 방송사의 주시청시간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자와 반드시 협의과정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쿼터제의 이행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원제작물 쿼터(original productions quota)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그림에 정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쿼터는 모든 공영방송사에 적용되나, 방송사별로 쿼터의 수준이 다르게 규정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의 방영 비율은 모든 회사들이 쿼터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영국 규제기관이 대부분의 방송사에 대해서 주시청시간대에 높은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시청시간대에는 오리지널 작품의 비율이 부여된 쿼터기준보다 높았으며, BBC One, BBC Two, ITV1, S4C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다.

[부록 그림 3-1] 영국의 원제작물(original productions) 쿼터 이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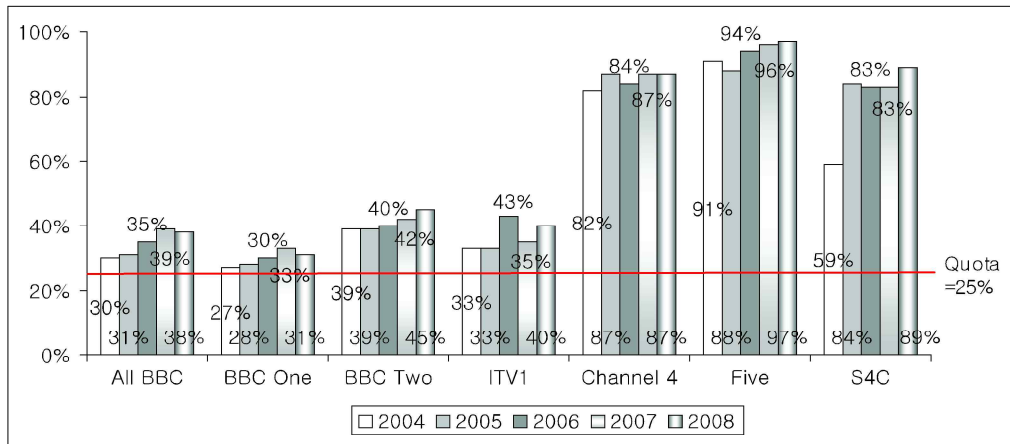


자료: OFCOM(2009)

외주제작물에 관한 방송사들의 방영시간 비율은 25%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간의 시기에 모든 방송사들은 규정보다 높은 외주제작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 BBC One은 31%, BBC Two는 45%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Channel 4, Five, S4C의 경우 자체 제작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3-2] 외주제작물 쿼터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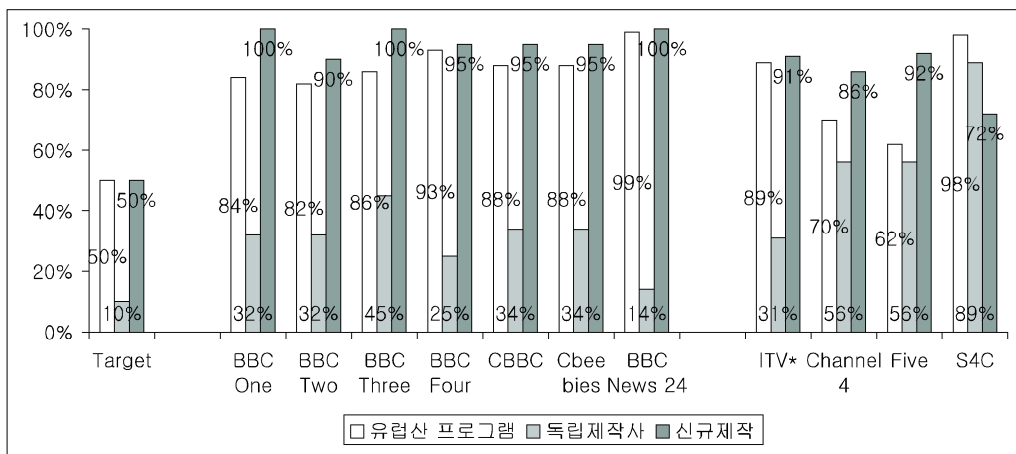
(쿼터: 25%)



자료: OFCOM(2009)

영국의 유럽산 프로그램 쿼터는 전체 방영시간 중 50%이상, 독립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유럽프로그램은 10%이상, 독립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유럽프로그램의 중 신규 프로그램의 비율은 5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국 방송사의 경우, 위와 같은 쿼터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3-3] 유럽산 프로그램 쿼터 이행 현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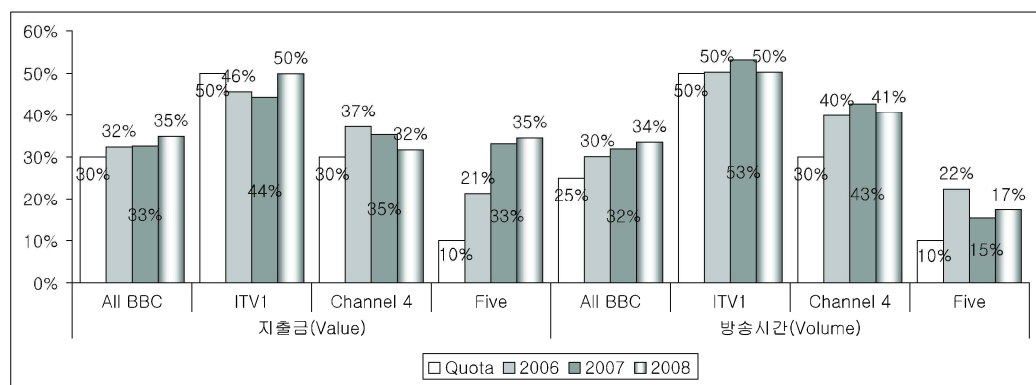
자료: OFCOM(2009)

4개의 주요 PSB 사업자³⁶⁾는 M25³⁷⁾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편

36) BBC, ITV, Channel4, Five. 단, S4C는 지역제작사 쿼터에 적용되지 않음

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런던이외지역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 수준은 방송 사업자 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또한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금전적인 면(Value)과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적인 면(Volume)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4개의 주요 PSB 채널은 시간적인 면(volume)에서는 쿼터를 잘 준수했으나, 지출 면(value)에 있어서는 ITV가 2008년 49.9%로 근소한 차이로 쿼터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06년(45.6%), 2007년(44.3%)에도 쿼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Ofcom은 ITV 지역 면허 사업자에게 각각³⁸⁾ GBP 20,000씩, 총 GBP 220,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³⁹⁾ ITV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BBC, Channel4, Five 등은 부과된 쿼터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런던이외지역 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부록 그림 3-4] 런던이외지역 제작 프로그램 쿼터 이행 현황(2009)



자료: OFCOM(2009)

3. 호주 사례

호주의 주요한 텔레비전 편성쿼터는 주로 자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것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쿼터는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자국산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국산 드라마에 대한 쿼터, 자국산 다큐멘터리 쿼터, 자국산 어린이 프로그램 쿼터, 어린이 프로그램 쿼터, 자국산

37) 런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순환도로를 뜻하며, 이를 기점으로 안쪽의 1~2존을 Central London, 3~6존을 Great London이라고 부름.

38) 총 11개 사업자(ITV Anglia, ITV Border, ITV Central, ITV Granada, ITV London(2 licences), ITV Meridian, ITV Tyne Tees, ITV Wales and West, ITV Westcountry, ITV Yorkshire)

39) 자세한 사항은 Ofcom Content Sanctions Committee: the ITV Plc Licensees(16/01/09)를 참조

유아 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 쿼터 기준도 시간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방송시간, 이를 혼합한 점수제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자국산 프로그램의 정의에서 일정 부분 이웃국가인 뉴질랜드 프로그램을 자국산 프로그램으로 인정해주고 있다.⁴⁰⁾

쿼터제에 따르면 자국산 프로그램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의 방영시간 중 55%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또한 1년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의 최초 방영되는(first release) 자국산 다큐멘터리를 편성해야 한다.

어린이와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쿼터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1년에 260시간 이상 편성되어야 하며, 자국산 어린이 드라마는 최초 방영의 경우 25시간, 재방송의 경우 8시간 이상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국산 유아 프로그램은 130시간 이상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국산 유아용 프로그램은 연간 130시간 이상 방영해야 한다.

40) 자세한 사항은 호주 콘텐츠 스탠다드(Broadcasting Services Australian Content Standard 2005)를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10-08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발 행 일 2010년 8월(비매품)

발 행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처 인성문화
